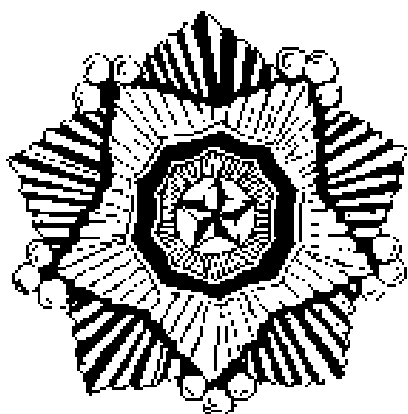


8

주체 100 (2011)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100(2011)년 제8호  
(루계 제 766 호)

## 차 례

이 땅엔 개선문이 있다 .....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4
해방의 날 나의 노래 .....	4
축원의 인사 .....	5
너는 아름다운 명소 .....	5
장군님 조국으로 돌아오신 날은 .....	6
주체문학의 대강 .....	7
8 월 25 일 .....	7
선군은 조국의 행운 .....	8
나는 땅크사단 근위병이였네 .....	8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의 창작을 이끌어주시여 .....	9
이삭이 패는 소리 .....	10
하늘나라 물고기 .....	11
나라길이 시작된 곳에서 .....	18
생의 뿌리 .....	19
마음의 언제가 더 높이 솟는다 .....	26
밤없는 하루 .....	27
내 고향 군민다리 .....	27
갈대숲서정 .....	28

우리의 희천시절은 가지 앓으리 .....	40
아버지들 .....	41
아들 .....	52
나는 군관의 아들 .....	53
고향의 속향기 .....	53
최첨단과학기술돌파전, 우리의 래일은 창창하다 .....	54
석판인쇄법의 발명과 제네렐더 .....	57
우리 시대 과학자에 대한 생각 .....	58
청춘을 노래하라 .....	59
잠들지 않는 파도 .....	60
평화가 깃들지 않은 땅에서 .....	70
청춘시절 일기중에서 .....	71
의기가 .....	72
력사소설에서 시가의 합리적인 리용 .....	73
잡초 무성한 길 .....	76
꾸바의 혁명적시인 니콜라스 길렌 .....	79

# 이 땅엔 개신문이 있다

주 경

1

8월의 환호를 안은  
개신문 네앞에 서니  
이 나라 모든 문들이 여기서 열린듯  
보여오누나 세월의 푸른 이끼를 간직한  
옛 성터와 성문들  
이 땅에 평범한 공민들이 들어서서  
사랑과 은정의 문들과  
흰파도 밀려오는 동해기슭  
정다운 나의 집 문도...  
말하라 개신문아  
동방일각에 우뚝 솟아  
반만년력사를 자랑하던 조국  
왜적에게 빼앗긴 그 세월  
문열고 들어설  
제집 있었던가

2

개신문 네앞에 서니  
마음속에 열려오는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이어!  
이 사립문을 나서신 그날부터  
피바다 불바다를 건너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시고  
20년만에 고향집뜨락의 작은 문을 열고  
우리 수령님 조용히 들어서실 때  
두팔로 껴안으시며  
가슴허비듯 울리는  
늙으신 할머니의 뜨거운 목소리에  
산천초목도 울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  
오, 함께 오지 못한분들을 기다려선가  
지금도 열려있는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이어!

3

1925—1945  
우리 수령님 헤쳐오신 피어린 항일의 년대가  
개신문에 새겨진 글밭을  
무심히 보지 마시라  
오직 한마음 수령님따라  
짓밟힌 조국의 아픔  
끓는 피로 덜어준 열혈의 심장들  
살아 못 가면 죽어 뉘이라도 기어이 가리라던  
그 불타는 애국의 마음들이  
빼앗긴 조국을 찾는 그 길은  
얼마나 험난했는가를 말해주는 개신문  
다시는 잃어선 안될 조국의 귀중함을  
천추만대에 새겨주며  
오오, 이 땅엔 개신문이 있다

4

개신문 나는 네앞에서  
우리 혁명이 걸어온  
백승의 역사를 본다  
우리 장군님 따라  
천만군민이 열어나가는  
강성대국의 대문도 여기서 보리니  
그 어떤 침략의 무리들도  
감히 넘을수 없는  
선군의 반석우에 빛나는  
오, 개신문이어  
저 주작봉마루의  
투사들의 엄숙한 눈빛이 지켜보는  
력사의 이 개신문을  
자기 삶앞에 세우라  
그들처럼 조국위해 바친  
애국충정의 땀뻑한 마음으로  
이 개신문에 들어서라!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입니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힘을 믿는데서부터 생깁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믿음, 자기자신의 힘, 자기 집단의 힘, 자기 인민의 힘, 자기 당의 힘을 확고하게 믿을 때만이 혁명가의 신념이 고수되는 법입니다.》

《백날을 굶어도 살아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 단 하루의 떳떳한 삶을 위해 천날 고생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 절해고도에 홀로 떨어져 이름모를 숲속에서 한점의 리끌로 사라져도 조직이 자기를 찾고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줄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자기를 키워준 지도자와 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폭도 하고 교수대에도 서슴없이 올라서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언제나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나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해방의 날 나의 노래

리 영 철

그날도 왜놈감독은  
소년탄부 나를 때렸다  
오소리굴같은 막장끝에서  
무릎살을 벗기우며 질통에 저내온 석탄  
그것이 어른들의것보다 작다고

장마철 쏟아지는 폭우  
거적문을 들때리는 습한 움막에  
앓아누운 어머니와 동생을 살리려  
하루의 품삯에 생사를 엮고도  
그것을 기억할수 없었던 날이었다

누가 알았으랴  
사나운 채찍이 온몸에 떨어질 때마다  
온 식솔 굶고있을 집생각으로  
소년의 두볼에 절망의 눈물이 흐르던  
바로 그런 날 그런 때  
세상이 뒤바뀌는 사변이 일어날줄을

—해방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셨다!  
...

황포하던 왜놈감독이  
어린 나의 발밑에 엎드려 빌었다  
그놈의 등허리를 발로 뭉개고  
나도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며  
탄부들을 따라섰던 그날은  
잊을수 없는 8월 15일이였다

얼마나 고대하던 날이었던가  
막장이 무너져 죽은 아버지

그 시신을 버럭산 중턱에 묻고  
그 길로 탄질통을 어깨에 걸메야 했던 소년  
불우하고 비참했던 암흑의 그 세월에  
해방의 은인 **김일성**장군님 이야기 들으며

그때 해방의 그날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이 없었더라면  
어이 있을수 있었으랴  
동생과 함께 책보 들고 학교가던 희망의 그 아침  
어머니의 병을 무상으로 치료해준 해빛밝은 그  
병원

억압의 채찍만이 휘감기던 이 가슴팍에  
오늘은 누구나 부럽도록 안겨진  
사랑의 선물... 눈부신 로력영웅메달...

하기에 나에겐  
해방이란 그 말이  
조국이란 이름과 같고  
조국이란 그 부름 또한  
잠시도 떨어져선 살수 없는  
영원한 수령님의 품이거늘

위대한 아버지의 그 품에  
우리 장군님 빛내시는 조국에  
바친것 적고 받은것만 넘치는 내 한생  
앓으나서나 심장에 불타는것은  
우리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갈 생각뿐

아, 조국이 있어야 삶이 꽃피고  
운명도 행복한것임을  
추억속에 사무치게 새겨주는 8월 15일  
인민이 부르는 노래와 더불어  
이 조선에 무궁토록 뜻깊은 명절로 흘러흐르리

# 축원의 인사

## 허수산

어제는  
통전과 덕성의 파수발 돌아보시며  
그리도 밝게 웃으시던 장군님  
어느 사이이시랴  
중국대지 1만 5천여리장정으로  
5월의 봄날을 더욱 꽃피우신것은

온 나라의 기쁨이여라  
온 세계의 경사여라  
조중 두 나라의 친선단결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영광의 걸음 걸으신 장군님

우리 수령님께서서  
중국의 로세대령도자들과 함께  
영원히 맺어놓으신 친선의 전통  
그 전통을 빛내이시려  
장군님은 걸으시였다  
멀고먼 길을

우리 수령님 쌓아올리신  
그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가시려  
수령님 걸으신 길을 따라  
산과 강을 지나  
장군님 견고걸으시였다

수령님의 력사의 자욱  
감회깊이 새기시며  
공장과 목장을 찾으시여도  
조국의 숨결과 인민의 모습을  
한가슴에 이어보시며 걸으신 길이어

길이어 길이어  
조중친선의 길우에  
더 아름다운 친선의 꽃을 활짝 피우신  
력사의 길이어  
영광의 길이어

그 길에서 중국인민은  
친혈육의 정으로 환호하였다  
자신들의 성과를 축하해주는  
우리 장군님의 손길에 가슴뜨거워  
환호하고 또 환호하였다

원썬들은 무서워하고  
우리의 벗들은 기뻐하는 조중친선  
그 무엇으로도 깨뜨리지 못하리라  
백두의 천년수림과도 같이  
영원히 푸르청청할 친선  
압록강의 도도한 흐름과 같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변함없을 단결

강성국가건설의 그 길에  
기쁨이여라 경사여라  
우리 장군님 헌신의 자욱 따라  
조중친선은 영원하고  
평화의 성새는 더 높이 쌓아지려니

아, 그 업적 하늘에 닿아  
해와 별처럼 빛나고  
그 영광의 자욱우에  
조중친선의 꽃은 무궁토록 피려니  
천만군민은 가장 순결한 충정의 마음 담아  
아버이장군님께 삼가 축원의 인사 드리여라!

# 너는 아름다운 명소

## 한원희

맑고맑은 거울과도 같이  
해빛 안고 웃고웃는 거울과도 같이  
경박호 너는 아름다운 명소  
오늘은 우리 장군님 모셨구나

너의 물결은 물결마다

굽니며 텅굴며 달려오누나  
그이를 우러르는 기쁨의 노래인가  
옥구슬 진주구슬 다 모아 뿌리누나

아득한 만리광야 지척인듯 오가시며  
다시 또다시 동북땅을 찾으신 장군님

너의 인사 너의 큰절 다 받아주시며  
깊은 감회에 젖으시는 그이

피어린 항일의 나날에  
중국의 전우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시던  
아버이수령님의 그 모습  
너의 물결우에 어려오시는듯

혈전의 언덕을 넘고넘으시며  
하나로 맺어진 형제의 정  
너의 물결되어 출렁이는것만 같아  
오래도록 발걸음 못 떼시누나

아, 그이 아니시던가  
아버이수령님 물려주신  
조중친선의 불멸의 그 위업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내이시는분  
그이 걸으신 길 몇천몇만리던가

준엄한 날에도 서로 돕고  
행복한 날에도 서로 굳게 뭉쳐  
두 나라의 번영과 행복을 꽃피워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길

아, 그 길에 바치신 끝없는 노력  
쌓이고쌓이신 피로를 푸시라고  
이렇듯 황홀한 풍치를 펼치는 너  
그이를 모신 기쁨의 눈물인가  
옥구슬 진주구슬 다 모아 뿌리는데

아, 경박호 너는 아름다운 명소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어리어  
너는 더더욱 아름다와지리라  
천만년 변함없을 조중친선의 정이 어려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리라

## 장군님 조국으로 돌아오신 날은

김 길 성

행복한 밤을 지낸 아침  
산마루에 솟은 아침태양처럼  
우리 장군님 소문도 없이  
외국방문의 길을 다녀오셨구나

장군님 가시는 그 길에  
이 땅에 만발한 꽃을  
다발로 모두 엮어드린들  
온 나라의 비단필을  
가고오신 그 길에 퍼드린들  
축원의 우리 마음 다함있으랴

낮이나 밤이나  
선군장정을 주름잡으시던 그 보폭으로  
우리 수령님 마련해주신 친선의 반석우에  
자욱자욱 조중친선의 꽃을  
천년세월 만년세월로 활짝 피우신 장군님

오, 생각만 하여도  
가슴 뭉클 뜨거워나고  
가슴에 걱정의 파도 일어라  
단 며칠사이에 1만5천여리  
광활한 중화대지에 남기신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

조국의 최전연초소들과  
공장과 협동농장들  
쉬임없이 찾으시던 그 걸음 그 모습으로  
수령님의 불멸의 항일의 투쟁력사가 깃들어있는  
동북지역과 경박호를 돌아보시며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중친선업적을  
무궁세월에도 이어놓으셨거니

영광이여라 기쁨이여라  
장군님 중국방문성파에 화답하여  
희천의 언젠는 하늘가에 솟아오르고  
김철과 성장의 쇠물은 파도쳐흐르고  
온 나라 농장벌은 푸른 주단 펼쳤구나

아, 아버지 우리 장군님  
조국을 떠나신 날은 단 며칠  
아버이 우리 장군님  
중국에 계신 날도 단 며칠  
장군님 중국을 떠나 조국으로 돌아오신 그날은  
조중인민의 대경사의 날  
조중 두 나라 력사가 길이 전할 날이여라

## 주체 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보장하는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문학에서 사상성은 주로 작품의 내용과 관련되어있으며 예술성은 작품의 형식과 많이 관련되어있다. 작품에서 내용의 경향성은 사상성을 규정하며 형식의 꾸밈새는 예술성을 규정한다. 작품은 내용이 심오하고 혁명적일수록 높은 사상성을 가지며 형식이 특색있고 세련되어 있을수록 고상한 예술성을 가진다.》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서 규정적이며 결정적인것은 내용이다. 작품에는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가 심어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주제와 사상, 시대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인간성격이 그려져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은 밀접한 련관관계에 있다. 문학에서 내용을 떠난 형식이 있을 수 없는것처럼 형식을 갖추지 못한 내용도 있을수 없다. 내용은 형식을 규정하고 제약하며 형식은 내용에 따르면서 그것을 표현한다. 내용은 그에 알맞는 형식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표현될수 있다. 잘된 형식은 내용에 적극 반작용하면서 내용을 생동하고 감명깊게 드러낸다.》

## 8 월 25 일

조영일

오고가는 세월속에  
8월 25일은 무수히 흘러갔어도  
우리는 잊지 못한다  
1960년 8월 25일

8월의 불별을 헤치시며  
철갑대오 땅크사단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병사들 얼마나 환희에 넘쳤던가

선군으로 찾아주신 우리 조국을  
선군으로 빛내갈 장군님 모신 영광있어  
그날은 레사로운 날이 아니였다  
이 땅의 천만년세월이  
선군으로 이어질 력사의 날이였다  
선군의 나라로 위엄펼칠 행운의 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운명을 맡기어  
해방된 조국에서 마음껏 누려온 행복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미래도 맡기어  
이 땅에서 대를 두고 누려갈 기쁨이  
함께 찾아온 력사의 날이였다

8월의 태양은 불별을 쏘고

8월의 대지는 불별에 달았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차게 들려왔다  
수령님 백두에서 헤치신 선군의 눈보라...  
장군님 백두에서 새기신 선군의 총포성...

우리 어찌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기고 따르지 않으랴  
수령님은 백두광야에서  
선군총대를 높이 추켜드신분  
장군님은 무궁세월  
백두의 그 총대로 우리 행복 지켜주실분

영광이여라 행운이여라  
8월의 하늘가에 불타는 태양도  
수령님과 장군님을 목숨으로 사수해갈  
철갑대오 병사들의 마음으로 더욱 불타고  
8월의 대지에 넘치는 뜨거운 열풍은  
불속에서도 변함없을 우리 마음으로 뜨겁거니

아, 1960년 8월 25일은  
수령님께서 안고오신 백두의 총검을  
장군님께서 더 억세게 틀어잡으신 날이였다  
수령님께서 선군으로 찾으신 조국을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누리에 펼쳐가실  
선군조국의 무궁한 미래가 약속된 날이였다



# 선 군은 조국의 행운

리 명 근

선군이란 그 말은  
주체라는 말처럼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말이다  
선군으로 하여  
조국은 세계앞에  
자기의 존엄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수령님따라 선군의 한길을 걸어왔다  
흘러간 60년대 무쇠땅크의 무한궤도가  
땅을 억세게 구르며 달려가던  
그 환희에 넘친 8월과 더불어  
우리의 선군세월은 장군님따라 더욱 용융히 굽  
이쳐흘렀다

그날이 있어 수령결사옹위의 불멸의 신념  
선군혁명대오의 기치를 더욱 붉게 물들였고  
더 높이 추켜든 붉은 기치가  
선군혁명대오의 영원한 표대가 되었다

온갖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길수 있는것은  
오직 선군의 기치이며 선군조국의 운명이신  
위대한 령장의 령도가 있었기때문이지

그 불패의 령도가 있어  
우리는 우리 식으로 자기 힘을 키워  
온갖 원썬들의 도전을  
제힘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강대한 선군의 나라를 일떠세웠다

선군 이것이 있어

가 사

무서운것이 없는 나라  
두려운것을 모르는 인민  
하기에 세계에 대고  
우리는 할말을 다 한다  
하고싶은 일을 다 한다

령토는 크지 않고  
인구는 많지 않아도  
우리는 선군으로 하여 이 행성우에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강대한 나라 강대한 인민이 되었거니

너를 지켜주고  
너를 빛내주고  
너를 내세워준  
선군이 너에게 있다는것은  
조국이며 그것은 네가 받아안은  
가장 큰 행운

그대 조국의 운명도 존엄도 미래도  
다 안겨있는 위대한 선군  
천만군민을 선군령장이 이끄시기에  
우리 인민의 존엄 누리에 빛난다

아, 조국에 기쁨을 주고  
조국에 활력을 주고  
조국에 승리를 주는  
선군이 그대와 함께 있나니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부를 나의 조국은  
위대한 선군조국이어라!

# 나는 땅크사단 근위병이었네

황 명 성

전투위훈 빛나는 나의 옛사단  
영광의 군기가 눈앞에 펼쳐이네  
장군님 선군의 첫자욱 찍으신 곳  
아 용맹한 땅크사단  
나는 영예론 근위병이었네

당중앙사수의 총대도 예서 버렸네  
일당백 무비의 담력도 예서 다졌네  
장군님 선군의 높은 뜻 새기신 곳

아 용맹한 땅크사단  
나는 용감한 근위병이었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군기와 함께  
혁명의 수뇌부 옹위의 땅크와 함께  
장군님 선군의 그 위업 완수해갈  
아 용맹한 땅크사단  
나는 영원한 근위병 되리

령도자와 작가

##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의 창작을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은 대대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줄기차게 싸워온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의 전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은 증조할아버님 대로부터 대를 이어가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워온 애국적가정이며 나라의 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해온 혁명적가정입니다.》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이 반일민족해방운동과 항일혁명투쟁에 쌓으신 사상적공적과 남기신 투쟁업적은 실로 위대하며 일가분들이 만경대고향집을 떠나 조선의 운명과 함께 걸어온 빛나는 로정은 평범한 일가의 가정사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일관되어있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이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 올리시고 혁명투쟁사에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기신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강렬한 지향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인 《력사의 새벽길》(상, 하), 《새날을 불러》(상), 《누리에 불는 불》, 《광야의 별》 등이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고귀한 생애를 길이 빛내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명작들로 창작완성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지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소설들을 혁명적대작으로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적대작은 철학적으로 심오한 혁명적내용을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하여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작품을 혁명적대작으로 창작할데 대한 사상에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로정에 깃든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애국, 애민, 애족의 불멸의 업적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감

명깊게 형상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투쟁을 고무추동하며 그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크나큰 뜻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작품창작에서 사건을 력사적사실에 맞게 전형화할데 대한 문제, 인물들의 성격과 호상관계를 격식화하지 말며 인물들의 대사를 평양말을 표준으로 하여 쓸데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혁명생애를 형상한 장편소설창작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한편한편의 작품마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상)과 《누리에 불는 불》의 창작완성과정을 놓고보아도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을 가슴뜨겁게 느낄 수 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상)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견결한 투쟁모습과 고매한 품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6(1977)년 11월 어느날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의 형상세계에 대하여 평가해주시고 소설을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폭넓게 형상한 혁명적대작으로 완성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소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당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실태와 본질적약점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지원의 사상에 의한 새로운 독립방략을 세우시고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며 감옥에서의 견결한 옥중투쟁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방향전환을 위하여 북부국경지대로로 혁명활동거점을 옮기실것을 결심하시는 내용을 기본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이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기본으로 그리면서도 강반석녀사를 비롯한 온 가족을 열렬한 애국자로, 혁명가로 키워가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게 되는 사회계급적토대와 가정적바탕을 진실하게 보여주

고있다고 평가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뒤받침하시는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의 형상을 통하여 대를 이어 내려오는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풍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대목들을 수정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 상권이 김형직선생님께서 평양감옥에서 출옥하신 다음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방향전환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북부국경지대에로 떠나시는것으로 끝났기때문에 하권에서는 림강, 팔도구, 무송을 중심으로 하여 벌리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잘 형상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6(1977)년 5월 어느날 장편소설 《누리에 불는 불》의 수정방향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소설과 혁명영화 《누리에 불는 불》은 김형권동지의 혁명활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취급하고있는것만큼 내용에서 일정한 통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소설에 나오는 일부 인물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과 달리 설정되었는데 그것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또한 인물관계와 대사, 호칭들이 격식화되고있는 현상을 지적하시면서 인물의 성격과 그들의 관계를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소설의 사상

예술성과 인식교양적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이 가르치심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물들의 관계를 현실생활과 같이 방불하게 보여주며 일가분들의 고매한 품모를 격식화, 공식화하지 않고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게 승화시켜 당시의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그분들의 숭고한 인간세계,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세계를 깊이있게 형상할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정도와 세심한 지도속에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을 형상한 장편소설창작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에는 조국과 민족,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사와 항일혁명투쟁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으며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크나큰 업적을 쌓아올리신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고귀한 혁명생애가 사상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형상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정도밑에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된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은 우리 주체사실주의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만히 하며 길이 빛날것이다.

리 정 혁

## 이 사 이 패 는 소 리

### 심 복 실

눈이 내리면 복눈이 내린다고  
웃음많은 처녀들이 떠들썩대고  
무럭무럭 김이 나는 거름더미를  
포전마다 듬뿍듬뿍 쌓으며  
뜨락또르발동소리 요란도 하던 벌

모내는기계소리 배미마다 울리고  
휴식참 벌어진 군민오락회  
모내기경쟁은 또 얼마나 불만 했나  
비료가 온다고 남흥비료가 온다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떠들썩하던 벌

지금은 백학이 긴목을 빼들고  
한가로이 두령을 오가는 계절  
하지만 오늘도 관리위원장이머니

장군님께 맹세한 알곡생산목표를 생각하며  
라는듯 한 눈빛이 떠날줄 모르는 벌

들러오네 가슴을 치며  
이삭이 패는 소리 벌가득 넘치네  
오늘은 온 세상이 나하고만 웃는듯  
가을날의 첫 서정을 벌이 먼저 더치는듯  
오, 내가 선참 더치는듯

봄내 여름내 바친 그 정성  
그 정성을 안다고 저도 안다고  
벌이 떠드네 땅이 말을 하네  
아낌없이 기울인 나의 사랑에  
진정한 사랑으로 화답하는거라네

# 하늘나라 물고기

김 우 경

천어라고 하는것은 하늘나라 물고기를 이르는 말이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하늘나라에는 은하수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는 희귀한 물고기들이 많다고 하였다. 바로 그 물고기들이 천어요, 그 은하수가 7월 7석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곤 한다는 오작교가 있는 강이다.

근간에 우리 나라에 그 천어들이 내려왔다는 희한한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천어란 철갑상어를 두고 하는 말인데 지상에서 사는 이 물고기를 어이하여 하늘나라 물고기라고 할가?

중생대 백악기에 출현한 고대어종인 철갑상어는 1억 3천만년동안 자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있는 말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이다. 중생대의 유물인이 철갑상어는 날이 갈수록 그 마리수가 점점 줄어들어 세계적인 보호어종으로 되었다. 얼마전 카스빠해연안나라 국가수뇌자회의에서도 철갑상어를 보호증식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의제로 토의되었으나 이렇다할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탁상공론으로 끝나고말았다고 한다.

이런 철갑상어들이 우리 나라 룡연군에 있는 룡정원소와 오작도가 있는 그 앞바다에서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떼를 지어 헤엄쳐다니고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룡정원소는 작가 강경애의 장편소설 《인간문제》에 나오는 눈물이 고여 생겨났다는 전설의 그 원소요, 오작도가 있는 그 어름에는 심청이가 공양미 3백석을 위해 제물이 되어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림당수가 있다. 조상들의 피눈물이 어려있는 이 고장에 오늘은 세계적인 귀물인 철갑상어들이 무리지어 다니고있으니 참으로 꿈같은 일이요, 그야말로 기적이다. 더우기 견우직녀전설에 나오는 은하수의 오작교와 신통히도 이름이 똑같은 오작도라는 섬이 있는 바다에서 헤엄쳐다니는 철갑상어떼를 보면 정말로 하늘나라 물고기가 아닐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아니, 정말 하늘나라 물고기인지도 모른다. 항간에서 전해지는 철갑상어에 대한 전설은 그것을 더욱더 사실로 확신시켜주고있으니 우리 그 이야기의 한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보기로 하자.

## 대동강에 올라온 철갑상어

선군시대 기적의 창조자들의 앞장에는 인민군군

인들이 서있다. 우리 나라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아니, 세계적으로도 아직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철갑상어의 바다양어를 실현하여 양어업의 최첨단을 돌파한 놀라운 기적의 창조자도 인민군군인들이다. 철갑상어바다양어를 실현하는데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한 조선인민군의 어느 군부대 지휘관인 방철균은 양어전문가도 아니요, 더우기 그 부문에 각별히 조예가 깊은 사람도 아니였다. 한생 군복을 입고 총대와 함께 살아온 그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한목숨 바쳐서라도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남달리 이악한 사람이다. 이번에도 그는 군부대에 내려온 한 장령으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갑상어양어문제에 대하여 몹시 마음쓰고계신다는것을 알고 제스스로 자진하여 말아나선것이다.

그 장령의 말에 의하면 언젠가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나라 대통령이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였는데 거기에 철갑상어료리와 함께 까비아라고 하는 희귀한 철갑상어알것도 올랐다고 한다. 대통령은 그이께 연회상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철갑상어료리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였다.

우리 장군님을 무한히 존경하는 대통령은 까비아를 그이앞에 가까이 놓아드리면서 철갑상어알것의 맛과 효능에 대해 거의 환상적으로 설명해드리였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무리 돈많은 대부호들도 까비아만은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는것이였다.

철갑상어료리들을 주의깊게 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신 장군님께서는 문득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시였다.

주체67(1978)년 5월말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시 락랑구역 벽지도리농장원들이 잡은 철갑상어 한쌍을 수령님께 올리신적이 있으시였다.

그 철갑상어들은 얼마나 큰지 송아지만 하였다. 측정해보니 수컷의 몸길이는 295cm나 되고 무게는 176kg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철갑상어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였다.

《대단히 크구만. 대동강에서 이런 큰 철갑상어를 잡은것은 참 희한한 일이요. 기록에 의하면 19세기말에만 하여도 대동강과 압록강에 해마다 5~6월이면 알쫂이를 위해 철갑상어들이 자주 올라왔다고 하오. 그후엔 드물게 올라오곤 하였는

데 이렇게 큰 철갑상어가 올라온건 처음이요. 이것은 대동강의 자연환경이 오염되지 않았고 수질이 매우 좋다는것을 말해주는거요. 이 철갑상어들을 대학에 보내주어 연구하게 하시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즉시 그 철갑상어들을 박제품으로 만들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에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그날 밤 수령님께서서는 장군님과 함께 금수산의 사당정원길을 걸으시면서 철갑상어에 대해 또 말씀하시었다.

《철갑상어는 참 귀한 물고기요. 까스삐해의 유명한 특산물인 철갑상어알젖은 세계3대진미의 하나요. 그래서 그것을 〈검은금〉이라고도 하고 〈흑진주〉라고도 하오. 그런 철갑상어를 인공적으로 길러 우리 인민들이 다 먹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소.》

수령님께서서는 멀리 은하수가 비껴간 밤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

장군님의 눈앞엔 그날의 수령님모습이 자꾸만 떠오르시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싶어하시는 수령님께서 그날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당시 철갑상어에 대한 소문은 온 나라에 파다하게 퍼져 사람들속에서는 별의별 말들이 다 돌았다. 로인들은 나라에 좋은 일이 생길 길할 조짐이라고 기뻐하면서 그 철갑상어는 분명 하늘나라 은하수에서 내려온 천어가 아니면 서해통왕이 우리 수령님께 보낸 통어일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었다. 그때 항간에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만경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벽지도리농장원들이 모내기를 끝낸 기쁨을 안고 강가에서 야유회를 즐기고있을 때였다고 한다. 정오가 가까와 올무렵 그들은 물결을 거슬러 기운차게 올라가는 뽀트만 한 시커먼 물고기 두마리를 발견하였다. 난생 처음 보는 물고기였다. 중년의 사나이가 젊은이들을 휘동질하여 강물로 뛰어들어가 그 물고기를 잡았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겨우 기슭으로 끌어올렸을 때였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 검은구름이 모여들더니 천둥이 울고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나이가 제일 많은 좌상로인이 얼굴에 노기를 띠고 젊은이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고현놈들! 하늘이 무섭지 않은고? 물고기가 철갑을 두른것을 보니 범상치 않은즉 감히 무엄하게 길을 막았으니 하늘이 노하지 않을수 있는고? 대동강을 거슬러올라가는것을 보니 온 세상 사람

들이 다 찾아가는 만경대와 금수산의사당으로 향한 걸음이 분명한데 네 녀석들이 불손한짓을 했으니 어찌 하늘이 천벌을 내리지 않겠는고?》

서슬푸른 로인의 기상에 기가 질린 젊은이들은 모두 자라목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었다.

한 젊은이가 겨우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린 그런줄 모르고 너무 희한해서 이 물고기를 잡아 수령님께 올리려고 했습니다.》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젊은이의 말이 끝나자 억수로 퍼붓던 창대같은 비가 칼로 자른듯 순간에 똑 멎더니 구름이 흩어지고 창공에선 눈부신 해빛이 쏟아져내리는것이였다.

로인의 말대로 철갑상어는 정말 범상한 고기가 아닌것이 틀림없었다.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저저마다 신기한 물고기를 보려고 **김일성**종합대학 자연박물관과 김형직사범대학으로 찾아갔다.

그때 일을 떠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뜻대로 이런 철갑상어를 먹일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시었다.

장령에게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방철균은 자신이 스스로 이 어려운 과제를 맡아 수행하리라 굳게 마음다지었다.

##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철갑상어

세상만사는 원한다고 하여 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땀을 바치고 피를 바쳐야 하며 때로는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야 한다. 방철균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면 언제나 이런 각오를 안고 달려붙었다.

철갑상어를 양어할 결심을 품고 나섰을 때에도 사실 그에게는 이런 각오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철갑상어에 대한 책 한권을 보려고 여러날을 바치기도 하였으며 철갑상어를 얼마간 안다는 양어기술자 한사람을 만나려고 열번도 넘게 찾아가기도 하였다.

바로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철갑상어양어에 대한 수많은 과학기술도서들과 자료들을 보내주시었다. 그는 그 도서와 자료들을 밤새워 탐독하며 자자구구 새겨나갔다.

철갑상어에 대한 지식을 얼마간 쌓게 된 그는 종어확보작전을 폭넓게 펴나갔다.

국내에서의 종어확보전투는 처음부터 치열하게 벌어졌으나 한달이 가고 두달이 지나 석달이 되어오도록 그 어디서도 새끼손가락만 한 철갑상어 한마리 찾아내지 못하였다.

할수없이 양어업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몇개 나라에 사람들을 파견하였으나 그들마저 헛물만 커

고 돌아왔다.

부대지휘관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아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토의를 거듭하였으나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이때 서해안의 어느 한 기업소의 수산부업반에서 철갑상어를 잡았다는 희소식이 들어왔다. 철균이 너무 기뻐 그 즉시 달려가보니 철갑상어가 4마리인데 그중 한마리는 이미 죽고 두마리의 암컷과 수컷 한마리가 살아서 물통안에서 푸들쩍거리고있었다. 그 철갑상어들은 종어로써 그리 원만한것은 못되었으나 그렇다고 타발할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서부지구 어느 산간오지에는 물원천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은 양어장이 있었다. 철균은 이 양어장의 못에 철갑상어를 넣었다. 철균은 양어장의 기술자들과 함께 철갑상어의 상태를 긴장한 눈길로 유심히 살피었다.

처음엔 요란하게 푸들쩍거리며 못속에서 기운차게 헤엄쳐다니던 철갑상어들이 왜서인지 시간이 지나자 숨이 차서 아가미를 푹푹푹푹하며 맥없이 꼬리를 젓는것이였다. 산소도 주입하고 못에 청신한 물도 더 넣어주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철균은 눈앞이 캄캄하였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고개를 수굿하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그는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며칠전 양어장에 왔던 한 일군이 지금 우리 나라에 과학기술교류를 위해 유럽에서 소문난 양어기술자가 왔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해당 기관에 전화로 알아보니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는가. 글썄 그가 방금 여기 양어장을 참관하려고 떠났다는것이였다. 그 양어업자의 이름은 파울인데 철갑상어양어에 대해서도 퍼그나 조예가 깊다고 하였다.

얼마후 양어장에 도착한 파울을 반갑게 맞이한 철균은 그를 철갑상어양어못으로 안내하였다.

파울에게 철갑상어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난 철균은 기대어린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철갑상어를 보는 순간 일순 놀라운 표정을 짓더니 웬일인지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병어리가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그가 칠색송어못에 가서는 연방 탄성을 내지르는것이였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조선이 칠색송어양어에서는 단연 앞장에 섰습니다. 그 비결을 좀 말해줄수 없습니까?》

철균은 어이가 없었다. 자기의 기술은 비밀에 붙이고 남의 기술은 배워달라고 하는 그가 패썹하기 그지없었다. 정말 비위살이 떡함에 넘어질 뻔뻔스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철균은 이 모든것을 꼭 참고 그에게 칠색송어양어에서 얻은 경험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파울은 감동되었는지 앞으로 우리 나라를 진심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철균은 그의 말이 끝이들리지 않았다. 손님을 배려한 그는 자기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나라 기업가에게 기대를 걸었던 자신을 자책하였다.

어느덧 양어장에 어둠이 스며들고 그윽한 골짜기의 고요를 깨뜨리며 숲속에서 폴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하늘가에서 양어장에 희옅스름한 빛이 흘러내렸다. 그 흰빛에 양어못의 수면이 바글바글 끓는것처럼 보였다. 철갑상어들이 겨끔내기로 물위로 주둥이를 내밀고 그 빛을 받아먹으려는듯 찻찻 입을 다시였다. 흔히 산소가 부족할 때 하는 행동이었으나 지금의 거동은 꼭 그런것 같지도 않았다. 이상하여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른해있던 철갑상어들이 갑자기 기운을 되찾았는지 못속에서 첩병거리며 힘차게 헤엄쳐다니는것이였다.

《영?!》

철균은 저도 모르게 놀란 소리를 질렀다.

흰빛의 조화일까? 그는 무심결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엔 은하수가 가로질렀는데 바로 거기서 흰 서기가 쏟아져내리는것이였다. 순간 그의 눈앞엔 대동강으로 올라온 철갑상어를 대학에 보내주신 그날 저녁 금수산의사당정원에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오래도록 바라보셨다는 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왔다. 그때 사람들이 철갑상어를 은하수에서 내려온 천어라고 하였다더니 정말 그 은하수의 정기를 받고 생기를 되찾은것이 아닐가? 점점 더 생기발랄해진 철갑상어들은 힘이 뻗치는지 툭툭 꼬리치며 양어못이 좁다하게 헤엄쳐다니였다.

철균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은 하늘이 낸 위인들이시니 그분들의 뜻을 받들고 하늘이 조화를 부린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갈마들었다. 그렇게밖에 풀수 없는 수수께끼요, 기적이었던것이다. 분명 하늘나라 은하수에서 살던 철갑상어에서 그 빛을 받고 생기를 되찾은것이라는 생각을 좀처럼 버릴수가 없었다.

## 새로 잡은 보금자리

철갑상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성숙기가 되어 인공번식시켜야 할 시기가 되였다.

하지만 철갑상어는 알을 받아내고 수정시키고 새끼고기를 깨우는 모든 공정이 과학기술적으로 여간 까다롭고 복잡하지 않았다. 철균은 열번, 스

무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려운 고비들을 간난신 고하며 힘들게 넘어섰다.

그러던 어느날 철균은 뜻밖에도 유럽에서 보내 온 확스를 받았다. 양어업자 파울이 그들을 초청하는 확스였다.

왜 오라고 초청할까? 철갑상어양어와 관련한 귀중한 경험을 알려주려는것이 아닐까?

철균은 그러지 않아도 다른 문제때문에 그 나라에 가려고 하였는데 초청까지 받았으니 서둘러 준비를 갖추고 대표단과 함께 그 나라로 갔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한 파울은 곧바로 자기가 경영하는 철갑상어양어장으로 안내하였다.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현대적인 양어장의 못들마다에서는 철갑상어새끼들이 무리지어 다니고 있었다.

그것을 부러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철균은 이제야 그가 철갑상어양어기술을 배워주려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파울은 자못 심중한 표정으로 그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나는 얼마전에 당신들이 지금도 철갑상어양어를 계속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랑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을 무한히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당신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네 나라에서는 양어업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잘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이 필요하고 총명한 사람에게도 충고가 필요한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철갑상어양어를 갓 시작한 우리에겐 선행자의 경험이 매우 귀중합니다.》

철균은 그의 말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였다.

《그래서 당신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철갑상어양어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패자의 교훈이 승자의 경험보다 더 값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철균은 의아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양어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철갑상어양어만은 실패하였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시간과 자금을 철갑상어양어에 바쳤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지요. 지금 하고있는 이 철갑상어양어는 계속 적자를 내고있습니다. 손해를 입으면 지혜가 더 생긴다고 하였는데 이 우매한 인간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답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철갑상어양어를 시작할 때 누가 이런 조언을 주었다면 나는 일생 그를 은인으로 고맙게 생각하였을것입니다. 잘못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더없이 총명한 사람

이지만 남의 피해를 보고 자신을 다잡는것도 그에 못지 않게 총명한 사람의 처사이지요.》

철균은 그의 말을 들으며 소스라쳐 놀랐다.

그제서야 그는 파울이 양어장에 왔을 때 철갑상어를 보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어렴풋이 리해가 되었다.

《파울선생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갑상어양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장군님의 뜻입니다.》

《알만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기쁨드리려는 당신들의 마음은 충분히 리해됩니다. 그렇지만 그이께 기쁨드릴 일은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많을텐데요. 조선에서 철갑상어양어는 자연환경으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울의 말에는 그의 진정이 담겨있었다. 허나 그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장군님의 명언의 참뜻을 리해할수는 없을것이였다. 파울에게 한가닥 희망을 품었던 철균은 마음속으로 오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과 힘으로 해내야겠다는 결심을 더 굳게 다지였다. 조국에 돌아온 그들은 모든것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허나 난관은 갈수록 첩첩이였다.

어느 봄날이였다. 양어못의 물온도가 10℃를 넘지 못하는데 하늘에서 차거운 비까지 내렸다.

봄비는 그 누구의 턱밑에서도 굶는다고 하였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썩 사흘 구질구질 그냥 내리였다. 물온도가 4℃로 내려가면 철갑상어는 먹이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새끼고기들이 물위에 떠서 배를 드러냈다. 더러는 넘쳐나는 못물에 떠내려갔다.

철균은 황급히 달려가 떠내려가는 새끼고기를 건져냈다. 새끼고기는 손바닥우에서 조금도 움직이는 기미가 느껴지지 않았다. 죽었던것이였다.

철균은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선 눈물인지 비물인지 모를 물줄기가 줄줄이 흘러내렸다.

불현듯 그의 눈앞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왔다.

《어버이수령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때 병긋하고 번개가 일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뒤이어 짹-짜르릉 하고 우뢰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서둘러 갈라지며 그사이로 별들이 나타났다. 비가 멎고 밤하늘에 은하수가 비졌다. 그 은하수에서 흰 서기가 양어장

으로 쏟아졌다. 철균의 지극한 마음을 하늘이 알아주는지 날이 밝자 태양이 솟아올라 밝은빛을 뿌리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이런 나날속에 그들은 알성속도를 촉진시키는 주사약도 자체로 만들어냈고 알개움틀은 90%이상 높이었다.

어느덧 까만 새끼들은 비육양어못으로 옮겨져 양어못들마다에는 떼지어다니는 철갑상어들이 천마리인지 만마리인지 헤아릴수없이 많았다.

철갑상어들은 날을 따라 무럭무럭 자라 손가락만 해지더니 인차 팔뚝만 해졌다.

드디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점령할수 없었던 철갑상어양어에서 성공한 그들은 이 자랑스러운 성과를 어서빨리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여드리고싶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신듯 어느해 여름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곳 양어장에 찾아오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손으로 길러낸 철갑상어들이 양어못들마다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시면서 만시름이 풀린듯 환히 웃으시었다. 우리의 청춘남녀들의 결혼식상우에 철갑상어를 놓아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던 그날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그이께서는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양어장의 구내길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었다.

한쪽 못에서는 칠색송어들이 물장구를 치며 재롱을 부리는데 다른쪽에서는 철갑상어들이 잠수함처럼 묵직하게 물밑을 헤가르는 장쾌한 모습이 펼쳐졌다.

장군님께서 양어못가에 걸음을 멈추시자 철갑상어들이 었치락뒤치락하며 떼지어 그이앞으로 모여드는 신비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것을 보고 한 일군이 《철갑상어떼가 장군님께로 모여듭니다.》라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철갑상어떼가 나에게로가 아니라 인민들에게로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웃음을 담으시고 계속하여 《정말 대단합니다. 볼수록 멋있습니다. 저 철갑상어들이 인민들에게로 가 누구나다 먹게 하려면 바다양어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철갑상어가 떼를 지어 바다로 나가는 장쾌한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시는듯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시를 읊듯 걱정엔 넘쳐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철갑상어는 바다로 나간다!》

감심어린 눈길로 그이를 우러르는 그들의 얼굴

엔 놀라운 빛이 질게 어려있었다. 방금 철갑상어양어의 첫걸음을 떤 우리 나라에서 바다양어를 할데 대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시는 그이의 담력에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겠는가.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철갑상어는 바다와 강을 오르내리면서 사는 물고기인것만큼 과학기술적으로 잘 하기만 하면 바다양어를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다양어를 할수 있는 좋은 자리부터 먼저 잡아야 합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들은 시급히 바다양어에 좋은 적지를 찾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동해안과 서해안 두개 조로 나누어 전국 방방곡곡을 다 편답하면서 맞춤형 자리를 찾기 위해 살살이 조사하였다. 그들은 발이 닳도록 여러달동안 다녔으나 바다와 가까우면서도 물량이 많고 수질이 좋은 그런 고장은 어디에서도 좀처럼 찾아낼수가 없었다.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철갑상어 바다양어 준비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럼 아직 바다양어를 위한 적지를 찾지 못했습니다니까?》

《그렇습니다. 동서해안을 다 훑어보았는데 적합한 자리가 없습니다.》

《적합한 자리가 없다?》

그이께서는 일군의 말을 되뇌이시며 사색에 잠기시었다.

《장군님,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한번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꼭 찾아내겠습니다.》

《하루가 새롭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철갑상어를 먹게 하려는것은 수령님의 뜻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수령님을 모시고 황해남도 룡연군에 갔던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룡정원소의 물이 매우 맑고 깨끗하고 물량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서는 거기서 칠색송어를 기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룡정원소에서 바다가 가까우니 오작도가 있는 그 바다에서 철갑상어를 양어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방철균은 시급히 부대지휘관들과 마주앉아 대책을 토의하였다.

한것은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던것이였다. 물량도 많고 자연환경과 지리적위치도 좋은데 수질이 철갑상어양어에 그리 적합치 않아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섰던 곳이였다.

《룡정원소의 수질을 다시한번 조사해봅시다.》

그들은 혹시 자기들이 잘못 조사하지 않았을가



하는 의혹을 안고 통정원소로 달려갔다.

헌데 다시 조사해보니 결과는 여전히 전과 다름 없었다.

물이 깨끗하고 물온도도 비교적 안정되어있고 투명도도 높았으나 산소함량이 낮은 것이었다.

허지만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것은 전국적인 조사자료들과 대비해보니 여기 통정원소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는 것이었다. 산소함량이 부족한것은 물을 공기로출을 시켜 보충할수 있었다.

신심을 얻은 철균은 자기의 단호한 결심을 말하였다.

《통정원소에서 철갑상어를 기릅시다.》

방철균은 양어장의 일꾼들과 함께 철갑상어 몇마리를 가져다가 시험적으로 통정원소의 못에 넣었다. 그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철갑상어의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넣은지 반시간이나 되었을가, 철갑상어들의 움직임이 점점 떠져더니 왜서인지 아무리 먹이를 주어도 먹지 않았다.

조금 더 지나니 한마리, 두마리 물위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할가요?》

한 일꾼이 철균에게 물었다.  
입을 꼭 다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던 철균은 결심을 내린듯 단호하게 말하였다.

《스무마리를 더 넣읍시다.》

《예?! 더 넣는단 말입니까? 저것 보십시오.》

물위에 뜬 철갑상어 한마리가 희끗 뒤번져져 배를 드러낸것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런 경우 물고기는 얼마 안되어 죽고마는 것이다.

《빨리 철갑상어를 더 넣으시오.》

그의 목소리가 다시한번 구렁처럼 크게 울리었다. 그것은 결집에 한 말이 아니었다. 통정원소에서 철갑상어를 기르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확고한 립장에서 나온 말이었다. 스무마리의 철갑상어를 양어못에 더 넣었다.

10분, 20분... 한시간이 지났다.

헌데 웬일인지 그 철갑상어들은 처음 넣은것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도 별로 크게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행동이 좀 굼떠진 것뿐이었다.

《서른마리를 더 넣으시오.》

철균의 명령에 따라 세번째로 철갑상어를 더 넣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그 철갑상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듯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되도록 좋아라 기운차게 헤엄쳐다니는 것이었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기운을 잃고 죽어가던 처음

에 넣은 그 철갑상어들까지 모두 되살아난 것이었다. 도무지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그들은 다시 수질을 조사해보았다. 했더니 놀랍게도 전번 조사와는 판판 다른 수치들이 나왔다. 산소함량은 물을 공기로출시켜 달라졌다 하더라도 PH와 물온도 그리고 경도와 알카리도 등 모든것이 철갑상어양어에 꼭 맞는 아주 이상적인 수치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전번 조사를 잘못하였단 말인가? 아니면 하늘땅이 조화를 부려 그사이 수질을 변화시킨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문은 풀길이 없었다.

아무튼 통정원소에 철갑상어를 적응시키는데 성공한 그들은 신심에 넘쳐 장군님께서 잡아주신 명당자리에 양어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였다.

그리고 오작도가 있는 바다기슭에는 새로 양어사업소를 꾸리고 철갑상어와 칠색송어 등 여러가지 고급어족들을 본격적으로 양어할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었다.

##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다

통정원소양어장에서 자란 철갑상어를 바다에서 양어하기 위해 통연바다가양어사업소에 가져가는 날 철균의 마음은 몹시 조마조마하였다.

지금까지 민물에서 자란 철갑상어들이 바다에서 꽤 서식할수 있을가?

양어업이 발전한 나라에서도 철갑상어의 바다양어는 염도가 15%이하에서 그것도 소규모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염도가 조금만 넘어도 철갑상어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는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정사실이다.

헌데 통연앞바다의 염도는 그이상이다.

철균은 양어사업소일꾼들과 함께 철갑상어를 염도가 낮은 못에서부터 점차 높은 못으로 조심스럽게 옮겨가면서 바다물에 익숙되도록 하였다. 염도가 15%되는 못에 넣을 때까지 별로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염도가 그이상 되는 바다물에 넣는 날 그들은 모두 마음이 한줄만 해졌다. 어떻게 될것인가?

염도가 16%되는 바다물못에 철갑상어를 넣고 모두 긴장하여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철갑상어는 여전히 활기있게 헤엄쳐다니었다. 염도를 점점 높여 30%가 넘는 바다물에 넣었을 때도 철갑상어들은 용케도 견디어냈다.

《성공이다!》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울려나왔다.

우리의 물, 우리의 토양, 우리의 기온, 우리의 환경에서 태어난 철갑상어들은 염도가 높은 우리의 바다에서 끄떡없었다.

세계적으로 철갑상어의 바다양어가 불가능한 것으로 공인되고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만은 그것이 실현되었으니 그들은 눈앞의 현실이 꿈만 같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새로 태어난 철갑상어는 범상한 물고기가 아니었다. 철갑상어를 양어하면서 너무도 신기한 일이 자주 일어나 저도 모르게 모든 것이 신비롭게 생각되고 신성하게 여겨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작도가 있는 여기 통연앞 바다에서 철갑상어를 양어하라고 하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오작교가 있는 은하수와 오작도가 있는 여기 바다와는 어떤 깊은 인연이 있는것이 틀림없었다. 병풍속의 닭이 화를 치는것과 같은 기적을 창조한 기쁨을 안고 흥분에 휩싸여있던 어느날 그들에겐 또 뜻밖의 일이 생기었다.

그렇게도 광광 솟구치던 룡정원소의 물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한것이였다.

부대군인들과 양어장의 종업원들이 모두 원소로 달려갔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였다. 물량이 왜 줄어드는지 누구도 자연의 속내를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철군은 속이 타 낮에 밤을 이어 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고 원소를 지켰다. 원소물이 마르면 바다양어는 물론 지금까지 간고하게 이룩한 모든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마는것이였다.

억이 막히고 가슴이 부글거려 피우지 않던 담배까지 입에 물고 멍하니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보석을 뿌린듯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엔 은하수가 바다쪽으로 쭉 뻗어간것이 눈에 안겨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철군은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은하수에서 또 흰빛이 룡정원소와 오작도가 있는 앞바다에 쏟아져내리는것이였다.

《?!》

그러더니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이슬비가 내리었다. 이슬비를 맞은 얼굴엔 땀방울인양 구슬같은 물방울들이 송글송글 맺히었다.

착각일까? 아니면 환각일까?

주위를 둘러보니 모여선 사람들도 이슬비에 축축히 젖은 얼굴을 문지르며 웅성거리었다.

이때 갑자기 원소쪽에서 《평!—》하는 소리가 밤공기를 흔들었다. 하더니 《물뚝이 터졌다!—》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로 달려간 사람들은 물이 다시 솟구치는 것을 보자 환성을 지르며 침병침병 뛰어들어가 저

저마다 두손으로 물을 떠서 하늘높이 뿌리었다.

다시 솟아오른 원소의 물은 전보다 량도 훨씬 많았고 그지없이 맑고 깨끗할뿐아니라 모든 수질조건이 철갑상어양어에 더없이 알맞춤하였다.

하늘의 조화냐? 땅의 조화냐? 신비경에 사로잡힌 그들은 어리둥절하여 말없이 서로 마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이로부터 며칠후인 2010년 9월 28일 민족사에 특기할 정치적대경사가 생기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는데서 더욱더 휘황찬란한 미래가 펼쳐진 것이였다.

통연땅에 일어난 조화를 두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이 내고 땅이 받아들여올린 백두산위인들께서 이룩해나가는 혁명위업에 대한 하늘의 지지이고 땅의 칭송이라고 하였다.

그해 초겨울 어느날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정원소의 물길을 따라 가로세로 일매지게 뻗어간 산뜻하면서도 정갈하게 꾸려진 양어못과 철갑상어바다양어장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현대적인 양어장을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하고 수많은 고급어족들을 기르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옛날 심청이에 대한 슬픈 전설이 전해지던 여기 바다가 오늘은 행복의 노를 저어가는 희망의 바다, 행복의 바다로 전변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정겨운 시선으로 철갑상어떼를 보고 또 보시던 장군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이젠 우리 인민들에게 철갑상어를 먹이고싶어 하신 수령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여기에 와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이의 음성은 퍼그나 갈리시었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철군은 마음속으로 맹세다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의 운하와 그 주변의 합장강과 대동강에도 철갑상어떼가 흐르게 하리라. 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창문을 열면 언제나 철갑상어떼를 보며 기뻐하시게 하리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후 룡정양어장과 통연바다가양어사업소에 대한 소문은 우리 나라 지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까지 자자하게 퍼졌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 나라길이 시작된 곳에서

류 정 실

김일성광장

여기서  
천만갈래 길만이 시작되었던가  
행복넘친 내 삶의 길도 시작된  
생각도 깊은 나라길시작점

여기에 서니 다 보여오는구나  
봄아지랑이 피어나는 푸른 언덕  
그 언덕아래 들길에 무수히 찍힌  
나의 추억의 자욱자욱  
다복다복 기쁨에 찬 나의 발자욱

고추잠자리 쫓아 시름없이 뛰어놀던  
동요시절의 고향시내가  
배움의 푸른 꿈 펼치던 정든 교정길  
내 미처 몰랐구나  
이 세상 부럼없는 나의 행복의 길도 모두  
여기에 잇닿아있었음을

내 포근한 단잠에 들어 행복을 꿈꿀 때  
이 나라의 첫 새벽문을 여시고  
이슬젖은 정원길을 나서신 장군님의 전선길  
그 길은 몇천몇만리였더나

아, 생각도 뜨거워라  
나라길시작점에서 시작된 길은 끝이 있어도  
슬하에 품어안으신 천만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 장군님 가시는 전선길엔  
그 끝이 없거니

우리 인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살게 하시려는  
오직 그 하나의 소원을 안으시고  
희천의 물길굴에 옮기신 걸음  
이 나라 복변의 용해장으로 이어놓으시며  
낮이나 밤이나 이어가시는 사랑의 길 현신의 길

아, 나라길시작점  
여기서 천만갈래 뻗어간 길은  
그대로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이였구나  
이 나라의 모든 길은  
조국의 무궁번영과 약속되어있는 길  
우리의 창창한 미래가 담보되어있는 길  
너는 이 땅에 천만복을 불러오는 행복의 시작점  
이어라

언젠가는 유럽에서 온 한 대표단이 이곳을 참관  
하였는데 그중에는 파울도 있었다.

그는 통정양어장과 통연바다가양어사업소를 돌  
아보면서 너무도 놀라와 연방 탄성을 내질렀다.

철균이를 보자 파울은 힘껏 포옹하고 농을줄을  
몰랐다.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불가능을 모르  
는 철의 인간들입니다. 우리 유럽에는 이탈리아사  
람의 용기는 노여움의 발작이고 도이쉴란드사람의  
용기는 한순간의 취미이고 에스빠냐사람의 용기는  
자존심의 표현이란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용기  
는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우리의 용기와 지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신것입니다.》

파울은 너무 격동되어서인지 말을 더듬었다.

《철갑상어종어는 어디서 가져온것입니까? 처음  
내가 왔을 때 본 그 철갑상어는 아니지요?》

《아니, 그 철갑상어가 맞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는 믿어지지 않는듯 의아한 눈길로 철균의 얼

굴을 찬찬히 보았다.

철균은 그에게 철갑상어양어를 위해 베풀어주신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  
하여 종어를 구할 때 있었던 일이며 막혔던 통정  
원소의 물줄기가 다시 터진 이야기 등 그동안 있  
었던 일을 죄다 말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파울은 감동어린 목소  
리로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하늘의 조화, 땅의 조  
화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이 철갑상어들은 로씨야종도, 유럽종도  
아닌 조선철갑상어입니다. 이 철갑상어를 하늘나  
라 물고기라고 하는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은 하느님이 분명  
하십니다. 당신들은 그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행  
운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총을 받은 행복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철갑상어는 날마다 흥미있는 전설을 낳  
으며 무리를 지어 바다로, 바다로 나가고있다.



# 생의 뿌리

리 명 선

△때: 현대

△곳: 신사동혁명전적지

△나오는 사람들

경애: 신사동혁명전적지관리소 강사

현일: 경애의 남편 (전적지관리소 보존관리원)

영희: 경애의 시어머니

옥향: 경애의 딸

비서: 전적지관리소 초급당비서

답사생 1, 2

△국부조명속에 나무를 심는 경애와 옥향.

경애: 옥향아, 이진 무슨 나문지 뿌리가 약해보이는구나. 이 바람세찬 대흥단땅에 꽤 뿌리를 내릴수 있겠는지 모르겠구나.

옥향: 정향꽃나무예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항상 꽃향기속에 계시라고 제가 특별히 구해온 거예요.

경애: 좋기는 한데 이왕이면 진달래나 철쭉을 떠다심을걸 그러는구나. 보기도 좋고 뜻도 깊고 또 여기 땅에 뿌리도 잘 내리는...

옥향: 아이참, 어머니두! 여기야 어데 가나 흔한게 진달래, 철쭉꽃인데요 뭐. 좀 특색있는걸 심어야 우리 집이 살아나요.

경애: 그래? 그런데 날도 풀리지 않았는데 일없겠느냐?

옥향: 일없지 않구요. 오빠도 전전해 이맘때 군대에 나가면서 이 이깎나무를 심지 않았어요? 보라요, 얼마나 잘 자라나...

경애: 거야 뿌리가 든든하니까 살았지만 이 나무야 어디...

옥향: 걱정마세요. 문제는 정성이에요. 어머니, 제가 강사학교에 갔다올 때까지 잘 돌봐주세요.

경애: (머리를 끄덕이며) 응.

옥향: 음, 그런데 오빠 (나무를 가리키며) 왜 이

렇게 흔하디흔한 이깎나무를 심었을까? 도대체 정서가 있는 사람같지 않아.

경애: 정서? 여기야 혁명전적지가 아니니?

옥향: 어머니두 참, 전적지에도 꽃향기가 풍기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거야 있어요?

경애: 물론 꽃향기도 좋지. 하지만 여긴 꽃향기보다 냇이 살아있어야 해. 투사들의 냇이 말이다.

옥향: 다 알아요. 저두 이제 앞으로 강사가 된다는걸 잊었어요?

경애: 글썄, 욕망은 큰데 이 꽃나무처럼 애리애리한게 걱정스럽기만 하구나.

옥향: 됐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물을 길어올게요. (나간다.)

경애: 이깎나무와 꽃나무라... 뿌리가 약한 이 꽃나무가 과연 살아날수 있을까? 저 애도 이 꽃나무처럼 뿌리가 약하면 안되겠는데...

△효과음악이 울리면서 제목이 새겨진다.

## 생의 뿌리

△무대: 신사동 갈림길. 이깎나무가 여러대 서있고 그밑에 아담한 휴식터가 있으며 혁명전적지를 가리키는 표말이 있다. 배경에는 우중충한 산발들이 보인다.

△답사생 1, 2 나온다.

답사생1: 광림동무, 이자 그 강사동지가 강의를 기막히게 잘하지?

답사생2: 아, 한생을 강사로 일해온분인데 더 말할게 있어?

△경애 나오다가 듣는다.

답사생1: 하긴 우리가 중학교시절에 왔을 때도 그 어머니한테서 강의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야 더 말할게 있어.

답사생2: 그렇긴 해. 그런데 말이야, 나이를 먹을수록 웅변술은 늘었는데 어쩐지 좀...

답사생1: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답사생2: 생각 좀 해보라구. 강사들에게 항일의 군복을 입힌건 그들을 보면서 항일의 녀투사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지녔던 정신을 따라배우라는게 아니겠나.

답사생1: 그거야 물론이지.

답사생2: 그런데 저렇게 나이많은 어머니가 군복을 입고 강의를 하니 어쩐지... 항일유격대원들 속에 저렇게 나이많은 어머니가 있었을가 하는 생각이 드는게...

답사생1: 광림동무, 무슨 소릴 하는거요?! 항일의 그 나날 녀투사들속에는 혁명을 위해 자기 가정의 모든것을 다 바친, 남편도 부모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다 바치면서도 모진 고난과 시련을 꿋꿋이 이겨낸 녀투사들이 많았어. 철구어머니만 봐도 그렇지.

답사생2: ?!...

답사생1: 그리고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는데선 외모나 나이가 기본이 아니라 녀이 기본이란 말이요. 그 강사어머니만 봐도 그렇지 않아. 저렇게 머리에 흰서리가 내릴 때까지 이 외진 산골에서 강사복을 입고 혁명전적지를 지켜오고있지 않나. 우린 그들의 외모를 보기 전에 그들이 심장속에 어떤 정신을, 어떤 녀을 지니고있는가를 보아야 해. 눈으로가 아니라 이 심장으로 말이야.

답사생2: 내 생각이 짧았네. 내가 그만...

△밖에서 《모옛!》소리가 울리자 답사생들 뛰어나간다.

△효과음학과 함께 경애 생각에 잠겨 거닌다.

△비서 등장.

비서: 아니, 거 경애동무 아니요?

경애: 비서동지.

비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오? 혹시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니요?

경애: 아닙니다. 그저 좀... 저 비서동지, 제 나이가 이젠...

비서: 아니, 이제 겨우 오십을 넘겼는데 벌써 나이가 타령이요?

경애: 솔직히 이젠 걷기도 힘들고 말도 잘 안됩니다. 나이는 속일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 경애동무, 대체 무슨 소릴 하자는거요?

경애: 이젠 뒤에서 새로 들어오는 강사들이나 키우면서...

비서: 그만하오. 동무가 그렇게 나오다니. 정말 섭섭하구만, 섭섭해. 우리 관리소에서 동무만

큼 실감있게 강의를 할 사람이 누가 있소. 과장동무도 나이가 어린데 잘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로장이라는게 벌써 뒤선으로 물러선다는게 말이 되요?

경애: 비서동지...

비서: 음, 난 지금도 고난의 행군때의 일이 잊혀지질 않소. 하루에 감자 몇알로 끼니를 에우고 맹물로 허기진 배를 달래며 강의를 하고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투사들이 맹물도 달게 여기며 혁명을 했다는데 실지 체험해보니 더욱 가슴뜨겁게 느껴진다고, 우린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어하는데 투사들은 하루종일 전투를 하고 행군을 하자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고 하면서 내 가슴을 크게 울려주던 동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오.

경애: 그만하십시오. 이젠 다 지나간 일인데...

비서: 됐소. 길게 말할게 없소. 다시 그런 말을 하면 용서치 않겠소, 응? (나간다.)

경애: 아니 저, 비서동지.

△배낭을 멘 현일 등장.

현일: 여보!

경애: 당신이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현일: 오, 이깎나무씨요. (배낭을 벗는다.)

경애: (받아놓으며)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구했어요?

현일: 당신 명령인데 어디다 대고... 그런데 이걸 심을 발이 문제구만.

경애: 우리 터발이 있지 않아요.

현일: (놀라며) 터발? 그건 안되오.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발이라구...

경애: 여보, 물론 어머니가 섭섭해하실줄은 알아요.

현일: 알면서도 그러오?

경애: 여보, 내 마음이야 당신이 잘 알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현일: 글썄 그러니 이 전적지땅에 새땅을 일굴수도 없구... 차라리 이 이깎씨를 조림사업소에 넘겨주는게 어땠소?

경애: 물론 그렇게 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손으로 이 땅에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싶어서 그래요. 여보, 우리 어머니를 리해시키자요. 예? 여보!

현일: 예라, 내 또 당신 이악앞에 손을 든다.

경애: 아니, 그게 정말이예요?

현일: 정말 아니면 내가 언제 당신을 이긴적이 있소? 내가 당신에게 쥐여산다는거야 온 신사동이다 아는 사실인데.

경애: 뭐예요? (현일의 어깨를 가볍게 때리며) 에이, 심술쟁이...

현일: 아, 아프다. 아니, 내가 잘못 말했소? 내가 제대되어 해산에 배치받았지만 당신따라 이 신사동에 와서 보존관리원을 하는것도 사실이고 또 당신이 집안일때문에 강사사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우리 어머니까지 모셔온것도 죄다 사실이 아니요.

경애: 여보, 전 그래서 어머니나 당신 보기가 정말 미안해요.

현일: 미안하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신따라 여기로 온것도 당신 얼굴이 고와서가 아니라 선렬들의 피가 스민 이 땅에서 그들의 고귀한 넋을 후대들의 심장속에 심어주는 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당신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매혹되어서였지. 그런데 나이를 먹었다고 달라질것 같소?

경애: (현일의 품에 안기며) 옥향이 아버지, 고마워요. 전 그저 당신의 그 마음이면 더 바랄것이 없어요.

현일: 여보, 힘들지?

경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젠 젊은 동무들이나 키우면서...

현일: (놀라며) 뭐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영?

경애: 아... 아니, 그저 해보는 소리예요.

현일: 아무리 해보는 소리라고 해도 다시는 그런 소릴 하지 마오. 왜냐하면 그건 나나 어머니에 대한 모욕이기때문이에요.

경애: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언제까지나 이 일을 할수야 없지 않아요. 어찌겠나요. 나이를 먹으면 후대들에게 자리를 내여주는 법인데... 또 답사생들앞에 나서는것도 나보다는 젊은 처녀강사들이 더 낫지요 뭐. 그런데 처녀강사들은 때가 되면 남편따라 자꾸만 날아가니 그게 걱정이예요.

현일: 아 그거야 바늘따라 실가는데 어쩔수 없는 일이지.

경애: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여보, 난 그래서 우리 옥향이가 이제 강사학교를 졸업하면 여기 신사동혁명전적지 강사로 데려오자는거예요.

현일: 하긴 그 애가 이젠 졸업할 때가 되었지. 좋소, 나도 당신의 생각에 반대없소. 그런데 그 애가 오자고 할가?

경애: 오지 않구요, 누구의 딸이라구. 자, 어서가자요. (배낭을 멘다.)

현일: 아, 됐소. 이리 주오. (배낭을 빼앗아 멘다.) 자, 어서 가지요.

△그들이 나가면서 중간막이 내리고 강사복을 입은 옥향 등장.

옥향: 이젠 다 왔구나. (가방을 내려놓고 땀을 씻는다.) 히야, 여기가 내 고향 신사동이 맞긴 맞

는가? 그새 이렇게 변하다니. 이렇게 꾸리느라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내가 심은 꽃나무는 얼마나 자랐을까? 빨리 가봐야지.

△ 나가면서 중간막이 오른다.

△ 무대: 경애의 집, 오른쪽에 토방이 달린 집이 있고 왼쪽마당엔 이깔나무 한그루 서있고 그 옆에 작은 울바자가 있으며 배경에는 숲이 보인다.

△ 토방에 앉은 영희, 현일과 경애 등장.

경애: 아니 어머니, 왜 밖에 나와있어요?

영희: 오, 터밭에 심을 마늘종자를 고르느라고...

경애: (현일과 마주보며) 예? 마...늘종자요?

△ 까치소리 울린다.

영희: 이거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올려나? 이제라도 우리 손녀가 불쑥 나타나면 좋으련만... 그 앤 왜 편지 한장 없는지 원...

현일: 어머니, 올 때가 되면 어련히 오지 않으리요. 자꾸 기다리면 더 안 온다고 했어요.

영희: 글썽 어느때는 모르겠는데 이젠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 하루가 열흘맞잡이로구나.

경애: (현일의 팔을 치며) 여보, 어서 좀...

현일: (영희의 눈치를 보며) 당신이 말하오.

경애: 야— 당신이 먼저...

현일: 먼저 하라는데...

영희: 아니, 무슨 일인데 싱갱이질이나?

현일: 아... 아무것도 아니예요.

영희: 내게 무슨 할말이 있느냐?

현일: 저... (경애에게 손짓하자 못하겠다고 한다.)

영희: 아이휴, 무슨 사내가 그 모양이나? 할 소리가 있으면 툭 털어놓고 할것이지 우물쭈물하면서... 쫄쫄쫄.

현일: 옳아요. 어머니, 말하자요. 까짓거, 아 이 까짓 터밭 하나가 뭐라구 우물쭈물하겠어요. 여보, 그렇지 않소?

경애: (현일에게 눈을 흘기며) 아이참,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영희: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현일: 어머니, 다르게 아니고 저 이깔씨를 터밭에 심자는거예요.

영희: 뭐, 뭐? 이깔씨를? 너 지금 제정신이나?

현일: 저 어머니, 그런게 아니고...

영희: 그런게 아니고 뭐구 절대로 안된다. 이 터밭에다 이깔나무를 심으면 그래 마늘은 어디다 심구 남새는 어디다 심어먹는단 말이나?

경애: 저 어머니, 남새는 포테에 사는 친정집에서 제가 구해오겠으니...

영희: 그만해라. 내가 이 집에 없다면 몰라도 시

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사돈집에 손을 내밀어? 그것도 말이라고 하느냐?

경애: 어머니,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가 어떤것인지 어머니도 잘 아시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푸르려 설렘여야 할 나무들이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제때에 새 나무모들을 심어야...

영희: 아, 그래서 조림사업소가 있는게 아니냐? 너희들은 제 맡은 일이나 착실히 하면 되는거지.

현일: 어머니, 우리야 이 혁명전적지의 주인들이 아니예요. 주인이 네 일, 내 일 가려서야 되겠어요? 어머니도 우리가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되기를 바라서 우릴 돕자고 여기 온게 아니예요.

영희: (생각에 잠겼다가) 예구, 나두 모르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무나. 대신 반찬 투정질할 생각은 아예 말거라.

현일: 예, 그건 걱정마세요.

경애: 야! 어머니, 정말 고마와요.

영희: 내 너한텐 두손 바짝 들었다.

현일: 어머니, 이젠 아직 약파예요. 하하하.

경애: (현일을 치며) 여보.

영희: 하긴 네가 쥐여산다는 소리도 영 엉터리는 아니구나.

현일: 예, 그건 죄다 사실이니깐요.

경애: 어마나! (이깔씨가 든 배낭을 들고 터발으로 들어간다.)

현일: 여보, 같이 하가요. (집뒤로 돌아간다.)  
△ 옥향 등장.

옥향: 할머니!

영희: 아니, 이게 누구냐? 옥향아, (안아주며) 내 손녀야.

경애: (터발에서 나오며) 옥향아!

옥향: 어머니!(달려가 안긴다.)

현일: (집뒤에서 나오며) 어디 보자, 내 딸아!

옥향: (거수경례하며) 아버지, 강사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일: (안아주며) 장하다, 장해!

경애: 그래 그동안 앓지는 않았니?

옥향: 앓긴요, 이렇게 건강한데.

영희: 그런데 왜 편지 한장 안했냐?

옥향: 할머니두 참, 항일유격대원들은 뭐 집에 편지를 하며 싸웠나요.

영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할미랑 아버지, 어머니는 속이 까매서 기다리는데.

옥향: (경애에게로 다가서며) 정말 그랬나?

경애: 그럼.

옥향: 야, 난 내 의지를 시험해보느라 그랬어요. 호호호. 어머니, 그렇게 기다리던 딸이 왔는데 특식을 해야지요?

경애: 암, 여부가 있지.

영희: 오늘은 토끼든 닭이든 뭘 좀 잡아야겠다.

옥향: 야, 우리 할머니가 제일이야. (안고돈다.)

현일: 헛헛참, 언제면 철이 들겠는지. 원...

옥향: (마당을 살피다가) 할머니, 그런데 왜 꽃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영희: 오, 죽었길래 뽑아버렸다.

옥향: 예? 죽었다구요? 어머니, 어떻게 된거예요? 잘 가꾸어주겠다고 하구선...

경애: 글썽 아침저녁 물도 주고 애를 썼는데 어디 살아나야 말이지. 아무래도 여기 신사동땅에 뿌리내릴 나무가 못 되는가 보더구나.

옥향: 뭐예요? 에이, 속상해.

현일: 거 오빠처럼 뿌리가 든든한 이깔나무를 심을게지 뿌리가 약한 꽃나무를 떠다 심어서 살게 뭐냐?

영희: 됐다. 이제라도 이깔나무를 심으면 되는거지 뭘 그리 속상해서 그러느냐?

옥향: 음, 그래두.

경애: 옥향아, 그래 배치는 받았니?

옥향: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인차 결정될거예요.

경애: 그래 넌 어디로 가겠다고 했니?

옥향: 저... 시내에 떨어지겠다고 했어요.

경애, 현일: 뭐, 뭐라구요?

영희: 아니 야, 여기에도 전적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제집에서 다니며 강사를 하는게 낫지 합숙생활하기가 그렇게도 좋더냐?

옥향: 야, 할머니 알지도 못하면서.

영희: 모르긴 뭘 몰라?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도 해야지. 이젠 그저 애지중지 키워놓으면 훌 날아갈 생각부터 하니, 쯤쯤쯤 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억이 막히면 말을 다 못하겠니.

옥향: 할머니두 참, 그런게 아니라는데...

현일: 그런게 아니면 도대체 뭐냐?

옥향: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라요. 솔직한 말로 여기야 하루에 몇십명 답사생들밖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내같은데서 강사를 해야 일할 멋두 있을게 아니예요.

현일: 흥, 네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옥향: 아버지도 참, 마저 들어보시지도 앓구. 난 강사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데서 하자는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크게 발전도 하자는거예요. 전국에 소문난 그런 강사가 되자는거예요.

영희: 글썽 그러면 그렇겠지. 우리 손녀가 누구라구. 난 그런 희망이라면 백번 찬성하겠다.

현일: 아니 어머니, 무슨 소릴 하는거예요? 가뜩이나 들뜬 애를...

영희: 됐다. 희망이 높으면 좋은거지 나쁠거야 있느냐?

옥향: 그렇지 않구요.

경애: 저 어머니, 전 사실 옥향이가 여기에 와서 제 뒤를 이었으면 했는데...

옥향: 아니 어머니, 강사가 되었으면 뒤를 잇는 거지 꼭 여기에 와야만...

경애: 넌 좀 가만있지 못하겠니?

영희: 옥향이 에미야, 제 자식이 잘되면 좋은거지.

경애: 어머니, 전 그렇게 아니라...

영희: 그렇게 아니면 도대체 뭐냐? 남들은 어떻게 하나 제 자식을 잘 키워서 보란듯이 내세워주고 싶어 그러는데 넌 제 자식의 날개를 꺾으려 들다니...

경애: 어머니, 저라고 왜 옥향이의 심정을 모르겠어요. 한창때이니 땀시도 부리고싶고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보고싶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시내에 가야만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자체가 벌써 병들기 시작했다는게 아니예요.

영희: 철없는 아이를 두고 너무 어마어마하게 말하지 말아. 솔직히 나도 시내에서 살기 싫어서 여기로 온줄 아니? 다 너희들이 잘되라는거였지. 이게 어머니들의 심정이야.

경애: 거야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름이나 날리자고 이렇게 일하는게 아니지 않아요.

영희: 안다, 알아. 옥향이도 일을 더 잘하자는 거지, 또 이왕 날바에야 이름을 날리면 좋은거지 나쁘게 있느냐. 자, 어서 들어들 가자.

옥향: 예. (가방을 들고 영희와 함께 들어간다.)

경애: 여보, 이 일을 어찌면 좋아요. 그렇게 민던 저 애가 저렇게 들떠왔으니 이 일을 어찌면 좋은가 말이에요.

현일: 너무 속쓰지 마오. 옥향이가 없다고 뭐 강사할 사람이 없겠소?

경애: 예? 당신 지금 무슨 소릴 하는거예요? 난 강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게 아니예요. 옥향이도 저 꽃나무처럼 될가봐 그러는거지.

현일: 뭐 꽃나무?

경애: 예, 떠날 때부터 꽃나무요, 꽃향기요 하면서 별스럽다 했더니 저렇게 들떠가지구 어데 가선들 구실을 바로 할수가 있겠어요.

현일: 하긴 강사가 됐다고 절로 뿌리가 든든해지는건 아니지.

경애: 말해야겠어요, 당장 여기로 오라고. 리해가 안되면 억지로라도 여기에 떨구어야겠어요.

현일: (막으며) 아니, 당신 어찌자는거요? 저 나 이때 생나무꾸듯 하면 오히려 역작용을 한다는걸 모르오?

경애: 그럼 어떻게 하자는거예요?

현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깨워주어야지.

경애: 아니, 어머니한테 딱 붙어서 저러는데 어떻게 일깨워준단 말이에요? 당신두 참.

△옥향 코노래 부르며 나온다.

옥향: 아니 아버지, 어머니, 왜 아직도 밖에 서있어요?

현일: 응? 오, 땀을 좀 들이느라구...

옥향: 예? 이 날씨에 땀이 나요? 호호호.

경애: (손뎛을 잡으며) 옥향아, 너 꼭 거기에 가야겠니?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랑 함께 있으면 좋지 않니?

옥향: 아니, 어머니—

경애: 물론 네 마음을 다 안다. 하지만 다 너처럼 생각한다면 여기 초소는 누가 지키겠니?

옥향: 어머니, 그렇다고 내가 딱 여기로 와야 된다는 법이야 없지 않아요?

경애: 넌 강사의 딸이 아니냐? 다른 애들이 그런다면 몰라도 누구보다도 이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아는 네가 어찌면 이럴수 있느냐?

옥향: (심각해서)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난 더더욱 여기에 올수 없는거예요.

경애: (놀라며) 뭐라구?

현일: 아니 옥향아, 너 지금 무슨 소릴 하는거냐? 어머니를 잘 알기때문에 못 온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옥향: 아버지. (얼굴을 싸쥐고 흐느껴운다.)

현일: 옥향아,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동안을 이 전적지를 지켜 묵묵히 일해왔다. 그런데...

옥향: (머리를 번쩍 들며) 그만해요. 그래 그렇게 묵묵히 일해온 어머니에게 남은게 뭐가 있어요? 남들은 공훈강사가 된다, 큰 대회에 참가한다 하는데 어머니에겐 도대체 뭐가 있는가 말이에요?

현일: 으응?

경애: 흠. (터쳐오르는 오열을 참으며 터발으로 나간다.)

현일: 옥향아, 네가 어찌면, 네가 어찌면 어머니를 모욕할수 있느냐? 네가 어머니를 알면 얼마나 안다구 투정질인가 말이다.

옥향: 아버지!

현일: 어머니는 처녀때 너만 한 자존심과 희망이 없어서 여기로 온줄 아니? 너보다 더 큰 희망과 포부가 있었지만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내이는데는 크고작은 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오기 저어하는 이 산골로 자진해서 왔다. 그 길에 무슨 일인들 없었겠니? 난 지금도 그 흔하디 흔한 언감자떡도 만들어먹을 시간이 없어서 어찌



다 떡을 빚으니 네가 오늘이 무슨 명절인가고 묻던 일이 잊혀지질 않는구나. 남들처럼 일요일에 휴식하길 하나, 그렇다고 언제한번 들놀이 간적이 있나? 언젠가는 너무도 날씨가 추워 밖에서 강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글썽 귀가 다 얼어서 통통 부어오르는게 아니겠니. 털모자의 귀덮개를 내리우고 강의를 하라고 하니 그러면 강사로서의 체모가 서지 않는다고 하면서 끝내 내리우지 않았지. 또 하루는 열이 몹시 나길래 오늘만은 집에서 쉬라고 했더니 하루 쉬면 우리 당의 피줄기를 이어주는 사업이 멎어선다면서 그냥 나가더구나.

옥향: 아버지!

현일: 그래 넌 어머니가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온줄 아니? 너처럼 그 어떤 대가를 바랐다면 이 신사동을 뜯지도 오랫동안거다.

옥향: 아버지 그럼 바라는것도 없이 여기로 왔나요?

현일: 응응?

옥향: 솔직히 말해주세요.

현일: 그래 바라는게 없었다면 솔직하지 못하지. 난 처음에 한 처녀를 사랑했는데 그가 강사제복을 척 입고 나서니까 얼마나 눈이 부시던지... 맵시도 맵시거니와 그 제복이 안겨주는 뜻이 너무도 커서 난 그가 가는 길이라면 이 세상 끝이라도 따라가고싶었다. 다만 내가 바란것은 그가 한생토록 그 제복을 벗지 말았으면 하는거였다.

옥향: 예? 그게 다나요?

현일: 그래, 다다.

옥향: 거짓말, 거짓말이지요, 아버지?

현일: 왜 믿어지지 않느냐?

옥향: 그래요.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도 소박하다면 그 인생은 너무도 허무하지 않아요?

현일: 뭐라구? 넌 네가 입은 제복의 뜻을 알거나 하고 입었느냐?

옥향: 알지 않구요.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정신, 그 넋으로 살라는 뜻이지요 뭐.

현일: 그런데 넌 투사들의 그 넋을 심장에 새기지 못하고있어.

옥향: 예? 제가요?

현일: 그래 네가! 투사들은 사령관동지의 결을 멀리 떠나있어도 그이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하는 길이 장군님께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절해고도에서도 비판을 모르고 싸워이겼다. 그런데 넌 벌써부터 초소가 어떻게 투정질하며 네 이름을 날릴 생각만 하는데 이게 어디 옳은 일이나?

옥향: 아버지... 후.

현일: 그럼 잘 생각해봐라. (집으로 들어간다.)  
△효과음악이 울리면서 흐느껴울던 옥향 터발에

서 일하는 경애에게로 간다.

옥향: 어머니!

경애: (일어나 나온다.) 옥향아!

옥향: 엄마. (안긴다.)

경애: 물론 네가 아니래도 여기로 올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너도 알다싶이 저 구시물동과 포태 중흥동판, 곰산, 사자봉, 소연지봉을 비롯한 적막한 초소에서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강사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이라고 너처럼 시내에서 살고픈 생각이 없어서 그런 초소에 갔겠니? 아니, 그들의 마음속엔 오직 투사들의 그 정신으로 살려는 하나의 생각밖엔 없었기때문이야. 그런데 강사의 딸인 네가 그들보다 뒤떨어져서야 되겠니? 어머니는 이게 안타까와서 그런다.

옥향: (안기며) 어머니.

△비서 등장.

비서: 경애동무! 경애동무!

경애: 아니 비서동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비서: 이제 잠시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신사동전적지로 오시오.

경애, 옥향: 예? 장군님께서요?

비서: 그렇소. 빨리 해설준비를 해야겠소.

경애: 예? 제가 말입니까?

△현일, 영희 나온다.

비서: 그렇소, 당위원회에서는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20여년동안 한생을 강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을뿐아니라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변함없이 자기 초소를 지키면서 수많은 능력있는 강사들을 키워낸 경애동무를 위대한 장군님앞에 내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모두: 예? 야!

현일: 비서동지, 그게 정녕 사실입니까?

비서: 그렇소.

영희: 원 세상에, 이게 꿈이나 생시냐? 우리 집안에 이런 영광이 차례지다니...

현일: 여보!

옥향: 어머니!

비서: 경애동무, 자, 어서 가가요.

경애: (옷매무시를 바로하며) 예.

△경애 비서를 따라나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춘다.

비서: 아니, 왜 그러오? 경애동무.

경애: 저 비서동지, 전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비서: 안되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경애: 저, 우리 파장동무가 준비하면 안되겠습니까?

비서: 아, 파장동무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은데 어떻게...

경애: 그렇지만 우리 부서책임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응당 그가?...

비서: 우리도 그 문제를 생각 못해본건 아니요.  
하지만 우리 판리소에서 동무만큼 해설을 잘하는  
사람이 있소? 더구나 부부간이 다 사적부문에서  
일하는 세대가 어디 쉽소?

경애: 비서동지, 그렇지만 전...

옥향: 엄마! 지금 무슨 소릴 하는거야? 일생  
에 단 한번밖에 없을수도 있는 이런 영광을 양보  
한다는거야?

경애: 옥향아.

영희: 옥향이 에미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런 영광을 제스스로 마다하다니 이게 도대체 제  
정신인가 말이다.

경애: 어머니, 제발 좀 진정하세요.

비서: 경애동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오. 이런  
영광의 시각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건 아니지 않  
소. 또 동무 한생에 대한 총화이며 평가라고 할수  
있소.

경애: 비서동지, 지금은 제 량심이 허락치 않습  
니다. 그러니 어서 파장동무를 준비시켜주십시오.

비서: 경애동무.

경애: 어서요. 비서동지, 시간이 없습니다. 어  
서 가십시오. (밀어보낸다.)

△경애에 비칠거린다.

옥향: 엄마! 엄마 정말 우리 엄마가 맞아? 그래  
그런 영광을 마다하면 어찌자는거예요? 그런 영광  
이 제일 큰 재부라는걸 엄마 그래 모른단 말이에요  
요? 이제부턴, 이제부턴 내 엄마가 아니야! 아!  
(뛰어나간다.)

영희: 너한텐 도대체 인정이라는데 있긴 있느  
냐? 지금껏 너를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해온 네 남  
편과 이 시어미 봐서라도 어찌면 이럴수가 있느냐?  
난 가겠다.

경애: (팔을 잡으며)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가시면 안돼요.

영희: (뿌리치며) 이걸 놔라. (비칠거리며 나간다.)

경애: 어머니! 어머니! (현일을 잡으며) 여보,  
왜 이러고있어요? 어머니를 못 가게 해줘요, 예?  
여보.

현일: 그래 나더러 어찌라는거요. 여보, 당신은  
정말 너무하오. 그런 영광마저 양보하면 자식들앞  
에, 어머니앞에 뭐가 되오? 내 가슴이 이다지도  
아플진대 어머니심정이야 오죽하겠소, 에이.(집으  
로 들어간다.)

경애: 예? 어찌면, 어찌면 당신까지...

△얼굴을 싸쥐고 흐느끼는데 노래 울린다.

아름드리나무는 뿌리있어 든든하고  
아름다운 꽃나무는 뿌리있어 향기로와  
언제나 그 뿌리는 보이지 않아도  
즐거를 받드네

△비서 급히 나온다.

비서: 경애동무, 경애동무!

△현일 문을 열고 나온다.

현일: 비서동지, 왜 그러십니까?

비서: 경애동무가 어데 있소?

경애: (눈물을 닦으며) 저, 비서동지.

비서: 경애동무, 진정하고 내 말 들소. 지금  
장군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무를 부르시오.

경애: 예? 이자 뭐라고 했습니까?

현일: 여보, 장군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오.

경애: 예? 비서동지, 그게 정녕 사실입니까?

비서: 그렇소. 일군들로부터 동무의 소행자료를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는 그 동무가 20여년동  
안이나 여기 신사동혁명전적지에서 강사로 일하고  
그의 남편도 혁명사적부문에서 일하고있다는데 정  
말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한생을 다 바쳐 혁명전  
적지를 지켜 묵묵히 일해온 그 동무가 보고싶다  
고, 어서 가서 데려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소.

경애: 예? 장군님께서요?

비서: 경애동무, 어서 가가요. 장군님께서 지금  
기다리고계시오.

경애: 장군님!(오열을 터뜨린다.)

현일: 여보, 어서.

△경애 옷차림을 바로하고 비서를 따라 나간다.

현일: 어머니, 어데 있어요. 장군님께서 옥향이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어머니! 옥향아!

△효과음악과 함께 무대 바뀌면서 배경에  
백두산이 비쳐진다.

△경애와 비서 나오며 백두산을 우러른다.

△옥향, 영희, 현일 나온다.

옥향: 어머니. (달려가 안긴다.)

경애: 옥향아.

영희: 며늘ैया.

경애: 어머니.

현일: 여보.

영희: 애야, 내 정녕 너를 볼 날이 없구나. 날  
욕해다오.

경애: 됐어요, 어머니.

현일: 여보, 그래 장군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소?

경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해설을 들  
으시고 확실히 로강사들이 다르다고, 이런 동무들  
이 많아야 강사대렬을 잘 꾸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적강사들은 인적드문 산속에서 혁명의 뿌리를

# 마음의 언제가 더 높이 솟는다

리 태 식

잡초 무성하고  
돌서덜이 깔린 강변을 구울며  
한산한 고요만을 안고흐르던 강줄기가  
이제는 어느새  
아득한 옛일로 되었다

보아라 랑림산발을 놀러두고  
하늘끝에 닿은 거창한 언제의 모습  
건설자들의 드센 타격에  
갈기 사납던 강이 차분히 물머리를 숙이고  
고요한 호수로 차오른다

언제정점에서 마지막작업을 하는  
끝끝한 병사들  
덜미잡힌 강물우에 발을 잠그려는듯  
휴식참에 언제를 타고앉아  
바지가랭이를 걸어붙이며 기세좋은 호기를 빼고...

표고점이라  
산과 산을 열싸안은 언제길이라  
이제 여기에 새 호수가 생겨나면  
얼마나 아름다워지랴고  
호방한 웃음을 터치는 지휘관들

그 누군들

이 현실을 쉽게 믿을수 있단 말인가  
언제건설의 기존공법을 허물어내고  
바라보는 눈앞에  
안아보는 가슴가슴에  
경이와 찬탄의 언제도 함께 안아올리는  
기적과 위훈의 날과 달이어

자강땅에 아로새겨진  
못 잊을 그날들은 먼 후날에도  
산악같은 언제에 남아  
찾아오고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길이  
남아  
이 땅우에서 이 하늘아래서  
비약과 전변을 부르며 끝없이 이어지고 흘러가  
려니

우리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의 찬란한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이 나라의 모든 전선과 전선들마다에서  
승리와 영광이 있거든  
그 승리와 영광은 희천속도에 이어졌으리  
세월을 주름잡아 위대한 창조물로 치솟은 언제여  
아, 이 심장엔 천만년 안고살  
또 하나의 마음의 언제가 더 높이 솟는다

지켜가는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어요.

**모두:** 장군님께서요?

**비서:** 어머니,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신사동 강사들이 인상에 남는다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백두산에서 사는 동무들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서 나무는 뿌리가 든든해야 흔들리지 않듯이 사람도 생의 뿌리가 든든해야 번심을 모르고 먼길을 갈수 있다고, 그 생의 뿌리를 튼튼케 하는 젖줄기는 바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었습니다.

**모두:** 장군님!

**비서:** 이어 끝없이 설레이는 수림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저 설레이는 수림을 보니 이 전적지를 위해 한생을 바쳐온 강사들과 가족들의 수고에 헤아려진다고, 바로 이런 동무들과 같은 백두산지기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저 백두의 수림처럼 영원불멸할것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모두:** 아버지장군님!

**옥향:** 아버지, 어머니, 축하해요. 장군님의 축복을 받은 아버지와 어머니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부모님들이예요. 어머니, 저도 오빠처럼 이 깔나무를 심겠어요. 모진 광풍에도 끄떡없이 한생토록 푸르러 설레이는 이깔나무처럼 저도 여기 신사동에 인생의 억센 뿌리를 내리겠어요.

**경애:** 그래그래. 옥향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생의 뿌리를 튼튼히 한 사람은 그 어데 있어도,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 바로 그래서 온 나라가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 백두산으로 물결쳐오고 우리 조선이 것처럼 강대하고 영원한거란다.

**옥향:** 어머니.

△효과음악이 고조되면서 모두 백두산을 우러를 때 천천히 막이 내린다.

# 밤 없는 하루

박 정 철

뜻별이 총총한 이밤에  
희천의 새날은 벌써 한창이다  
언제우에 혼합기에 콘베아에 자동차에  
드넓은 건설전역 그 어디나  
수천개의 조명등이 불타고있다

아득히 솟아오른 언제의 란간우에  
나뭇기는 붉은 기발  
그렇게 밝아왔구나  
더 크게 타번지고  
더 무섭게 내달릴 결전의 하루는

여기 산이 높은 북방에 일찍도 찾아온 밤  
여기 골안에 무겁게도 내려앉은 그밤이  
철판로조립장의 용접불에 불타고있다  
굴착기며 대형차의 전조등빛이  
휘휘 그밤을 내몰고있다

언제를 2012년전으로!  
당기고 또 당긴 기적의 시간표엔  
이밤은 진정 밤이 아니였어라  
달리고 또 달릴 위훈의 돌격로엔  
한가닥 어둠도 드리울수 없었거니

전조등 휘두르며  
아스라한 산벼랑을 휘감아도는 저 운전사  
대형혼합기에 적재함을 들이댄채

가 사

불이 번쩍  
또 한교대 이어받은 그의 하루다

이밤도 언제를 다지고있는  
저 굴착기 차창을 들여다보라  
편제없는 교대운전사  
애어린 병사가  
거대한 강철팔뚝 휘두르고있다

꿀잠 통잠이란 말은  
10대 20대 한창나이  
저 병사들에게 통하는 말  
누가 그들처럼  
그 말을 즐겨외울수 있으랴

우리 장군님 진두에서 이끄시는  
조국의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쫓피우기 위해선  
기꺼이 바쳐온 밤과 밤들을  
몇번이든지 웃으며 바칠 저 병사들

깃들수 없었다  
해뜨고 해지는 보통날의 하루는  
온 우주에 찬란히 빛날  
강성국가의 그날을 위하여  
여기 희천땅엔  
오늘도 밤없는 하루가 흐르고있다

## 내 고향 군민다리

김 경 석

초소와 마을로 오가는 정이  
강물우에 보란듯이 나래펼친듯  
억센 기둥 하나하나 병사들의 기상이요  
넓게 트인 한치한치 인민들의 마음일세  
아 그 이름도 정다운 내 고향 군민다리

원호품 안고서 찾아가는 길  
농사일 도와주러 찾아오는 길  
다리우에 굽이치는 군민의 정든 모습

물결도 사진처럼 비껴담고 흐른다고  
아 그 이름도 친근한 내 고향 군민다리

군민이 더더욱 가까워지고  
선군의 새 풍경 더해주는 곳  
내 조국의 안녕과 강성번영 받들어  
굳세게 마주잡은 손길처럼 안겨와요  
아 그 이름도 영원할 내 고향 군민다리



# 갈대숲서정

곽 성 호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외아들로 고이 자란 내가 군대에 나온 후 여직  
껏 소식 한장 띄우지 못했으니 무척 걱정이 많았  
으리라 봅니다.

아마 내 생활에 대한 어머니의 궁금증의 실꾸리  
는 신입병사훈련을 마치고 일명 《무인도》라 불  
리우는 섬으로 배치되어가던 그날로부터 풀어야  
할가 봅니다.

물에서 멀리 가물가물 바라보이는, 안개가 뽀잇  
하게 끼는 날이면 그 자그마한 형체마저 녹아없어  
지는듯 한 섬...

발동선에 오르니 미지의 섬생활에 대한 야릇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겹쳐들더군요. 그리  
고 같이 입대한 동무들보다 뒤늦게야 섬으로 가게  
된 미안함도 들었구요. 왜냐면 내가 신병훈련이  
거의 끝날무렵에 행군을 하다가 발목을 풀치다나  
니 군의소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되었으니까요.

발동선이 기슭을 얼마 벗어나지 못했는데 앞쪽  
에서 안강망선이 마주오는것이 보였습니다. 무  
심히 그쪽을 바라보고있는데 갑자기 《이보게, 구  
면친구!》 하는 석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굴까? 한동안 주시해서야 나는 풍기를 채운  
구명조끼로 하여 원래의 전주대마냥 꺾두룩하고  
여월사 한 몸이 한결 부하고 위엄있어보이는 구리  
빛얼굴 그리고 배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보이  
는 도수높은 안경을 낀 낮익은 선장아바이를 알아  
보았습니다.

《선장아바이!》

나는 무작정 손을 반가이 저었습니다. 그를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른다고  
도 할수 없었으니 그럴만한 일이 있었지요.

한달전엔가 부대운동장에서 축구경기가 있

었는데 나는 공격수로 출전하였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차례지는 바람에 나는 문대를 향해 힘껏  
뽈을 찼습니다. 슛— 하는가 했는데 아쉽게도 뽈  
이 문대를 스치듯 넘어가는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다가 그 뽈은 못나게도 두손에 무엇인가 무겁게  
들고오는 웬 아바이에게로 날아가는것이였습니다.

《야! 참!》 하고 외마디소리를 질렀지만 끈 달  
린 뽈이라고 잡아당길수도 없는노릇이고...

면바로 아바이의 정수리에 떨어지는 뽈, 어마지  
두 방아를 찢으며 풀썩 주저앉는 찰나에 엮어진  
그릇에서 좌르르— 쏟아지는 소리...

나는 당황하여 바빠 아바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조개들을 줏다가 그만 돌부리  
에 한쪽 알에 금이 간 도수안경을 보게 되었습  
니다. 눈앞이 아찔해왔습니다. 너무도 당황하여  
허둥지둥 고개를 쳐드니 아바이의 성난듯 한 눈길  
이 나를 바라보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제가 그만...》

그런데 정수리에 떨어질줄 알았던 추궁이 나의  
불기에서 철썩— 울리는게 아니겠어요.

《그래 내 머리가 꼴문이야? 하긴 약간 헛발질  
이긴 하지만 그만한 명중률에 타격력이면 당당한  
명포수감은 문제없겠는걸...》

호령기어린 석침한 목소리였지만 눈은 시원스레  
웃고있더군요. 그다음은 뽈을 획— 던져주고... 그  
저 그뿐이었습니다.

나는 후날에야 아바이가 수산사업소의 선장이며  
그날도 물 좋은 조개며 곤쟁이 등 수산물을 한가득  
싣고 금방 도착한 길이었으며 우리 병사들의 식탁  
이 늘 풍성한것도 그들의 아낌없는 성의에 의한것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호랑이》라면 모  
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선장이라는것도 말

입니다.

그래서 그 아바이앞에 더욱 죄스러움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피땀 떠오르는 한토막 추억속에 빙그레 웃던 나는 아바이가 탄 배가 점차 멀어져가자 서운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그도 더이상 만날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던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가야 할 섬은 해상분계선과 아주 가까운 최전방에 위치하고있었으니까요.

발동선이 어느덧 섬에 도착하니 한 병사가 이쪽을 두릿두릿 살피고있더군요. 내가 배에서 뛰어내리자 그가 곧장 다가왔습니다.

《혹시 우리 중대에 오는 신입병사동무가 아니요?》

《옳, 그렇습니다.》

나는 우정 가슴을 짝 펴며 큰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야, 얼마나 기다렸대구. 발은 다 나았소? 이름은 뭐요?》...

나는 급작스레 쏟아지는 물음사태에 좀 떨떠름했지만 그의 흥뜬 기분에 저도 모르게 말려들었습니다.

《독고남? 허, 이거 우리 섬에 둘도 없는 복성이구만. 반갑소. 내가 분대장이요, 이름은 김명철. 세상에 흔한 이름이지.》

분대장은 첫 대면에도 팔팔한 성품이 엿보이더군요. 분대장을 뒤편따르던 나는 눈앞에 펼쳐진 섬의 전경에 흠뻑 취하고말았습니다.

나지막한 둔덕우에 우뚝 솟은 풍력발전기의 은빛동체, 그아래 산뜻하고 정답게 안겨오는 병실들, 그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오손도손 모여앉은 아담한 군인사택, 따듯한 해별, 해감내 풍기는 공기, 누기찬 바다바람, 마치도 물생활의 한쪽을 뭉쳐 베여다 이 섬우에 그대로 펼쳐놓은듯 한 유정한 풍경이었습니다.

학교때 남달리 미술에 취미가 있었던 나에게는 섬의 전경이 마치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왔습니다. 섬이름에서 풍겨지던 무인지경, 외로운 섬이라는 느낌은 애당초 찾아볼수조차 없었습니다.

중대에 도착하여 지휘관들을 만나고 나오니 기다렸던듯 명철분대장이 내게로 다가오는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려행〉 떠날가?》

나는 얼떠름하여 되물었습니다.

《어딜 말입니까?》

《거야 물론 우리 섬이지.》

우리는 나란히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섬이름이 뭐라구?》

《무인도...가 아닙니까?》

《차, 이런...》

왜서인지 분대장이 불만을 표시하더군요.

왜 그럴가? 그렇다고 내 말을 수정해주려는 눈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달은것은 갈대숲이 바람에 춤을 추는 기슭이었습니다. 그가 갈대숲을 가리켜보였습니다.

《멋있지? 우리 섬의 〈참대〉 요!》

피씩 새어나오는 웃음을 나는 얼른 손바닥으로 가리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아마 내가 도시태생이라니 영 갸름인가 하는 모양입니다.

《갈대처럼 생긴 참대는 참 뽕니다.》

그의 오목눈이 꿈벅거렸습니다.

《허... 알긴 아누만. 하지만 중요한건 모를걸? 흔히 갈대를 약하다, 주대가 없이 흔들거리는데 비기면서 나쁘게만 보려구 하지. 한데 웬걸, 거목까지두 탕탕 부러뜨리는 태풍두 저 갈대만은 어찌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소박하게나마 대라구 불리우는게 아니겠소. 이를테면 우리 섬에 자라는 참말 대란 말이지.》

듣고보니 그럴듯 해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섬에 〈참대〉 가 있소? 없소?》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루한 물음에 거듭 부닥치게 될 줄이야. ...

섬에 나무라고는 온통 바위뿐인 등판에 용케 뿌리내린 팔죽굼기의 왕밤나무말이 있었는데 우리 분대장에게는 아마 그것이 굉장한 수림으로 보이는 모양인지 나 역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려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썰물때면 감탕판에 한벌 짚옥 깔린다는 바스레기들, 성계와 해삼들, 무진장한 서해특산 넉치와 꽃게들... 물이 아니라 섬이어서 분명 있어야 할 이러루한것에 대해서도 한참 자랑을 늘어놓은 끝에 《있소? 없소?》 하면 이미 했던 대답을 되풀이 하는새에 우리는 중대부업발에 도착했습니다.

크지 않은 부업발에 부루며 파, 근대, 가지와 오이 지어는 도마도와 수박, 참외까지 다 있어 나는 입을 딱 벌리고말았습니다. 맨 바위투성이섬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기름진 옥토를 얻어냈을까. ... 더욱 놀라운것은 바위우에 심은 고구마도 있는것이었습니다.

널적널적한 바위등우에는 갈대로 열기설기 결은 가마니들이 그 무슨 화분처럼 자리를 틀고앉았는데 흙을 그득 채운 거기에선 고구마넝쿨들이 치렁치렁 늘어져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그 연한 줄기는 《고사리》가 되고 가마니를 뒤엎으면 머리통만 한 고구마가 데굴데굴 쏟아진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두 물 부럽지 않은 부업발이 있소? 없소?》

빠기듯 그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나도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호응했습니다.

《려행》은 끝났습니다. 고작 한시간 남짓한 게 무척 아쉽긴 했지만...

병실이 가까와오자 분대장이 내게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섬 이름이 뭐라구?》

나는 무심결에 《무인도...》 하다가 도중에서 똑 그치고말았습니다.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뇌리를 쳤기때문이었습니다. 아닐세라...

《차, 이런... 이렇게두 그믐밤이라구야.》

저으기 화가 동했는지 그의 목소리가 한결 높아졌습니다.

《동두두 이자 다 보았지? 그래 사람들이 살고 있구 또 필요한 모든게 다 있는데두 〈무인도〉란 말이요?》

마치도 없는것을 내놓고는 다 있다는 식의 그 말투가 웃음집을 흔들어놓고야말았습니다.

《왜 웃소? 그럼 없는거 어디 한번 찾아보란 말이요.》

유쾌해진 나는 승벽심이 문득 살아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사실 찾자면 품들일것도 없었습니다. 없는게 얼마나 많다고요. 하지만 약국의 감초처럼 흔하면서도 꼭 있어야 하는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문득 군의소에선가 얼핏 들은 섬의 아이들이 물의 어느 학교에서 공부한다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닌게아니라 섬을 돌아보면서도 나는 아이들이 한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낱의 땡벌이 재글거릴 때면 바다물에 풍덩 뛰어들어 깔깔 웃음 터치며 물장구치기도 하구 모래불에서 오손도손 소꿉놀이를 벌려놓기도 하는 등 아이들의 평화로운 모습 같은것은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최전연, 해상군사분계선가까이에 있는 섬이라는것을 다시금 깨우치게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영?》

《인민이 없단 말입니다.》

내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분대장은 두릿두릿 사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금시라도 그 인민을 척 앞에 찾아 세울듯이 말입니다. 그러던 그의 눈길이가마당 한켠의 쭈장이 있는 곳에 가뒸는것이였어요.

《아니?...》

금방 중대식당에서 나온 웬 녀인이 뽕프질을 하며 바깥에 물을 담고있었습니다. 누굴까? 분대장은 서둘러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떠름해

진 나도 그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분대장은 무작정 뽕프손잡이를 앗아내는데 녀인은 왜서인지 《또 그 소리...》 하며 나무람부터 앞세우는것이였습니다.

돌아서는 그를 보는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니 한 50대나이로 지레짐작했었는데 뜻밖에도 30대 초입의 젊은 녀인이였습니다. 녀인이 무엇을 탕했는지 쉽게 가슴이 갔습니다. 섬에서 처음 만나는 녀인이여선지 호기심이 부쩍 동했습니다.

오이씨처럼 가름한 얼굴은 별에 그슬리긴 했어도 실주름 하나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별로 빼여진데가 없는 수수한 녀인이였습니다.

《몸이 편치 않다더니 또 나왔습니까?》

분대장은 걱정스럽게 물으며 물을 푸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분대 막내가 오늘에야 도착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인사하라우. 우리 중대장동지의 아주머니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그제서야 나도 깨도가 되어 차렷자세를 취하며 거수경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녀인은 얼굴을 활짝 붉히며 나를 나무람하는것이였습니다.

《또 어머니... 그제 누이라고 불려요.》

나는 그제야 저도 모르게 어머니라고 부른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퍼그나 아래인데 어쩌서 그런 부름이 스스로없이 나갔는지, 분대장의 말을 저도 모르게 따른것일가.

녀인은 친누이처럼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당부하고는 자리를 뒀습니다.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던 분대장은 혼자소리처럼 뇌이였습니다.

《우리 영실아주머니는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요. 이 섬에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언제한번 일손을 놓는걸 못 보았단니까. 처녀때 산골군의 자그마한 온실관리원을 했다면데 얼마나 이악한지 정말...》

분대장은 열에 떠서 그에 대한 자랑을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섬에 처음 와서 여기서는 도저히 살려낼수 없었던 왕밤나무를 정성껏 가꾸어 오늘과 같은 결실을 가져오게 한 일, 군인가족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물의 방조만을 바라겠는가하고 하면서 남새농사를 판이 크게 벌려놓은 일, 병사들에게 수박, 참외를 먹이겠다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끝내 재배에서 성공을 이룩하던 일...

《어머니란 부름은 아무에게나 부르는게 아니

지. 하지만 우릴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군인가족들을 보면 생각이 깊어지거던. 실지 그들은 이 섬에서 우리모두의 친누이, 친어머니구실을 하고있는셈이지. 동무도 차차 알게 될거요.》

그러던 분대장은 갑자기 나에게로 돌아서더니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 참, 그래두 인민이 없단 말이요?》

돌발적인 그 물음이 끊어졌던 화제의 편속임을 깨달은것은 잠시후였습니다. 통뽕을 먹은셈입니다. 그러나 쉬이 굵어들고싶지는 않았습니

다. 《정식 군복을 안 입었을뿐이지 어디 사민입니까? 평장없는 병사지...》

군인가족을 원형으로 한 어느 영화가 생각나 한나의 대답에 분대장은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하긴 그래. 영실아주머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군사복무를 하고있는셈이지. 우리 군인가족모두가 말이요.》

어머니, 그때 내가 본 녀인, 분대장이 어머니라 스스럼없이 부르는 그 녀인이 바로 이 섬의 몇 안되는 군인가족들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섬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것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지만 특히 첫 휴식날의 일은 지금도 인상깊게 떠오르곤 합니다.

분대별섭죽꾸기경쟁, 너럭바위에 앉아 연송 바다에서 《퍼내는》 가재미낚시질... 더구나 감탕판에서 강변의 자갈 주어담뚝 와락와락 《퍼다가》 바위위에 한벌 퍼놓고 불담이 센 마른 갈대의 널름거리는 불길속에 짹짹 아가리를 벌린 바스레기의 속살을 파먹는 조개구이는 돌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훈련의 설참에 우리는 썰물로 드러난 해묵은 감탕을 퍼내어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군인가족들이 새로 감나무발을 만든다면서 시작을 때놓은 일인데 우리 병사들이 도와나선것이었습니다. 분대장의 말이 부업발이나 왕밤나무발도 이렇게 감탕을 퍼올려 소금기를 빼내어 얻은 땅이라는것이었습니다.

정쟁이까지 빠지는 젖은 감탕을 퍼내어 맛들이나 질통으로 나르는 일은 결코 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발목이 시큰거리고 등어리가 뼈근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병사들을 위해 이런 힘든 일을 스스로 맡아나선 군인가족들의 수고를 생각하며 참고 견디었습니다.

군인가족들이 가져온 오이랭국까지 마셔서인지 모두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습니다.

나도 뒤질세라 부지런히 감탕을 날랐습니다. 이런 때는 웅당 우리 분대장의 《있소? 없소?》이

기가 나옴직한데 그를 찾아보니 아닐세라...

분대장은 지금 한창 아직은 이 섬에 없는 감탕을 있는듯이 펼쳐놓고있는중이었습니다. 안변 내기인 그로서는 흥시요, 곳감이요 하는것들을 먹음직스럽게 형상하여 말로 먹이는것쯤은 식은죽먹기일것이었습니다.

《에그, 군침 넘어간다. 아니, 잠깐... 분대장은 지금 감탕을 날랴요? 말을 날랴요?》

소대장동지 아주머니의 밋지 않은 핀잔이었습니다. 채송화마냥 작고 통통한 뚱뚱에 돼지를 기르고 부업일을 하느라 항상 콩콩 채우치는 젼결음이 인상적인 아주머니였습니다.

분대장은 반죽좋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아, 래일에 주렁주렁 달릴 감을 나르고있지요》

소대장동지의 아주머니가 영실아주머니의 질통을 앓아들며 도전을 걸었습니다.

《하긴 이 감탕이 후날 감으로 될테니까요. 그럼 한번 누가 더 많이 나르는가 내기해볼까요?》

《아주머니하구요?》

분대장이 미덥지 않아하는데 제 성미그대로 소대장동지의 아주머니는 어느새 종종결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기만 해보랴요. 제격 내 치마와 바뀔입히지 않나.》

아리잠직한 생김새와는 달리 무척 시원시원한 중대정치지도원동지의 아주머니가 분대장의 질통에 감탕을 퍼주며 오금을 박았습니다.

《차, 이런. 여 독고남동무, 우리 섬에 말이요, 치마가 있소? 없소?》

또 시작되는판이었습니다.

《없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으니 솔직히 대답할수밖에요.

《참, 야단이 아니요. 우리 남이동무에게 여기에도 치마가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우정 저야 하는게 아니요?》

그의 시까스름에 짹짹그르 웃음이 터졌습니다.

군인가족들은 언제나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생활했습니다. 비상소집훈련때면 배낭까지 메고 우리 중대와 함께 서군 했습니다. 그러니 분대장의 통말에도 일리는 있는셈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업장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져오르는 웃음소리... 자기 생활에 만족을 느낀 사람들만이 지을수 있는 즐겁고 유쾌한 웃음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손발을 씻은 나는 왕밤나무의 시원한 그늘속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것만 같았습니다.

너럭바위에 몸을 기대던 나는 왕밤나무가지에



매달린 그 무엇인가에 머리를 찡고 고개를 쳐들어 보았습니다.

며칠전에 분대장이 마련해준 화판이었습니다. 째째이 그리던 연필화를 완성하자고 들고나오긴 했지만...

화판을 내리운 나는 그것을 펼쳐놓고 그림에 눈을 던졌습니다.

떠나는 열차의 승강대에 서있는 한 병사가 어머니에게 인사를 보내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때면 의례히 바다너머 고향으로 미끄러져 가는 추억의 돛배...

입이 발은 이 아들의 식성을 헤아려 구미에 맞는 음식을 한가지라도 더 해먹이느라 노상 잔근심했던 어머니, 집을 떠난던 그 순간까지 군관들 말 잘 들어라, 건강에 주의해라 훈시하던 도예술단에 다니는 큰누이와 사범대학에서 공부하는 작은누이...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고 나를 위해주는 그 정, 그 사랑의 진가를 다는 알수 없었던, 그래서 때론 고깝게도 여겼던 그 나날들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그럴수록 막 보고싶었구요. 그뿐인줄 압니까? 어느때에는 이름도 낫도 아리송하여 별로 기억에 없던 한동네 조무래기들의 땀이치던 모습도, 학교로 오가는 길에 자주 맞다들리던 도로관리공들의 비질소리마저 정답게 안겨오더군요.

칠했던 지난날에 대하여 후하게 보상도 하고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도 다시 만나보고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마나, 신통하구만요.》

인기척에 편뜻 놀라 뒤돌아보니 뜻밖에도 한쪽 옆구리에 묵직한 갈단을 낀 영실아주머니가 서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인 모양이지요?》

갈단을 내려놓은 그가 수건을 벗어 이마의 땀을 훔치며 넋지시 묻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내 모습이 그려진것을 보고 제격 넘겨짚은 모양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가 유감스러운 어조로 뒤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좀 서글퍼보이지 않아요?》

《?!...》

《그림에 대해 잘은 모르겠지만 훌륭하게 키워 자식을 나라앞에 떳떳이 내세운 이 나라 어머니들의 자랑의 감정이 잘 나온것 같지 않아요.》

난 내 마음속의 빈구석을 화판에 펼쳐놓은것만 같아 귀뿌리가 화끈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참, 성이 독고라 했지요? 홀로 독자에 외로울 고를 쓰던가요? 오, 이젠 알만 해요. 왜 이런 곳에 혼자 있기 좋아하는지... 그 특이한 성때문이었군요, 호호.》

나는 목을 움츠리고말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다실이 집에서 이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종종 말을 듣던 내가 아니었습니까.

《지나쳤다면 용서해요. 난 그저 남이동무가 웃는 모습을 보구싶어서... 고향생각을 하던 모양이지요?》

꼭 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는 말 같아 나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일없어요. 그저 룽지생활의 습관이 가져다주는, 거 뭐랄까? 참, 섬멸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도 처음엔 그랬는걸요 뭐.》

《아주머니도 말입니까?》

《그럼, 여긴 눈만 뜨면 허허바다밖에 안 보이는 곳이 아니예요. 난 처녀때 차만 조금 타두 멀미를 하였는데 글썽 여기 와보니 꼭 그런 기분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멀미를 이겨낼수 없는건 아니잖아요?》

《아주머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나는 호기심이 나서 다우쳐물었습니다.

《뭐랄까? 그저 이 땅에 정부터 들었다고 해알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땅이긴 해도 우리 군인들이 피로써 지켜가는 땅이 아니예요. 그래서 일감부터 찾았지요. 아마 사람은 땀들인것만큼 그 땅에 정을 들이는가봐요. 이젠 이 섬이 나에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땅으로 되었으니 말이에요.》

결코 평범하게 볼 녀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그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우리 전사들의 기대에 따라서지 못하는게 안타까울뿐이에요. ...》

나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째선지 까마득히 울려다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엇그제 훈련실참에 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수확한 수박들을 차거운 쫄창물에 시원하게 담그어 가지고왔던 군인가족들, 그때 수박을 쪼개여 권하며 맛나게 먹는 병사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영실아주머니와 군인가족들이었습니다.

우린 그 달고 시원한 수박맛에서 병사들을 위해 바치는 그들의 진정을 뜨겁게 감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실아주머니는 자신을 자책하고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군인가족들이 우리 병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아마 친어머니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이건 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아이참, 우리가 구실을 바로 했다면 이렇게 남이동무가 외진 곳에서 고향생각에 묻혀있을까?》

《아니, 저...》

《됐어요. 바빠하긴... 난 그저 남이동무가 자기

의 속을 톡 터놓고 살았으면 해. 집에서는 어쨌는지 몰라도 이젠 어엿한 병사가 아니예요. 분대장이 하는 말이 음식을 가리는게 많았던데…»

나는 더욱 웅색해졌습니다. 분대장은 왜 그런 말까지 해서 나를 따분하게 만드는걸까요.

《힘들구 또 꼭 먹고싶은거랑 있을거예요. 그러니 뭐가 애로되는게 있으면 친누이라 생각하고 무릅없이 부탁해요. 난 그런 때가 제일 기쁘더구만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집에서처럼 응석을 부리고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판전을 부리며 앞에 있는 갈대를 가리켜보였습니다.

《떨감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예요. 올해엔 콩작황이 얼마나 좋은지 용기가 모자랄것 같더군요. 그래 두루 생각하다가 이걸루 광주리를 만들어볼까 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나는 말끝을 흐리고말았습니다. 고무마농사를 위해 갈대로 만든 가마니도 그의 착상이라던 분대장의 말이 생각났던것입니다. 그러고보면 떨감, 노전, 방풍나래 등 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갈대였습니다. 그래서 분대장은 우리 섬의 《참대》라고 했을가요? 하긴 바위투성이 땅도 옥토로 만드는 아주머니의 그 정신이면 나에게 쓸모없이 보이는 갈대도 그에겐 소중한게 여겨질수밖에요. 일하고 또 일해도 지칠줄 모르는 그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연약한 그 몸으로 어떻게 그 모든 고생을 달게 여기는걸까?

또다시 갈밭쪽으로 향하는 아주머니를 보며 번져지는 나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대장은 초절입한 파처럼 후줄근해진 나에게 《있소? 없소?》 강의를 또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남이동무, 병사에겐 힘들수록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랑만이 있어야 하오, 웃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요. 동무한테 그제 있는가? 없소! 인상을 좀 펴오, 활짝 웃으란 말이요. 우린 병사야, 병사이기때문에 웃음만 있어야 한단 말이요! 그래, 앞으론 그렇게 생활할수 있소? 없소?》

물론 나는 습관처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내뱉은 그 대답의 결과에 대해서는 바이집작도 못했답니다.

다음날부터는 어찌된 일인지 훈련의 설참에 무릎싸움하면서 《남이동무 있소?》, 기마전에서 승부열을 돌구다가도 《남이동무 없소?》 또 바다물에서의 수구경기를 시작하면서도 《남이동무가 참가했소? 안했소?》 하며 마치 내가 없으면 큰일이나 날듯이 저저마다 찾는것이었습니다.

오락회때면 또 어쨌는지 압니까?

《자, 동무들! 독고란 특이한 복성 그대로 독창이면 독창, 독주면 독주, 하여간 높은 자리는 절대로 양보 안했다는 우리 남이동무가 노래를 부르겠답니다.》

온통 거짓이었지만 난 진짜로 《조명등》을 커든 모두의 눈빛을 온몸에 받아안으며 무대로 끌려나가야 했습니다. 그 덕택인지 이젠 사람들앞에 나서기만 해도 얼굴이 익은 도마도빛이 되던 현상도 없어지고 목청도 퍼그나 띄어졌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거뽏해지니 그림의 색깔도 밝아질수밖에요.

이런 나날속에 우리 분대가 직일근무를 수행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어찌나 비가 억수로 내리던지 섬기슭의 갈대들도 바람에 태질하며 당장이라도 쓰러질것만 같더구만요.

밤이 깊어가자 비발은 더욱 굵어졌습니다.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긴장하게 군무를 서는데 분대장이 나를 진지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군무를 설때면 별에 의한 방위판정이나 썰물, 밀물때의 해안징후판정, 소리에 의한 거리판정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던 그였습니다. 이날은 각이한 대상에 따르는 눈짐작에 의한 거리판정에 대해 배워주더군요.

그가 한창 설명하는데 어디선가 쿵쿵 하는 둔중한 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자식들, 또 지랄을 만났군. 참 남이동무, 무슨 포소리인것 같소?》

나는 제껴 대답했습니다.

사방을 빙 둘러보던 그가 문득 내앞을 손들어 가리키는것이었습니다.

《저—기 불빛이 움직이는게 보이지?》

뽀얀 비발속에 어슴푸레 보이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며 물쪽으로 향해가는 불빛… 배가 분명했습니다. 먼바다에 나갔다가 지금에야 돌아오는것일까?…

그런데 바다쪽을 주시하던 분대장의 입에서는 왕청같은 말이 튀어나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안강망선이요. 바다호랑이 선장아바이란 말이요!》

나는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불빛만 보구 어떻게 압니까?》

《차 이런, 이렇게 굵은날에도 배를 띄울 배짱을 가진건 그 아바이뿐이란 말이요.》

너무도 확신있게 하는 그 말속에는 자부의 감정도 다분히 배어있었습니다.

《선장아바이를 압니까?》

《왜 모르겠소, 온 부대에 소문이 자자한 아바

이인데.》

벌써 두번째로 듣는 말이었습니다. 헤어지면 다시 만나볼수 없으리라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듣게 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게 된 이야기를 분대장에게 터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걸음 더 들어가보니 분대장은 선장 아버이를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잘 아는체 하다니... 맹랑해하는 내 생각을 넘겨짚은듯 그가 능청스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선장아버이를 〈바다호랑이〉 라구 하는 줄 아오?》

《?》

《아버이가 젊었을 때 말이요, 한번은 저 해상에서 적들과 맞다들렀다는게 아니겠소. 놈들은 미친듯이 배에 갈구리를 던지며 저들쪽으로 끌고가려고 했지. 아버이성격에 가만있을수 있는가? 펄펄 뛰며 시퍼런 도끼를 추켜들었지. 그리고 배에 걸린 갈구리바줄을 탕탕 끊어버리며 적들을 무섭게 쏘아보았다고. 그런데 글썽 그 눈에서 보태지 않구 시퍼런 불씨가 총알처럼 픽픽 내뿜는게 아, 정말이요. 영낙없는 호랑이기상에 호랑이눈이었다오. 오죽하면 놈들이 혼이 쏙 빠져 달아났겠는가?...》

나는 피씩 웃음을 지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분대장은 상상력이 풍부했습니다. 마치 직접 보거나 한듯이 열을 올리고있으니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바다호랑이》라는 별호가 그런 일때문에 생겨났다면 뭔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뇌리속에는 안경 낀 아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중게 웃던 그 가느스름한 눈에서 사나운 불씨가 튀어나온다니 어쩐지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이날 비를 맞으며 밤을 지낸것때문에 내가 덜컥 고삐에 걸릴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풀이 육신육신 쏘아나고 온몸에 열이 확확 오르더구만요. 집에 있을 때라면 인츰 자리에 드러누웠을것입니다. 하지만 난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병사라면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데 그건 내 욕망뿐이었습니다. 불쌍사납게도 한쪽 눈두덩이 부어오르며 내 얼굴을 쭈그렁박으로 만들다나니 더이상 숨길수 없었던것입니다.

분대장이 내 이마를 짚어보고는 야단쳤습니다.

《이크, 열이 센데? 글썽 엇그체부터 내 이상하다 했지. 그런데 왜 진작 말 안했소?》

분대장은 바빠 위생지도원을 불러 체온계를 쏘아본다, 약을 먹인다 하며 한참 부산을 피웠습니다. 그래도 별반 차도가 없었습니다.

점심에는 영실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다 듣

고왔는지 걱정이 한가득 실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난데없이 불쿵 쿵 몇알을 내밀며 씹어보라는것이였어요. 너무도 꼭진한 눈길이어서 나는 시키는대로 쿵을 몇알 입에 넣었습니다. 이마살을 찌프리며 쿵을 씹었는데 이게 웬일일가요? 비리기는커녕 고소한 맛이 느껴지니 말입니다.

《화기를 앓아본적 있어요?》

《화기란건 또 뭘니까?》

대답대신 그는 알만 하다는듯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찾는다기에 가보니 식탁에는 칙 보기에다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상이 차려있었습니다.

영실아주머니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돼지고기국이었습니다.

《이런걸 좋아하지 않는다는걸 알아요. 그래서 느끼하지 않게 만드느라 했는데...》

몹시 송구스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참 야단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울인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이런 심정은 어머니밖에 누구도 모를것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한번은 어머니가 까다로운 내 식성을 고쳐준 다면서 돼지고기를 칠면조고기라고 눈속임하여 먹었다가 큰 봉변을 당한적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무작정 거절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술 뜨는체할수도 없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걸 먹어야 화기를 고칠수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들어요.》

가까이 가져다놓는 고기그릇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속에서 울컥 올리치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한벌 돋는것만 같았습니다.

《저... 아주머니... 사실은... 사실은...》

나는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만 구운 게처럼 달아오른 그의 얼굴, 그리고 《미안해요. ... 용서해요. ...》 하면서 그 무슨 큰 죄나 저지른듯 고개를 수그린채 바빠 문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뒤모습만이 눈동자에 찍혀졌을뿐이었습니다.

미안한 정도로 말하면 내가 더했습니다. 자신이 막 저주스러웠습니다.

오도가도 못하고 서성거리는데 이번에는 분대장이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코날이 더욱 선득거리는 것만 같더군요.

《남이동무, 도대체 동무한테 분대장이 있소? 없소?》

첫마디부터 노기어린 음성이었습니다.

《우린 한잠자리에서 자지? 한가마밥을 먹구.

헌데 뭐야? 내가 그렇게 어려워? 왜 다 말 못해? 병은 자랑하랬다지 않아. 예익, 내가 무슨 분대장이야?…》

나는 그가 이처럼 성난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난 오늘 영실아주머니앞에 정말 미안하더구만. 그가 어쩌나 죄스러워하던지… 아주머니가 동무때문에 얼마나 원심쓰는지 알아?》

《다 압니다.》

나는 송구스러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 화를 냈습니다.

《알긴 뭘 알아? 남이동무때문에 병사들을 위한 날이면 비계를 넣지 않은 비지를 따로 꿰이구 또 볶음찬보다 생채를 더 좋아한다구 남몰래 마음쓰는걸 다 아는가 말이야.》

레사로이 받아든 음식그릇에 그런 정성이 고여 있는줄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나는 눈길을 떨구었습니다.

《동문 너무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언젠가 남이동문 내게 이 섬에 인민이 없다고 말했었지. 난 사실 그때 별생각없이 그에게 그때 일은 우스개삼아 윈진적 있었지. 헌데 아주머니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는거야.

다음날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더구만. 〈분대장 동무, 이젠 제발 날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아요. 난 그런 자격이 없어 막 두려워… 병사의 가슴속에 인민이 없으면 싸움을 못해. 하지만 이 섬에 아니, 이 땅 그 어디 병사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는걸 심장으로 절감하는 그날이 꼭 있을거예요. 그때까지는 제발〉〉 이게 바로 영실아주머니의 진심이란 말이야!》

나는 멍한 눈길로 분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가 귀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남이동무두 알지? 이 섬에 군인가족이라고 뭣이 안된다는걸… 하지만 우린 그들을 보며 친누이, 친어머니를 생각하지. 그들을 통하여 고향과 후방인민들을 본단 말ियो. 이걸 알기에 그들은 후방인민들 열명, 백명을 대신하자구 그렇게 아글타글 하는거야. 남이동무랑 우리의 가슴속에 인민의 모습을 새겨주자구 그런 고생을 달게 여기는거란 말ियो.》

《분대장동지…》

감동에 젖은 내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들은 영실아주머니의 말이 다시금 새겨졌습니다.

병사가 있는 곳이어서 이 섬에 정들었다던 말, 어머니라고 부르는 병사들의 기대에 따라서지 못하는것이 제일 안타깝다고 하던 영실아주머니의 그 말… 아, 그 말속에 이런 뜨거운 진정이 스며있었던 말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난 뭐겠습니까. 누가 건드릴세라 갑부터 단아버리는 조개처럼… 정말 언제면 속을 톡 터놓고 사는, 이 좋은 사람들과 허물없이 섞일리는 진짜배기병사가 될수 있단 말입니까?…

다음날 이른아침 내앞에는 단지에 고은 오리곰이 차례졌습니다. 그게 나의 화기를 단번에 가라앉힐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 동지들과 군인가족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내 마음은 섬상공으로 자유로이 나태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날속에 명절날 아침이 왔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누가 더 푸른가 내기를 하듯 기막히게 쾌청한 아침이었습니다.

분대장이 나를 부르더니 느닷없이 꽃다발을 빨리 준비하라는것이었습니다.

《그건 어디에 씁니까?》

《오, 인민들이 온다누만.》

나는 경총 뛰었습니다. 어쩌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일 가야 먼발치에서 지나가는 배를 한번 바라보는것도 큰 자랑으로 여겨지는 이 섬에서 그야말로 돌도 없는 경사라고 할수 있었으니까요. 온몸이 풍선이 되어 등실 떠오를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섬의 여기저기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갑자기 눈에 뜨이는 꽃이 어디 있어야지요. 물에선 지금 웬간한 등판에도 한벌 뒤덮였을 흔하디 흔한 들국화조차 여기선 온실의 진귀한 화초마냥 구경하기가 힘들었던것입니다.

맥폴린 걸음발은 섬기슭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가득 기대안고 사위를 휘둘러보던 나의 눈은 번쩍 빛났습니다.

소슬바람에 서로 맞비비며 설레는 푸르른 갈대, 그 초리마다에 소담스레 고개를 빼문 갈꽃을 보았던것입니다. 향기도 없고 빛갈도 수수하기만 하여 어느때는 한번도 넘보지 않던 갈꽃이 그 순간엔 왜 그리도 선명하게 안겨왔을까요?

갈꽃다발! 아마 세상에 없는것이라는 여기에 더욱 독특한 매력과 풍미가 있는것이 아닐까요?

우리 섬의 돌도 없는 《참대》! 그 《참》자의 혜택이 꽃다발에까지 번져진셈이지요. 지체없이 아름답게 갈꽃을 꺾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창황중에 바다길을 살피는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날씨가 좋아야겠는데…

《여기서 뭘 그리 늦장을 부리오?》

어느새 왔는지 썩썩 가쁜숨소리를 내며 분대장이 등뒤에 서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소?》

《평대신 닻이라구…》

그는 유쾌한 미소를 오목눈에 담았습니다.

《그게 어디 닻이요? 썰이지. 빨리 가자구,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누가 말입니까?》

《누군 누구겠소? 인민들이지.》

아니 벌써?! ... 나는 화닥닥 놀라 옷매무시부터 바로잡으며 그뒤를 나는듯이 따랐습니다.

아닌게아니라 와있었습니다. 붉고 푸르고... 온통 화려한 빛갈의 치마저고리들이 어찌나 눈을 부시게 하던지...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분홍빛치마저고리를 입은 녀인은 글썽 영실아주머니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녀인들 역시 우리 섬의 군인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럼, 온다던 인민들은?...

나의 속을 들여다본듯 분대장의 오목눈이 의미 깊게 꿈벅이는것이었습니다.

《뭘 하오? 꽃다발을 안겨줘야지.》

순간 《쿵작 쿵자작...》 하는 손풍금의 환영곡소리, 손바닥이 깨어질듯 한 박수 그리고 내 어깨를 떠미는 분대장...

나는 그 소리에 떠밀려 그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허나 품을 들인듯 한 화장으로도 다 가리우지 못한 바다바람에 그슬린 얼굴마다에 발그레 홍조를 띄운채 터갈라진 손을 고름속에 감추며 어쩔바를 몰라하는 그들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막 아릿해왔습니다.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영실아주머니에게로 향해졌습니다.

문득 가슴 뭉클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으니 그것은 구수한 냄새가 문문 서려오르는 단지안의 오리 꿈을 내게 권하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네발가진 고기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돋는다는 걸 미처 몰랐으니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덧붙일번 했으니 남이동무가 얼마나 날 나무람했겠어.》

얼굴에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통통 살찐 고기를 뜯어주던 그 모습이 왜 그리도 강렬하게 떠오른것인지, 그날의 그 모습은 진정 이 아들을 위해 남 모르는 정성을 바쳐온 나의 어머니모습 그대로가 아니겠습니까.

《어... 머니!...》

불쑥 튀어나온 부름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흠칫 굳어지는 몸, 파르르 떨리는 손. 나는 그에게로 한발 다가서며 뜨거움에 젖은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병사들은 인민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갈꽃다발을 받아안은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부끄러움, 기쁨과 감격의 선풍이 엇갈려 파도쳤습니

다. 그 유순한 눈가에 맑은 물기가 함초름히 내배였습니다.

《고마워요, ... 고마워요. ...》

크나큰 행복감으로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지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그 모습앞에 내 마음도 청신해지는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들, 환영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저마끔 소중히 받아안은 수수한 갈꽃다발과 화려한 치마저고리들이 어찌나 조화를 이루던지 그것은 한쪽의 명화를 눈앞에 펼쳐놓은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분대장의 귀전에 소곤거렸습니다.

《분대장동지, 우리 섬에두 금강산팔선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는 웃으며 제격 맞장구쳤습니다.

《있지, 현대 인원이 좀 모자란다나.》

와하하 즐거운 폭소가 터졌습니다.

분대장이 제잡담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인민들이 찾아왔는데 맨송맨송하게 보내잡니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야지요. 그럼 군민련환모임의 첫 순서로 영실아주머니의 노래부터 들어보는게 어떻습니까?》

순간 요란한 박수소리에 지붕마저 건듯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재빨리 화면반주음악기재를 켜고 조종기단추를 눌렀습니다. 우리모두의 마음을 대변한 노래제목이 텔레비존화면에 새겨졌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실아주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맑고 풍만한 전자악기의 선율이 소박하면서도 부드러운 노래소리를 그윽히 감싸며 울려나왔습니다. 《병사들은 나를 보고 어머니래요》라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영실아주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실려있는 그 노래가락에 깊이 심취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어머니로 한생을 바쳐갈 그의 진심을 노래속에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아안았습니다.

요란한 박수속에 너도나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흥겨움은 더해만 가는데 정치지도원동지의 아주머니가 나섰습니다. 처녀때 수도의 이름있는 체육단에서 수중체조무용을 하였다는 그는 여전히 우아하고 균형잡힌 자세를 가다듬으며 평상시보다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독연입니다. 〈있소? 없소?〉》

좌중은 삼시에 웅성웅성했습니다.

나는 대뜸 뇌리에 우리 분대장의 모습을 떠올리며 벌써부터 입가에 웃음을 물었습니다. 짐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독연내용인즉 신통히도 내가 섬에 도착하여 체험한 《려행》 이야기와 꼭 같았던것입니다.

코날을 건듯 쳐드는 행동거지나 툭툭 내던지는 듯 한 말투까지도 어떻게나 우리 분대장을 그대로 흉내내는지 나는 허리를 부여잡고 눈물이 나게 웃었습니다.

그야말로 장내엔 출렁출렁 웃음바다였지요.

그날에야 나는 나뿐이 아니라 신입병사들모두가, 심지어 도시에서 여기로 온 정치지도원동지의 아주머니까지도 우리 분대장과 섬 《려행》을 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민련환모임은 중대장동지와 영실아주머니가 부른 혼성2중창과 더불어 최절정에 달하였습니다.

노래는 합창으로 번져졌고 너도나도 춤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땅에 원썬들이 덤벼든다면  
군대와 인민은 함께 싸우리  
...

손벽을 치며 노래부르던 나도 분대장의 손에 이끌려 춤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얼마후 나는 분대장과 함께 진지에 올랐습니다.

일망무제한 푸르른 바다, 여직 흥분이 가시여지지 않은 나의 단불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다바람, 끼룩끼룩 노래하는 하얀 갈매기들...

웬일인지 분대장이 나의 얼굴을 이윽도록 바라보는것이었습니다.

《독고남동무, 오늘 좀 들뜬것 같구만. 하지만 우리는 병사들을 위해 바치는 군인가족들, 온 나라 인민들의 그 마음을 안고 즐겁고 행복한 때일수록 마음의 탕개를 늦추지 말아야 해.》

분대장은 저 멀리 적들이 등지를 틀고앉은 섬들 쪽을 가리켜보았습니다.

《동무두 요즘 적들이 심상치 않게 노는걸 다 알지?...》

나도 이 섬을 지키는 병사인데 왜 모르겠을까. 군사분계선가까운 해상에서 편이어 벌어지고 있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소동... 아닌게 아니라 백주에 우리를 걸고든 날강도적인 《천안》 호사건때부터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전쟁의 검은 파도를 몰아오고있는 원썬들이었습니다.

《만약 적들이 당장이라도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린 결코 인민의 머리위에 단 한점의 불티도 떨어지게 할수 없소. 그것이 장군님의 병사로 군복입은 우리들의 신성한 의무요.》

쿵 둔중한 메아리가 가슴을 치더군요.

분대장은 격동에 휩싸여있는 나의 어깨우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길 보라구. 설레이는 저 〈참대〉 숲이 얼마나 장쾌해!》

분대장이 흥분에 떠서 하는 말이였습니다.

언젠가 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당장이라도 쓰러질것 같더니만 장하게도 다시 일어나 본래의 곳곳함을 유감없이 펼쳐 보이고있는 갈대숲이였습니다. 코마루가 쩡해왔습니다. 나에게도 저 갈대에 대한 정이 생겨나는것일까?

《내가 왜 저 〈참대〉를 사랑하는가. 그건 바로 이 섬에 온통 돌과 바위뿐이던 먼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불평도 모르고 변함없이 억센 뿌리를 내리며 즐기치게 생을 이어가기때문일랄지. 그래서인지 저 〈참대〉를 보면 아무런 명예도 보수도 없이 우리 병사들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가족들이 생각나거던. 안 그래?》

그러고보면 내가 여기에 왔을 때 그가 《참대》 자랑부터 터놓은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듯싶었습니다.

《남이동무, 저 〈참대〉가 언제한번 이 섬기슭을 떠나본적 없듯이 우리 군인가족들두 잠시두 우리 곁을 떠난적 없지, 후방인민들의 마음까지 대신해서 말ियो. 하긴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우리가 입고있는 군복, 우리가 다루는 총과 포... 여기엔 군대를 위하는 인민의 피와 땀, 지성이 어려있지. 그러니 인민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게 아니겠소. 인민군대라는 우리 이름에서처럼 언제나 나란히 말ियो.》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언제면 분대장처럼 될수 있을가.

나는 가슴이 뭉클해움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분대장동지!》

명철분대장은 갑자기 남쪽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없어야 할것도 있소. 저기 〈북방한계선〉은... 그리고 신성한 우리 땅을 타고앉은 저 가증스런 원썬놈들은...》

눈가에 번쩍 번개치는 증오의 불줄기, 없어야 할 그 모든것을 억센 줌안에 모두어 바스러뜨릴듯 굳게 틀어잡는 주먹.

《내가 동무에게 새삼스레 섬이름을 물어본적 있었지?》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추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나는 긴장해졌습니다. 질문은 하였으되 구태여 대답을 요구하지도 않고 웃음속에 넘겨버렸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난 그날 분대장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섬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득한 옛적부터 불모의 땅이라 사람이 살지 않아 무인도, 일제놈들의 가혹한 압제를 피해 몇사람이 건너와 몸을 붙였지만 끝내 살수 없어 다 죽어나간다고 해서 무인도, 그후 나라가 해방되어 이곳에도 마을이 생겨나고 새 생활창조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렸건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날강도 미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의해 또다시 본래의 이름처럼 불리우고말았다는 섬이였습니다.

《무인도!》 그 이름에 이런 피맺힌 원한이 새겨있는줄 내 어이 알았겠습니까.

섬은 여전히 《무인도》로 병사들의 가슴에 새겨져있었으니 그것은 하늘에 사무친 이 원한을 심장에 화약처럼 장약하고 원썬들과 끝까지 결산하려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가 그 이름에 어렸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물기젖은 눈길로 주위를 새삼스럽게 둘러보았습니다.

은구슬의 포말을 휘뿌리며 기슭을 애무하듯 쉬임없이 달려오는 흰 파도, 억센 줄기를 창대처럼 추켜든 갈대들, 짹짹 버그러진 아귀마다 윤기도는 밤알들을 간신히 물고있는 왕밤나무들, 누렇게 마른 꼬투리들을 주렁주렁 매달은 콩포기들...

왜서인지 그 모든것이 별스레 애뜻하게, 소중한게 안겨들더군요.

아, 사랑하는 나의 섬, 총대로 끝까지 지켜야 할 귀중한 땅이여, 이것을 위해 한몸 서슴없이 내댈기꺼운 감정이 심장을 활활 불태우는것만 같았습니다.

바야흐로 싸움의 그날이 닥쳐왔습니다.

어머니도 이미 알고있는 온 세상을 들썩거리게한 그 ○○○포격사건말입니다.

사실 《천안》호사건이후 놈들은 정세를 계속 악화시켜왔으며 최근에는 얼토당토않게도 그 무슨 《북방한계선》고수를 췌치며 이 일대의 긴장을 전쟁점점으로 몰아갔어요. 하루전에는 해상군사분계선가가이에서 위험천만한 군사훈련까지 벌려놓고 포탄을 마구 쏘아대며 전쟁광기를 부리는데까지 이르렀었습니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멸적의 기상안고 진지를 차지하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무모한 군사적도발로 나온다면 적들은 우리의 대답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였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분대장과 나에게 뜻밖의 임무가 떨어졌던것입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수 없어 뻥

해 서있었습니다.

《...들었소? 빨리 전마선을 준비하란 말이요!》 싸움을 당장 앞둔 이 시각에 왕청같이 전마선이라니. 왜? 무엇때문에?

《가족들을 구원해야 할게 아니요. 군인가족들을 대피시키라는 상급참모부의 명령이요.》

벌컥 성을 내며 던지는 그의 말속에서 《가족》이란 단어가 별안간 정수리를 호되게 들이쳤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모든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마선을 다 준비해놓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도 분대장이 나타나지 않더군요. 빠질빠질 속을 태우다못해 나는 군인사택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격렬한 《싸움》이 나를 기다리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서 떠납시다. 무조건 가야 합니다. 이젠 우리 병사들의 한결같은 요구란 말입니다.》

분대장이 영실아주머니에게 들이대는 절절한 간청이였습니다.

《아니, 난 못 가요!》

《어머니가 없어도 우린 섬을 지킵니다. 그러니 어서...》

아주머니의 얼굴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난 절대로 여길 못 떠나요. 이 준엄한 시각에 우리 군인가족들이, 인민이 병사들결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죽어도 살아도 병사들과 함께 있어야 해요.》

《어머니!》

내 눈앞에 느닷없이 갈대숲이 확 안겨왔습니다. 한줄금 미풍에도 뒤설레이며 연약해보이던 갈대숲, 허나 모진 바람이 몰아칠 때면 세찬 파도에 뒤채기고 바다물속에 드잡졌다가도, 사나운 돌개바람에 휘말려 감탕에 넘어졌다가도 강철같은 힘으로 튕겨일어나 맞받아 후려치는 저 억센 갈대숲! 짠 감탕속에 억척같이 뿌리를 내리어 곳곳이 줄기를 솟구치고 수수하게나마 소담한 갈꽃까지 피워 섬의 풍치를 더해주는 그 갈대가 정녕 우리 섬의 《참대》가 아니란 말입니까!

나에게는 영실아주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강인하고 굳센 모습으로 안겨왔습니다.

싸움은 군대만이 하는것이 아니였습니다. 두번다시 노예로 될수 없기에 영실아주머니와 군인가족들 아니, 이 땅에 생을 둔 인민들모두가 군대와 판가리결사전에 떨쳐나서는것입니다.

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 이런 인민의 마음속에서 내 지금껏 복무의 나날을 보내왔던가!

영실아주머니의 마음이자 군인가족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였습니다. 그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진지를 차지하였던것입니다. 나는 격동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리도 많이 들어온 총대의 뿔끈, 최고사령부작식대원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할수 있었습니다.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적들이 주체남제도 우리의 바다를 향해 선불질을 해뒀던것입니다. 천지를 진감하며 울려퍼지는 각종 구경의 포소리, 무수한 불줄기에 찢기고 불타는 피뿔하늘, 해일을 만난듯이 무섭게 광란하는 바다우에 길길이 솟구쳐오르는 물기둥들... 포연에 쫓기어 물으로 날아가는 새들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기 바다우에 떠오른 허리쫘긴 마름류들이며 둥둥 허연 배를 드러낸 물고기들도 다 보이는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어금이가 부서지도록 짹 깨물었습니다. 격분으로 온몸을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아, 것처럼 평화롭던 우리 하늘, 것처럼 아름답던 우리 바다... 제놈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 땅, 우리 바다에...

피는 우우 사품쳐 뿜었습니다. 증오는 활화산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마주보는 눈빛의 번뜩임! 그것은 서로의 귀전에 복수의 구호로 메아리치는 《천백배의 죽음을 주라!》라는 웨침이었습니다.

정의의 포문은 열렸습니다. 복수의 눈달린 포알들은 기다렸다는듯 하늘을 헤가르며 도발의 불집을 터친 본거지들을 가차없이 때렸습니다.

파당— 파당— 련속 날아가는 포탄들, 적진에 대한 무자비한 타격전, 온통 불바다로 되어버린 적들의 섬... 쏘고 또 쏘아도 도저히 기분이 후련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세로 눈썰사나운 저 섬들을 통채로 콩가루처럼 박산내버리고싶었습니다.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는데 문득 어디선가 배고 동소리가 들려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쪽으로 눈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가요? 저 멀리 바다우에 우리 섬으로 살갈이 달려오는 세척의 배들, 선수갑판우에 손을 흔드는 사람들, 포연속을 헤치며 주저없이 이리로 오는 그들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남이동무, 뭘해? 빨리...》

쌍안경을 들고 사격제원을 수정시키던 분대장이 내게로 수기를 던졌습니다.

젼싸게 받아든 나는 포진지우에 올라섰습니다. 팔목을 짚쪽 그으며 수기신호를 보냈습니다.

《돌아가라! 여기는 전투장이다!》

그래도 계속 왔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위험신호를 재차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선두의 배에서도 수기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다. 인—민—을— 기다리라!》

나는 갑자기 호흡이 가빠오름을 느꼈습니다. 격

동과 환희, 희열과 행복으로 온 가슴이 터져나갈듯이 빠근해왔습니다.

자석에 끌리듯 하염없이 그쪽을 주시하던 나는 수기신호를 보내던 사람의 얼굴쪽에서 일순 반사광이 번뜩이는것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상한 육감으로 심장이 널뛰듯 했습니다.

쌍안경!...

나는 쌍안경을 눈가에 가져다했습니다. 또렷이 확대되어오는 안강망선, 갑판우에 서있는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 그는 분명 안경끈 후리후리한 키썰의 바다호랑이 선장아바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포연탄우속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는 그가 그래 바다호랑이가 아니란 말입니까?

불쑥 두볼로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흐느낌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나는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분대장동지! 저기 바다호랑이아바이가 옵니다. 인민이... 인민이 온단 말입니다!》

《남이동무, 어찌자구 그래! 안돼! 여기로 와선 절대 안돼!》

수기를 빼앗아드는 그의 눈이 사납게 번뜩이었습니다.

그가 진지로 뛰어오르려는데 영실아주머니가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만두세요. 그래서 인민이지요!》

분대장은 슬며시 고개를 외로 틀었습니다.

나는 물기어린 눈길을 들어 저 멀리에 있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찰나 가슴치는 생각! 그것은 물과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있어도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내 조국땅에서는 천만군민이 언제나 사수, 부사수가 되어 이렇게 한전호속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들도 우리의 군민대단결을 핵탄보다도 더 무서워하는것입니다.

포연속의 상봉이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서로 열싸안은 포옹이 그 얼마나 억센것인지 그리고 맞부비는 두볼의 눈물이 그 얼마나 뜨겁고 진실한것인지 나는 싸움의 그날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군대와 인민의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되는 순간 그 하나가 더욱 무한대한 무적의 힘을 분출케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굽어보느라니 한찰나 뇌리에 섬광이 번뜩이었습니다.

포연탄우속, 갈대숲 설레이는 섬기슭의 안강망선, 그것을 배경으로 서로 열싸안은 군대와 인민...



# 우리의 희천시절은 가지 않으리

리 명 옥

우리 쏜은 팍방울이 별로 돋은듯  
희천의 밤하늘엔 유난히도 별이 많구나  
벗들아, 이밤 어이 잠에 들랴  
날이 새면  
서로 다른 초소로 떠나야 할 우리임에

조국이 부른 화선행 희천열차에서  
처음 만나 통성했던 우리  
불이 튀고 심장이 뛰던 수백여일에  
지심깊이 천년책임물길굴만 열었으랴  
믿음깊은 인생의 만년보증길도 함께 열었지

보이지 않는 수천척 땅속에서  
힘겹고 어려웠던 그 모든 순간들을 넘어  
이젠 우리 생활을 굽어보는 눈을 가졌나니  
조국이 마음쓰는 곳에서  
애국하는 아들의 자세를 바로했기에  
희천시절이라는  
인생의 아름다운 구간을 가지게 되었다

보라, 이 시절에 얼마나 높이도 올라섰는가  
랑림계곡의 모진 산바람 이겨내며  
버들초리처럼 애되고 봄순마냥 솟되었던  
철룡아 너는 구리빛사나이 역센 장부 되었고  
분아 너는 눈속에 핀 꽃처럼 아름다워졌다

천험의 산악을 꿰지르며  
한치한치 물길굴 열어가던 그 나날  
석수에 온몸 젖고 암석부리에 찢겨 피가 나도  
우리는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며 이겨냈지

봉락에 굴길이 막혀 주저앉을 때  
철룡아, 너의 닐리리장단에 화음맞춘  
막장오락회는 봉락구간을 날아넘었지

그것이 창조이고 위훈인줄 우린 몰랐다  
못다 나른 버럭더미를 놓고  
당원들의 뒤를 따랐던 그 대오  
대오에서 떨어질가봐  
구대원들의 발꿈치를 밟으며  
하루에 백리길을 달리면서도  
그것을 위훈이라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가

우리예겐 너무도 레사로웠던 그것이  
희천속도라는 시대어로 온 나라를 뚫게 하고  
선군시대 기적과 변의 창조로 될줄  
너는 알았으랴 나는 알았으랴  
우리의 희천시절이 그리도 빛나게 될줄

벗들이여 조국땅 어딜 가나 잊지 말자  
청춘시절은 짧아도  
한생을 불타는 희천시절에 살 때  
후대들에게도 긍지높이 이야기해주리  
선군시대에 땅밑에도 기념비를 세운  
우리의 고귀한 시절에 대해

오, 이밤 작별의 축사는 없어도 좋다  
어디서나 우린 만나리  
저 별들이 조국하늘에 영원하듯이  
강성국가를 떠올리는 땅밑의 만년성새와 더불어  
우리의 희천시절은 영원히 가지 않으리

어제날 그랬던 《작별》이란 그림대신 《상봉》이라는 불굴의 군상이 눈앞에 연필화화폭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런 인민을 심장에 안고사는 한, 하늘과 바다, 땅 그 모든것을 인민의 재부, 인민의 생명으로 여길줄 아는 우리 병사들이 정의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잡고있는 한 내 조국은 언제나 끄떡없을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내가 심장으로 체득한 진리였습니다.

어머니!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섬을 더욱 난공불락의 요새로,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해 분발하여 일떠섰습니다. 원썬들이 보란듯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섬은 기필

코 온갖 행복이 차넘치는 땅으로 변모되고야말것입니다. 그래야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대렬에 우리도 몇몇이 들어설게 아닙니까.

이 편지를 쓰는 포진지 저앞 섬기슭에는 오늘도 《참대》 숲이 설레입니다. 거기서 갈을 베는 군인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이제 봄이 오면 활력에 넘친 그 뿌리들마다에서 푸른 줄기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를것입니다.

그럼 장군님의 병사, 조국의 병사, 인민의 병사로 더욱 몰라보게 성장할 이 아들의 다음소식도 또 기다려주십시오.

아들 독고남 올림



림 봉 철

1

2

전승철 아침이었다.

시원한 모시적삼에 등나무지팡이를 짚은 한 로인이 벌써 몇바퀴째 련광정 주변을 돌고있었다. 북쪽기둥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구멍이 성글 성글한 초물모자를 벗어들었는데 희다못해 파르스름해보이는 머리칼들이 강바람에 서서히 일어섰다. 천천히 대돌앞으로 다가간 로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어루쓸어보았다.

차갑고 투들투들한 그 주추돌우에 꿈틀쳐간 포연의 흔적이 채 가셔지지 않았던 1953년 여름, 그는 바로 여기에다가 승리한 전사의 첫 서신을 남겼었다.

《내가 왔다, 하나 반!》

이즈음 그는 자기의 기억력이 점차 삭막해지는 것을 느끼고있었다. 그것은 잉크로 쓴 글우에 물을 뿌려놓았을 때와 같이 점차 희석되고 분해되면서 어떤 알수 없는 커다란 얼룩으로 변해가고 있는것 같았다. 그러자 불현듯 자기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조국해방전쟁시기 함께 싸운 전우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서도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있는데 자기 전우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영화의 주인공들중 누구도 그가 알고있는 전우들과 비슷하지 않았던 것이다.

《팔백열하나... 팔백열둘...》하고 로인은 지금 입속으로 가만히 셈을 세고있었다.

《사천백열셋... 사천백열넷...》

혹 반정신을 잃은건 아닌가?

흔들어 일깨워주어야 하지 않을까?

가렬처절한 전쟁이 엮어놓은 각이한 인간들의 운명의 곡절인양 구불구불한 등나무줄기가 타래치며 뻗어오른 느리나무밑등에 기대앉은 위장복차림의 어린 병사가 하염없이 셈을 세고있었다. 기관단총을 목에 걸고 흙투성이의 두다리를 눈판우에 쭉 퍼더버린채 다시는 일어서지 않을듯 주저앉은 그의 왼쪽관자노리로부터 몇가닥 말라붙은 피자육이 퍼릿한 뺨에서 킁킁히 죽어가고있었다.

《사천팔백십구... 사천팔백십십...》

혼나간 부름과도 같은 저 목소리에 정녕 열물을 줄이는 생사결단의 판가름이라도 실려있단 말인가?!...

그랬다. 저기 바라보이는 구원과 희망이라는 피타는 두 의미가 서로 얹힌 적십자표식을 단 야전천막속에서 치명상을 당한 그의 지휘관이 수술을 받고있었다.

...열두시간전 그들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적후종심 43키로미터지점의 도로구간에서 몇시간째 잠복을 하고있었다.

《불난 절간에 부처님행차를 기다리는게 아니여?》 하고 웬 폴뿌리를 질경질경 씹고있던 리우림이 증이 나서 툄들거리자 그와 늘 장훈, 명훈을 닮는 지원갑이 마침 지부렁거릴게 생겼다는듯 노근노근한 목소리로 그를 건드렸다.

《우림동지, 런애라는걸 좀 해봤어요?》

《똥판지같이...》

《하니까 기다리는 재미를 알락 있나요.》

그때 도로 맞은편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맞받아 한까박 붙이려던 리우림이 입을 다물고말았다. 그 소리는 조를 책임진 경찰 소대장이 엄지손가락과 세번째 손가락을 맞닿겨서 내는 호출신호였다. 인남이라고 막내병사가 제껴 머리를 쳐들었다.

소대장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서리서리한 풀딩쿨을 소복이 덮고있는 눈더미우로 그의 손이 불쑥 솟아올랐다. 하나, 둘, 셋 손가락을 꼽더니 다시 주먹을 꼭 틀어쥐고 두세번 힘있게 흔들려준다.

아하, 저건 인남이더러 또 요술셈을 세라는 소리다. 그것은 어딘가 장난기가 어린, 기다리는것을 제일 힘들어하는 이들 경찰병들끼리만 통하는 랑만적인 약속이었다.

즉 어떤 판단키 어려운 일이라도 인남이가 일단 《이제 셋까지(혹은 그 썩 이상일수도 있다.) 세면...》 하고 시한부를 찍고 세기 시작하면 정말 꼭 그렇게 맞춰진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새 적정자료를 얻기 위해 적후로 들어오던 날도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무런 적탄이 쏟아지는 전선구간을 배필이로 넘나들던 때의 숨막히는 긴장과 번열에 비기랴만 바야흐로 전투명령을 기다리며 흥심없이 배낭을 뒤적거린다거나 장기관을 딱딱 두드리고 술빠진 면도솔로 거품을 부격거리는 이런 초조하고 불안스러운 시간에만은 도대체 익숙해질수가 없는 것이었다.

《아아, 그놈 〈상〉은 어데 있던 흥두깨야?》

《륙전대지요.》

《제길할. 딱 한번만 물리세나, 응?》

《그러니 우림동진 〈포〉를 세개 갖구 두는셈이야요.》

등딩등딩 기타소리도 들려왔다. 허나 땡땡하게 켜기운 모두의 신경은 줄곧 통나무탁우에 놓인 전화통에만 가닿아있었다.

어디서 얻어온 통신선으로 끊어진 기타줄을 맨답시고 갱깅거리던 인남이 종시 감질거려 참을수가 없는듯 화닥닥 일어나더니 옷주머니에서 수놓이를 한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들고 팬스페 전화통을 열심히 쓸고 닦는 것이었다.

《우리 〈하나 반〉이 발 재린 새색시처럼 되젠 안절부절 못하누만.》

《ս총각이 등 굽어주니 그놈 홀아비 꽤 좋겠어.》

《흐허허...》

원래 경찰병들의 병실에는 새까만 신식전화기가 짝을 맞춰있었다. 하나는 재진격때 부대장으로부터 집단적전투위훈의 표창으로 수여받은

것이고 다른것은 얼마전에 적 포런대지휘부를 끌격하고 로획해온 전리품이었다. 그것을 먼저 쓰던 전화통옆에 나란히 놓아줄 때 모두가 과년한 로총각에게 미인을 붙여주었다고 들썩했었다.

그런데 하루는(예방접종을 하는 날이었다.) 올적마다 늘 실컷 웃고 가지 않으면 울고 가던 낮익은 단발머리간호원 대신 얼음장같이 차갑고 딱딱하기로 소문난, 병사들속에서 《수술칼》로 불리우는 녀군의가 나타났다. 그는 범의 수염만큼이나 뻗뻗해서 구는 경찰소대 찢통군들을 어떻게 만문하게 주물러놓는가를 보라는듯이 도고하고 오연한 자세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소대장부터가 전기에 감전된듯 가볍게 웃을 때마다 뺨뺨이 살짝 드러나는 녀군의앞에서 움썅달썅을 못하는 것이었다. 입심이센 지원갑이조차 소대장의 모양새에 덩달아 기가 폭 늘리워서 찌르면 찌르는데로, 부르면 부르는데로 곰상긋게 끌려다녔다.

전화기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날 고드름같은 녀군의가 어떻게나 탐을 내고 소대장을 구슬렸던지 종내 귀쪽을 훌훌 매만지며 앓기우고야말았다.

뒤늦게야 그들은 녀군의가 경찰병들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모범이나 보이자고 온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화기를 목적하고 온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하튼 그가 일단 들어온 재산은 앙큼하게 판리하기로 소문난 경찰병들의 병실에서 그것도 놓은지 얼마 안되는 전화기를 빗 받아가듯 훌갑게 들어간 때로부터 주위에서는 별별 흥클한 통지거리들이 다 돌아갔다. 애초에 그 녀군의를 오라 한것이 소대장이라느니, 이제 사단군의소의 녀성병실과 경찰병들의 베개머리말에 직통전화를 놓게 될거라느니...

《그게 정말일가요?》

《뭘?》

《우리 소대장동지가 녀군의를 오라 했다는 거...》

《예끼, 이 바보같은니!》

이렇게 인남이는 오가는 미적지근한 소문에 귀박죽이 축축해서 물어보았다가 원갑이에게서 손가락딱총을 한방 얻어맞았다. 그후 외토리가 된 전화기는 《홀아비》로 불리웠다.

인남이가 손수건을 집어넣으며 누구에게라없이 투덜대듯 내뱉었다.

《첿, 누가 모를줄 알아요? 다들 속은 뻥해가지구 괜히 나보구만...》

핫하하... 다시 반토굴이 무너질듯 웃어댔다.

《이제 내가 셋까지 세면...》 하고 인남이 말했다.

《따라락 신호가 걸려오는걸 보라고. 하나… 하나 반…》

《또 반이야?》

《전략적예비대지.》

《히히…》

《셋!》

정말 그 순간에 탁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도록 요란한 신호소리가 울렸다. 인남은 너무 놀라서 뒤로 벌렁 나자빠지기까지 했다.

신호는 재확인을 시키려는듯 길게 다시한번 울렸다. 우와— 환성이 터져올랐다. 현대 불탄 나무들을 도끼로 대충 다듬어 무은 긴 결상우에서 화닥닥 뛰쳐일어나 송수화기를 들었던 소대장이 도간도간 되받아내는 소리가 전혀 생설은것이였다.

《…그렇습니다. 예? 사진이요?!… 예예, 어디?…》

송수화기를 내려놓자 그는 매출한 턱언저리를 제법 맛스럽게 쓸어보며 잔뜩 궁금증을 모았다가 《아버지들은 손을 드시오.》 하고 좀 눌러서 말을 했다.

여적 장기쪽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상등병 리우림이가 영문을 알수없어 손을 무겁게 주춤주춤 쳐들어올렸다.

《뭐 놀랄건 없소. 좋은 일이니까!》 하고 일단 안심시킨 소대장이 곧 설명을 하려는데 지원갑의 손이 슬그머니 튼끼여드는것이 보였다.

《동문 뭐 약혼식날에 군대에 나왔더냐?》

《그밤중으로 얹어말이를 했으니까 이쪽두 저쪽두 다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아, 앞으로 넣든 뒤로 넣든 순대야 순대지요!》

《허허허…》

무슨 좋은 일이 있다니까 궁금해서 우선은 그속에 제 성함도 끼워넣고본다는 과연 전쟁전의 자재창고원다운 욕심이다.

《참모부지시요. 래일 오전 여덟시까지 아버지병사들을 사단에 올려보낼것, 설을 맞으면서 사진들을 찍어 고향에 보내준다는만. 축하합니다, 우림동무!》

그러자 뜻밖의 경사와 축하를 한꺼번에 받게 된 리우림이 어색했던지 크다란 엄치를 힘들게 쳐들면서 찌력찌력 박수를 치는 사람들에게 김빠진 웃음을 지어보였다. 원래 공병출신의 지뢰전문가였던 리우림이 정찰병들의 새로운 통로개척을 도와준것이 기회로 되어 아예 소속을 옮겨온것은 불과 보름전의 일이었다.

위낙 덩지가 큰데다가 말이 없어 속이 십리나 되게 깊어보이는 그와 여적 아기자기한 통성을 할새도 없었던지라 마침이라며 모두들 입을 모아서 끝내는 리우림이를 똥기쳐내고야말았다.

어디 장가는 애기나 해보라고 고부며 주전자며 장기판까지 손에 닿는대로 두드려대는 응원소리에 쫓기운듯 꿈 일어난 우림은 건어붙였던 소매를 내리워 단추까지 꼭꼭 구멍에 박아넣고서야 소대원들앞에 나섰다.

《내 그럼 옛말이나 한마디 하지요.》

《저런, 새빠지게스리 옛말은 또 뭐야?》

툭 빠져져오르던 지원갑의 머리가 소대장의 묵직한 손에 눌리워 다시 주저앉고말았다.

그새 침착하게 주먹기침까지 켜켜 긁고난 리우림이 쿨쿨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매돌을 굴리는 노새엄마가 살았대우. 일은 고되었지요. 물 한모금, 귀밀한즙을 북데기속에서 털어먹고는 진종일 목이 빠지게 매돌을 굴려야 했으니까.》

한바퀴, 두바퀴… 지지리도 늙고 여위여가는 속에 일투의 락일지라면 밀짚더미우에서 투레투레 굴리며 자라는 귀염둥이 새끼뿐이었지요. 그것이 조금 철이 들었다고 힘부친 어미의 궁둥이를 툭툭 떠받치며 저도 무얼 힘보탬을 하노라 쫓아다닐쥌 되니 엄마는 성을 내면서 매돌결엔 얼씬도 못하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날 주인놈이 나타나 그 늙은 병다리엄마 대신에 뼈무른 새끼에게 멍에를 넘겨쳐우지 않았겠소. 이제는 엄마가 편해졌구나, 더는더는 힘들지 않게 됐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어린것은 또 각또각 열심히도 일했대우.》

한데 어미가 정말 편해졌겠소? 정작 일을 놓자 아흐레만에 엄마는 죽었대우. 새끼가 놀던 그 밀짚더미우에서 멍에쓴 어린것을 지켜보며 으어으어 울다가 영영 숨이 졌대우. …》

홀쩍 코물을 들이키는 리우림의 눈시울은 별걸게 달아오르고있었다.

《…내가 바로 그 노새새끼였수다! 매돌밑에 지리눌리워 피를 다 말리우구… 하고도 코를 꺾여 무지렁이같이 살았으니. 어디 말들 해보우. 사람이라니 사람인가부다 했지 우리가 해방전에야 언제 사람인적 있었수? 해방이 돼서야 나같은 인생에도 사람값이 매겨집디다. 덩실한 기와집에 땅이 없나, 소가 없나. 글썄 땅을 받아 첫해농사를 짓고서는 말이여, 동산만 한 짚더미우에 마누라까지 척 끼고 올라가 이마에 닿은 보름달을 쟁쟁 두드리며 춤을 추다못해 아예 하루밤을 자고 내려왔었지요. 헛헛헛헛… 정말이지 꿈만 같은 세월이었지요. 오죽하면…》

하고는 웃웃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더니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갈피를 뒤적이는데 문득 《예쿠!》 소리와 함께 손바닥만 한 종이가 나

불거리며 리우림의 발치에 떨어졌다.

《아니, 그게 사진이 아니요?》

《예, 전쟁전에 찍은건데...》하면서 허리를 편 리우림은 주어진 사진을 가슴노리에 대고 뒤번 문대긴 다음에야 소대장에게 먼저 내밀어보였다.

《이 사람이 그... 내 마누라인데... 코흘리개때부터 꼭지주집 애기머슴을 살았다우. 해방이 돼서 사람좋은 우리 면당위원장이 이 큰머슴과 아이보개를 나란히 앉혀놓고 성례를 치러주었지요.》

몇사람의 손을 거쳐온 사진을 눈이 달아 들여다보던 지원갑이 시샘이 나는듯 허를 내밀었다.

《부처간이 확실한가? 원, 이걸 보구서야 누가 끝이 믿겠습니까!》

《말마따나 이 사람이 나와는 십년터울이라우.》

《저런! 홀아비 호박밭에 들어가면 애호박부터 판다더니...》

누군가 쟁싸게 따붙이는 말에 폭소가 터져올랐다. 얼마나 혼절을 하게 웃어댔던지 지원갑이는 그러지 않아도 작은 두눈이 아예 없어져보였다.

소대장이 시치미를 뻑 따고 싱글거리며 서있는 리우림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헌데... 이 사진뒤에 써있는건 뭐요?》

《예, 전에 공병친구들이랑 우리 애녀석 이름자를 좀 지어본건데...》

《이름을?! 아니, 애가 몇살이게 여적 이름을 짓는 소리요?》

리우림은 어쭙은 웃음을 지으며 두툼한 손바닥으로 벌겉게 달아오른 뒤통수를 썩썩 쓸었다.

《글쎄 뭐가 부실한지 여태 매련을 못 보다가 지난해 가을 집앞에 폭탄이 떨어지던 날에야 난산을 했다던지... 허허. 그런데 소식을 뒤늦게야 반다나니...》

《그럼 아직 아이에게 이름도 못 지어줬단 말이에요? 정말 한심하구만, 아버지라는게. ... 그래, 아들이요, 딸이요?》

《글쎄 뭘지 하나 달고 나오긴 했다는데...》

또다시 와— 웃음판이 터지고 리우림은 썩 황소웃음을 소리없이 지었다.

달아오르기 잘하는 정찰병들인지라 인츰 표창사진도 찍겠다, 검사해서 이번 편지에는 애의 이름을 눌러보내자며 떠들썩했다. 그런 가위에 벌떡 일어난 원갑이는 공병친구들이 펄펄하다니, 우리 경찰의 숨씨를 보이자느니 하며 주먹까지 흔들었다.

소대장은 어느새 만년필을 꺼내들었고 주위의 전사들까지 툭툭 치며 《쓰오, 쓰오.》하고 성화를 먹이자 하는수없이 리우림은 군복주머니에서 아까 그 사진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럼 여기다 잇달아 쓰지우.》

《이게 공짜가 아니요.》

《암요, 평양 련광정이 옛적부터 유명했다던데 미국놈들을 본때있게 족치고 리우림댁 장남잔치도 올려보자꾸나. 전승열병식이 끝나면 내 거기서 크게 차리리다!》

당장에 이름짓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남들이 한 개를 낼 사이에 두개, 세개씩 연방 불러대던 지원갑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죽지가 뿔아지게 팔을 쳐들며 언권을 요구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인즉은 지원갑, 자기에게도 모두들 이름을 지어 바치라는 것이었다. 거기선 또 웬 이름타령이나 하니까 전쟁바람에 사정이 여사여사해졌으니만큼 자격을 따지면 저도 당당히 한몫 따야겠다는 것이다.

《원, 욕심두 배에 챙길만큼 부려야지. 꼬투린지 뭇지 아직 낱지도 않은 애 이름을 어떻게 짓는다고 그래?》

《그러길래 각이한 정황을 다 고려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매 사람이 두개씩만 내놓으시라요.》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고 지원갑의 떼거지에 두 손을 쳐든 리우림이 하는수없이 이름을 받아쓰던 그 사진뒤면의 공백을 절반 쪽 가르고는 《옛다, 지원갑이 종자두 다 받아주자꾸나.》하고 꺾꺾 웃어댔다.

이렇게 지은 이름들이 사진뒤면을 거의다 채우게 됐을 때 기다리던 전투명령은 전화가 아니라 구두로 전달되어왔다. 금시까지 뒤설령이던 정찰병들의 병실에는 삼시에 정숙이 깃들었다. 출발준비를 갖춘 그들은 관례대로 병실앞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물통으로 돌려 마시었다.

멀리서 빨아 넣었던 봉대머를 거두어들이던 간호원들이 바람에 너울거리는 백포자락뒤에서 빠금 빠금 머리를 내밀고 떠나가는 그들의 길지 않은 종대를 말없이 바래우고있었다. ...

매복은 성공하였다. 큼직한 《혀》를 사로잡은 그들이 시오리가랑 달렸을 때부터 총소리가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목구멍을 태우는 겨울내, 총탄이 튀어오르던 자갈밭, 저도 아버지축에 속하노라고 손을 쳐들던 그 웃음많은 지원갑이와 또 한명의 전우를 고이 덮어놓은 눈무지...

얼마후에는 후위를 섰던 리우림이마저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허리부러진 떡갈나무가 이곳을 기억하라는듯 유묘하게 서있는 외통길에서 총구를 땅에 박으며 물큰 주저앉고말았다. 동시에 소대장과 인남이도 멎어섰다.

리우림은 손더듬으로 나머질탄창과 수류탄들을 찾아 눈판우에 나란히 꺼내놓았다. 그리고는

뜨끈한 아래목에 몸을 지지듯 반듯이 드러누워서 자꾸만 입귀를 찢듯거리며 웃고있었다.

인남이 그앞에 꿇어앉았다.

《…참 좋은 이름이야. 수호라구 자네가 지은 그 이름 말이야. 내 이제 이기고 돌아가면… 그 땐 말이지. 아들딸 줄줄이 낳구 자네들이 지은 그 이름들을 다 달아주겠어.》

《꼭 돌아와야 해요!》

《그래, 가잖구.》

그 대답을 굳게 확신시키려는듯 우림이 고개를 끄덕이자 머리맡에 다져졌던 눈이 빠드득빠드득 소리를 냈다.

《…임자 아버지가 배군이였다지. 아버지… 바다에서 죽은줄도 모르구… 기다리며 긴 쉼을 세느라 그래 불은 버릇이 〈하나 반〉이라구 원갑이가 그러네. 인남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도 쉼을 세주겠나?》

《아바이!…》

이렇게 리우림은 홀로 남았다. 거기서 그가 얼마나 많은 적들을 막아섰으며 총탄은 얼마나 날리었고 마지막수류탄은 어떻게 터쳤는지, 그 순간 벌떡 일어서며 무엇을 웨치었고 그것이 어느때 몇시쯤의 일이었는가를 누구도 알수 없었다.

떡갈나무… 떡갈나무… 거기 서있던 그 떡갈나무만이 보았으리라.

추격이 불가능해지자 적들은 그들의 전진로상에 무차별적인 면적사격을 퍼부어댔다. 이미 피칠갑이 된 《혀》를 둘러메고 앞장에 섰던 소대장도 그만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숨져가는 그 두 생명을 이끌고 끝끝내 전선을 넘어왔을 때 인남의 물골은 전혀 사람같지 않았다. 웃는것도 우는것도 노하는것도 다 잊어버린듯 한 이 새파란 정찰병은 보고를 하자 즉시 쓰러질것만 같았으나 그냥 버티고앉아 지금껏 쉼을 세고있는 것이었다. …

《오천공아흔둘, 오천공아흔…셋…》

허끝까지도 불이 일게 말라버렸다. 그래도 세고있었다.

《오천백구십오, 오천백구십륙…》

그 순간 수술장 천막나들이가 번쩍 갈라지더니 땀투성이의 간호원이 한발 먼저 달려나왔다. 그가 젖혀준 통로를 따라 한 사나이가 담가에 들려나왔다.

덮칠듯 달려갔던 인남의 입에서는 《악!》하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참으로 깨끗하고 창백한 천 한폭이 사나이의 얼굴을 고이 덮고있었던것이다.

별안간 인남의 눈동자에서 병긋 일어난 불길

휘발유를 뿌린듯 삼시에 퍼져나갔다. 그 펄펄이는 불길이 초점으로 모아져 이제 저 천막까지도 순간에 재개비로 날려버릴듯… 그 불도가니속으로 위생복을 걸친 녀군의가 걸어나왔다.

《소대장동지!…》

전사의 몸부림은 처절했다. 그런데… 마스크로 가리워진 녀군의의 얼굴에서는 분명 눈물이 흐르고있지 않는가! 그 눈물이 모든것을 다 말해주고있었다.

《수술은 끝났으나… 그는… 그는…》

녀군은 자기의 말을 마무리할수 없었다. 지금껏 서있었던 것이 전혀 거짓인듯 동공이 쫓쫓해진 전사가 스르르 주저앉고말았던것이다. …

### 3

《할아버지!—》

애되교 귀엽스러운 아이의 목소리가 련광정앞에 또랑히 울리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추억속으로 침없이 파고들고있던 로인은 머리를 돌리며 눈가에 가득 주름살을 그리었다. 무릎을 꿇고 《수호야, 어디 이리온!》하고 손을 내밀자 어머니인듯 늘씬한 녀인의 흰 치마자락에서 떨어져나온 아이가 넘어질듯 헤엄비며 달려왔다.

《넘어지겠다, 천천히. …》

와락 품에 안겨드는 어린것을 불안고 좀 힘들게 일어서는 로인을 쳐다보고있던 젊은 녀인이 조심스런 걸음새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힘드실라. 수호야, 엄마 손.》

《일없다. 아직 뭐 겁석한 녀석어…》

《그런게 아니라 할아버님이 늦어질가봐서 애아버지네 학교에서 몇번이나 전화가 왔댔어요. 그래 빨리 아침을 드시자구요.》

《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로인은 오늘 다른 몇몇 로병들과 함께 막내사위가 소년단지도원으로 있는 학교에 나가 상봉모임을 하게 되어있었다. 그냥 물어도는 손자의 손목을 잡고 끌리워가듯 걸고있는 동안에도 로인은 등나무가 서있던 사단군의소 끝까지와 그날의 싸늘한 수술천막을 잊지 못해 중얼거렸다.

《그 녀군의를 만나보았으면… 혹시 어디엔가 살아있지 않을까?…》

### 4

그 옛 녀군의를 여기에 잠들어있었다.

바로 그날, 전승절의 아침 그의 묘앞에도 한송

이 붉은 꽃이 놓여있었다. 그 꽃을 놓아드린 장년의 사나이가 점차 퍼져오는 해살에 몸을 맡기고 묵묵히 서있었다. 가을이면 빨간 아가위나무열매가 주렁지고 린접군지경으로 뻗어나간 도로들을 양쪽에 불안은 도톰한 산자드락이었다.

성의있게 다듬어 박은 화강석비둘에는 그것이 합장묘임을 말해주는 두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있었다.

뒤에는 리종초라고 묘주의 이름을 새겨넣은 바로 이곳에 그를 키워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들어 있었다.

해뜰무렵 함께 왔던 두 조카애들은 (그의 녀동생의 쌍둥이자식이였다.) 오늘 군문화회관에서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하는 웅변모임을 준비하려고 한발 먼저 내려갔다. 제 어미를 닮아서 성미가 터쳐놓은 물끓갈은 둘째녀석이 첫 출연을 하게 된 웅변모임뒤끝에는 읍내 학생들이 준비한 전시가요 공연도 있다고 한다. 이제 자기도 그 모임에 참가해서 씩씩하게 출연을 마친 조카녀석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줄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흐뭇했다.

그는 면직반소매셔츠를 벗어 가까이 풀섶에 누여놓은 다음 며칠전 기를 쓰고 내리던 독비에 조금 씻겨져나간 두덩들을 알뜰히 손질해놓고 돌아앉아 한대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여기 울적마다 그러하듯이 멀리 아득히 흘러가버린 옛 시절을 돌이켜보았다. 그것은 항상 뒤집에 살던 인돌이에게 고무총을 주고 바꾸어왔던 커다란 포탄깍지로부터 시작되군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고 저물령마루에서 이들이 멀다하게 아무개가 돌아와요— 하고 울리던 소리도 뜨옴해지도록 그의 아버지만은 돌아오지 않았다. 폭격속에 떠나간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해줄 육친의 정이 그렇게도 그리웠건만 개구리가 덤벼거리던 폭탄구멍이들도 다 메워지고 달래 캐는 계집애들의 노래소리가 새로 닦는 집터에 울려올 때에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래 때없이 치마폭에 매여달리며 우리 아버지는 언제 오냐고 못나게 졸라댈 때마다 할머니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군 하였다.

《네 아버지는— 천밤을 자고 온단다.》

《천밤은 백밤보다두 많은거나?》

《그래, 백밤씩 열번이 지나면 천밤이 되지.》

백밤씩 열번! 그것이 얼마나 긴가 하는것을 그 어린 소년은 도대체 상상해낼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돌이와 바꿈질하여 얻어온 포탄깍지안에 하루한알씩 주어도온 썸세기돌들이 밑굽에 깔렸을 때 아버지는 돌아왔다.

새벽녘 간간이 들려오는 흐느낌소리에 놀라 눈

을 떠보니 웬 낯선 사람이 머리말에 앉아 그의 얼굴에 구멍이라도 뚫을듯 내려다보고있었다. 부엌에 쭈그리고앉은 할머니의 등허리가 이랑을 짓는듯 오르내리는것이 빠끔히 열려진 나들문사이로 내다보였다. 그는 잠을 깼다. 기다린듯 내려다보고있던 사나이가 그를 번쩍 들어서 자기의 무릎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서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들문이 벌컥 열리고 할머니의 전갈지 않은 목소리가 쩡 방안을 흔들었다.

《첫째야!...》

그다음은 따갑게 달아오른 아래목에 후줄근하게 건넌간 그 낯선 사람의 바지가랭이에서 김발이 물물 피여오르는것을 보았다. 색날은 군복바지는 왜서인지 화락하니 젖어있었다.

머리를 푹 수그리는 사나이의 눈가에서 무엇인가 번쩍 하는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저도 모르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지?》 하고 웨쳤다.

허나 별걸게 달아오른 사나이의 눈빛은 아이의 얼굴에서 자기와 비슷한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듯 안타깝게 허둥거릴뿐...

《아버진... 거짓말쟁이야!》

그다음은 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가 소리를 씹어삼키며 흐느껴울었다. 동리에 전기불이 들어오고 주변 시오리에 유일한 벽돌건물로 일떠선 소학교가 개학을 앞두었던 어느 여름날 밤에 있는 일이었다.

이튿날 잠을 깨여보니 할머니와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옷을 벗은채로 맨발바람에 달려나가 보니 비가 올 때마다 즐벌즐벌 물이 고이군 하던 뒤뜰 우묵진 곳을 파체긴 어른들이 샘구멍 들여다보듯 이마를 맞대고 앉아있었다.

붉은석이때 뒤등성이 석비례를 파다가 우묵진 곳을 메우고 땅땅 방치질까지 해대는 할머니에게 물었을적엔 이담 소를 땀 외양간을 지을 자리라던 곳이었다. 그는 굴뚝목에 가만히 물러앉았다.

옷몸을 구멍이속에 쑥 들이밀고 손삽질을 거퍼해대던 아버지가 허리를 펴다가 어망결에 그와 눈이 딱 마주쳤다. 뭔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쿵쿵 뛰는데 뜻밖에 아버지쪽에서는 싱긋 웃으며 어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는것이였다.

구멍이속에는 기름종이로 싸고싸고 형겼을 잔뜩 덮어놓은 귀떨어진 구리종이 놓여있었다. 그것을 집안에 옮겨다놓고 아버지는 꼬박 사흘을 닦고 문대기며 역사질을 했다. 나중에는 제법 번쩍번쩍하며 기세를 돋구는 구리종이 송편작만큼 떨어져나간 흠집만 아니라면 금시 부어낸듯이 보일 때 아버지는 그를 앞세우고 학교로 찾아갔다. 새끼줄로 옷을 해입히듯 칭칭 동여맨 구리종은 아버지가

지계에 얹고 걸었다.

이미 약조가 되어있듯 마중나온 교장선생이며 리당위원장이 아버지와 함께 그 종을 매달아놓은 곳은 새하얀 밤꽃이 한창 가루를 푹푹 날리는 현관앞 밤나무였다.

저렇게 멋진것을 왜 그냥 집에 두지 않고 여기에 내왔을가 하고 그는 줄곧 생각하였다.

누가 먼저 그렇게 불렀는지는 알수 없으나 사람들은 점차 그 밤나무를 가리켜 종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귀떨어진 종에서 울리는 소리는 웅글면서도 어딘가 짜릿한것이 참 듣기가 좋았다.

아직 학교갈 나이에 이르지 못한 아이들이 부러움에 차서 귀를 강굴 때마다 그는 늘 어깨가 으쓱해서 그 종은 우리 집 종이라고 자랑하곤 하였다.

《그게 너네 종이야? 너네 종이야?》

《그럼. 우리 종이지. 나랑 아버지랑 헛둥 메여다가 학교에 달았거든.》

《너네 종이란 어디 한번 쳐봐, 쳐봐. 왜 못 쳐?》

턱이 뽀족해서 따라다니며 알뜰게 노는 인돌이 때문에 끝내는 말다툼이 벌어지고야말았다. 속에서 염소뿔이 돋치기로서니 낮에는 어림도 없는게 고 어슬넝이 되자 그는 어디 보라는듯이 입술을 감쳐물고 학교담을 넘어갔다. 인돌이가 휘둥을 했는지 몇몇 조무래기들까지 종나무결에 모여들었다. 하지만 정작 번뜩거리는 구리종밑에 들어서고 보니 덜미가 오싹해지고 끈을 드리운 종추가 하늘꼭대기에서 데루거리는것 같았다.

《이건 음... 어른들만 치는게지.》

발뒤축을 고여도 손이 닿을것 같지 않아 한켠 다행이라고 중얼중얼하는데 겨드랑이밑으로 인돌이의 반지레한 얼굴이 쑥 빠져져 올라왔다.

《어른들만 쳐? 그럼 너네 아버지는 왜 못 쳐? 해해, 거짓부리.》

더는 할말이 없게 된 그는 너무도 안타깝고 분하던 나머지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나왔다. 울다가 문득 그치고 발부리에서 주먹만 한 돌들을 랑손에 건어쥐었다. 짹짹 놀란 인돌이가 새끼 고양이처럼 내뺄려는것을 붙잡아세우고 조무래기들까지 다 듣게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래, 종을 칠테니 봐라!》

하고는 손에 쥐였던 돌들을 연방 종을 향해 날리었다.

때앙...때앙...

일단 종소리가 울리자 속이 후련하고 한층 승이 나서 손에 잡히는대로 던지고 또 던졌다. 오종종 모여섰던 애들까지 우야- 새때같이 흩어져서 저마끔 팔매질을 해댔다.

땡- 땡- 텅- 텅...

실컷 얻어맞은 구리종이 별의별 우습강스러운 소리를 다 내는데 경비를 서던 할아버지선생이 놀라서 고함을 치며 노루처럼 경중경중 달려나왔다.

하필이면 꼭 그가 덜미를 잡히워 끌려들어가던 찰나에 언제 알았는지 아버지가 나타났다. 편역을 들어줄줄 알았던 아버지는 외려 더 무섭게 그를 노려보다가 술뚜껑같은 손으로 철썩 불기를 갈기였다.

《아이구!》

《덜된 녀석 같으니! 어따 대고 돌팔매냐, 응? 어디다 대구...》

《인돌이가 우리 종이 아니라구... 거짓부리라고 자꾸만 놀려줘서...》

《뭇가 아니야, 우리 종이 옳다. 내 종, 네 종이 아니라 우리네 모두의 종이란 말이다!》

그날 얻어맞은 불기를 쓰다듬어주며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중초야, 저건 그저 종이 아니라 네 이름이다.》

귀떨어진 종이 내 이름이라구?!

어린 그로서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의문을 남긴채 세월은 흘러서 이듬해 가을, 그는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일하는 영예군인공장 가까이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조촐한 이사집이 실린 달구지를 따라 동구밖 칠팔리길을 그냥그냥 좇아오던 인돌이가 눈물이 그렇그렇해서 《잘가. ...》 하고는 그자리에 폴짝 주저앉았다. 길가에 박힌 조약돌처럼 점점 멀어져가는 인돌이를 바라보며 작별의 서러움에 엉엉 울던 그 철부지 어린 소년에게 운동화를 신겨주고 책가방을 메워주며 생활은 내물처럼 거침없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버지는 갑자기 전쟁때 입은 상처가 도쳐서 군병원을 거쳐 도에 후송되었다. 그덕에 난생처음 기차를 타고 할머니와 함께 면회를 가게 된 그는 아버지의 입원치로라는것이 어찌면 재미나게까지 생각되었다.

지금도 그는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한창 개나리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였는데 아버지는 웬 덧쟁이 젊은 녀인이 밀어주는 삼륜차에 앉아 병원마당의 공원을 돌고있었다. 할머니의 손에서 풀려난 그가 아버지를 알아보고 새끼염소처럼 막 짹충짹충 뛰어갔을 때 성성하고 억세인 두팔이 숨막히도록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렇게 한동안이 지나자 아버지는 그 녀인을 돌아보며 《이 애요.》 하고 말했다. 그 말은 참 이상하게 들려왔다. 갓 돌아나기 시작한 잔디우에 천천히 무릎을 꿇어 대인 그 녀자는 그의 얼굴을 뽀아질듯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파들파들 떨리는



입새로 간신히 내뿜었다.

《네가, 그러니 네가...》

바로 그 녀인이 후날 퇴원하는 아버지를 따라 그의 집으로 왔다. 그것도 아주, 영원히...

세월이 흘렀다.

자동차사업소에서 일하던 그는 어느해인가 새로 일떠선 로동자휴양소에 첫 입소생으로 갔다가 마음착한 장공장처녀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생활은 즐거웠다. 울밑따라 분꽃이 피어나던 그의 집에서는 밤마다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아버지가 손수 만든 참대단소에 맞추어 부르는 새 어머니의 노래소리는 라디오에서 울려나오는것보다 결코 못하지 않게 생각되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참 아름다웠다. 아마도 어머니의 가슴속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몇개의 줄이 매여있는것 같았다.

복도 쌍쌍이라 이듬해 가을에는 새집들이를 한 경사에 짝을 지어 그에게 귀여운 딸애가 태어났다.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

머리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라면서 철이 들 때까지도 그냥 《첫째야!》 하고 불리우던 그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온 다음에야 그는 《리종초》라고 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헌데 왜서인지 그 이름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몇해후 녀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 애한테만은 제발 《중》자나 《초》자 돌림을 하지 말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 속내를 알았던지 아버지는 그 애에게 복숙이라고 듣기에도 족한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때부터 그는 《복숙이 오빠》라고 불리울수 있어 참 좋았다. 자라서도 가까운 친구들은 그를 그냥 《복숙이 오빠》라고 불려주었다.

어느 휴식날이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집에 모여앉아 딸애의 이름을 짓느라 법석이고있었다. 군체육구락부(당시)에 다니는 복숙이까지 판에 끼워 제가 주심을 서겠노라 야단을 치는데 문이 찌긔 열리더니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섰다.

《똥틀 하느라고 그러느냐?》

《딸애의 이름을 지어보됐습니다.》

《이름을?!...》

되받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듯 했다.

《그건... 이름은 말이다. 내 생각해둔게 있는데... 이복이라고 하는게 어떠냐?》

《?!...》

《그렇게 하자.》

이복이... 그 낯선 말마디는 이제껏 골라본, 그의 머리속에 가득차있던 온갖 아름다운 말마디들을 말끔히 지워버리는듯싶었다.

그가 어리둥절해 서있는 사이에 아버지의 모습은 문밖으로 사라지고말았다. 그때 아버지가 지어놓고 간 어떤지 입에 선 이름을 몇번이나 입속에 불러보며 이상한듯 머리를 기웃거리던 복숙이... 그 애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까?...

## 5

원산 시내 중심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인민군렬사탑이 서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곳을 남산렬사탑이라고 불렀다. 명사십리 모래불에 쓰러졌던 해안포병들과 나팔산의 용사들, 수많은 유명무명의 전사들이 여기에 묻혀있었다.

해마다 전승절이 오면 의례히 그러했지만 오늘도 여기 려사탑의 아득히 뻗어오른 수백개의 화강석계단은 줄지어 오르고내리는 사람들로 하여 설레고있었다. 애젊은 청년들과 머리흰 로병들, 두손으로 받쳐든 꽃다발우에 땀기인양 넥타이를 드리우고 선 아이들도 있었다.

이들속에 류달리 눈길을 끄는 붉은 체육복차림의 선수들을 이끌고 서있는것은 바로 복숙이었다. 여기 동해지구에서 진행되는 탁구경기에 팀의 감독으로 참가한 그는 고향에 있을 때처럼 류다른 감정으로 이날을 맞이하였다.

동틀녘 그는 장덕섬방파제를 따라 홀로 바다가를 거닐었다. 끝없이 밀려오고 부서지는 물결우에 크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라던대로 첫 손녀의 이름을 이복이라고 박아넣은 출생증을 받아들고 눈물 흘리며 웃음짓던 잊지 못할 모습이였다.

하얀 파도가 지나간 모래불에 이번에는 얼굴이 벽돌같이 달아올랐던 오빠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것은 친구들과 함께 이름을 지어보던 그날 문턱을 넘어 되돌아서는 아버지의 뒤모습을 망연히 바라보던 모습이였다.

그때... 아버지는 잠시 멈추어섰으나 뒤돌아보지 않고 곧 방을 나갔었지.

며칠후 내가 오래동안 이동훈편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오빠와 나를 치료중의 료양소로 불렀다.

나는 오빠의 차를 타고 그곳에 갔었다.

쿵쿵쿵쿵 계단을 두개씩 뚫아올라간 내가 예쁘장한 처녀간호원이 《췌, 조용히!》 하고 입가에 손가락을 곧추 세워댄 그림결에서 《오빠 굶뵈이라니까, 차도 여태 그렇게 몰았겠지.》 하고 눈을 흘길 때 오빠는 마침내 꺼꺼꺼 웃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지. 내가 다 놀라울 정도로 시름이 폭 놓인 웃음소리였다.

아버지는 그때 침대머리에 이불을 고이고 반쯤 기대여 앉아있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나라났을 때 손에 들고있던 아버지의 차잔에서 팔라랑 팔라랑 하고 숟가락이 떨어졌다. 가느스름한 눈가에 급히 몇 가닥의 주름이 잡히더니 넘실거리는 미소와 함께 물이랑처럼 소리없이 얼굴밖으로 퍼져나갔다.

《아버지!》

《어이구, 우리 복숙이가 왔구나! 응, 네 오빠도 오구…》

아직은 아무개의 아버지라 부를수 없는 오빠를 두고 아버지는 그저 《네 오빠》라고 불렀다.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된 나는 지금 영양제 공급량은 어떻게 새 감독의 요구수준은 어떻게 하면서 그냥 실새없이 조알거리는데 오빠가 걸터앉은 맞은편 침대쪽에서는 과일 깎는 소리만 서걱서걱 들려왔다.

그러는 오빠를 찬찬히 바라보고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첫째야!》 하고 불렀다. 그 말이 오빠를 와들 놀라게 하였다. 맨발바람에 몽당바지를 입고 재개비속에서 뛰어놀던 시절과 함께 이미 가버린 가싶던 그 류다른 부름이 생생한 주사바늘처럼 오빠의 마음을 찌르고들었던것이다.

아버지는 오른쪽침대머리에 바투 붙여놓았던 사물함을 열고 누르끼레한 편지봉투 같은것을 꺼내 들었다. 퍼그나 오래전의것으로 보이는 그 봉투속에는 알수 없는 한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퇴색한 사진을 이윽도록 들여다보던 아버지가 그것을 뒤집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무질서하게 써여져있었다. 흑간 색연필로 그은 동그라미속에 들어있는 이름들도 있었다.

《읽어라.》

오빠의 손이 가늘게 떨리었다.

열서너번째쯤 되었을가. 《리…》 하고 첫 글자의 성을 뺀던 오빠의 목소리가 불에 덴듯 흠칫 입안으로 사그러들었다. 《리…》 하고 다시 불렀으나 종시 말을 잇지 못하였다.

《왜 멈췄느냐? 어서 읽어라.》

《여긴… 어떻게 제 이름이…》

《읽어라.》

《리… 종초.》

거기엔 내 이름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정확히 새겨들었다.

뿐만아니라 나와 오빠의 이름이 써여진 거기에 새빨간 동그라미가 진하게 그여져있는것을 보았다. 뒤따라 이복이라고 아버지가 첫 손녀에게 지어준 그 이름도 불리워나왔다.

속이 떨려왔다. 몹시도 떨렸다. 마치도 천수 백년세월 뽕뽕 묻혀있던 고분을 뚜저내자 거기서

발견된 벽화속에 바로 내 얼굴이 그려져있었던것만 큼이나 놀라왔다. 눈앞의 광경이 물소랭이에 얼추 비쳐진 그림자처럼 자꾸만 흔들거렸다.

《사람은…》 하고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정에 묻혀 산다지. 그래, 그 말이 옳다.

이제는, 이제는 했다가도 이 아버지의 팔을 한가닥씩 베고 이부자리속에서 췌근췌근 잠자는 너희들의 모습을 자꾸자꾸 내려다보느라면 어디 말이 떨어지더라구. 그래 너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것 같아… 그래서… 미루어온것이… 오늘까지…》

동강동강 토막쳐나오는 그 말의 뜻을 나는 도대체 리해할수가 없었다. 입술이 몹시 말라들어 툭툭 터갈라지는 소리가 들릴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잠시 마음을 다잡는듯 이불에 등을 기대었다.

《이제… 다 말하겠다.》

그때… 탁상시계가 불시에 《짜르릉—》 하고 울었다.

## 6

리우림이 기대인 떡갈나무우에서는 한마리 큰 새가 원을 그리며 빙빙 날아예고있었다. 더운 피가 방울방울 떨어져 눈판우에 송송 구멍을 뚫고있었다.

우림이 인남이와 작별인사를 나누고났을 때 여적 박아놓은 말뚝같이 뻗치고서있던 소대장이 눈판우에 덜컥 주저앉았다. 그를 보자 우림은 애써 웃음을 지어보이려고 했지만 튕투무레한 얼굴이 괴롭게 이지러지기만 했다. 그 모양을 보며 애젊은 지휘관은 억이 막히는지 자꾸만 눈언저리를 문질러냈다. 내장을 끓이는듯 한 허연 입김이 마주 불리며 거의 맞닿은 두사람의 얼굴앞에서 부딪치고 흩어지곤 하였다. 무엇에 걸채였는지 험상궂게 쪽 찢어져 너불거리는 리우림의 군복웃주머니사이로 그 사진이 비죽이 귀퉁이를 내밀고있었다. 우림이 가슴을 들먹일 때마다 사진속의 생글생글 웃는 녀인은 가리마를 곱게 탄 머리를 가웃가웃 끄덕이곤 했다.

넋쪽같이 두터운 우림의 손이 털썩 사진을 덮어버렸다. 그리고는… 괴로운듯 자기의 가슴을 짹비틀어잡았다. 우림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소대장동지… 이 사진을…》

《?!…》

《이결 내 대신… 부탁…》

《왜 이러는거요? 동무야 돌아가서 사진을 찍어 야지. 고향에 편지도 보내구, 응? 내 동물 맨먼저 찍게 할테요!》

우림의 입술이 부르르 떨리었다.

《우림동무, 동문 죽어선 안되오. 아이엄마가 아니, 아이가 아버지를 기다린단 말이요. 아이에게 이름도 아직 못 지어주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다니...》

소대장이 애끓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리우림은 고개를 무겁게 들어 먼 북쪽하늘가, 고향마을쪽하늘가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행복한 미소가 어리었다.

《아버지라... 내가 아버지가 되었던 말이지요. 내 아들은 나처럼 노새로 살지 말아야... 그러자면 이 아버가 제 구실을 바로... 해야겠는데...》

아까부터 설똥해있던 하늘에서 눈꽃이 날리기 시작했다. 무연한 하늘공간을 짙 채우며 너울너울 춤추듯 소리없이 내리는 눈송이... 눈송이... 그 눈송이들은 사나운 포탄에 찢기고 짓이겨진 대지의 상처를 하이얀 봉대처럼 감싸주며 조용히 속삭이는듯 했다. 조금만 참으세요. ... 조금만...

우림이 긴숨을 내뿔더니 웃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들었다.

《이제 사진을 찍으면... 이름서건 함께 보내자던건데... 허허, 좀 보시우. 이 손으로 받아쓴게 원갑이 뭇까지 꼭 서른일곱개웨다.》

우림의 두툼한 손가락이 사진뒤등에 주런이 박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훑어내려갔다.

《...내 본시 까막눈이었다구요. 우리 어머니나를 학교 문앞에라도 보내보는것이 평생소원이었는데... 해방덕에 지주놈네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척 타고앉은 이 리서방네 추녀에서 저녁마다 야학종이 멩경멩경 울리면... 온 동리사람들이 다 모여들구... 글읽는 소리가 울리구... 곰방대를 든 형감님네들도 다 모여와서 글읽는 아들딸, 며느리가 너무도 신통해서 눈물코물 다 흘렸지우다.

헌데 저놈들이, 저 원썩같은 미제놈들이 어째왔소? 이 리서방네 집 추녀에서 그 쇠북종을 때 팡개치자구... 그래서 이 리우림이를... 우리 아들을 다시 노새로 살게 하자구... 그래서 온게 아니겠수. 그래서 저처럼 기를 쓰구 달려드는게 아니란 말이여?...

내 그래서 백년을, 천년을 그 뉘도 넘보지 못하게 종번침을 든듯히 하라고... 주추돌이 되라고... 아들녀석 이름을...》

후들후들 떨리는 리우림의 손가락이 특별히 굵게 덧글씨를 써놓은 이름밑에서 가까스로 멎어섰다. 더욱 가빠지는 그의 숨소리...

《리종초라구...》

떡갈나무가지에서 굵직한 물방울이 툭 떨어져 또렷하던 이름 한글자를 흐릿하니 퍼쳐놓았다.

아마도 그것은 리우림이 직접 지었고 아껴온 이름인 모양이었다.

《이제 우리 아들녀석을 만나거들랑... 우리 종초에게 이 아버가 제 구실을 비록... 다는 못했지만서두... 뗏뗏하게 갔다구...》

소대장의 눈가에서 눈물방울이 퍼릿하니 얼어든 검붉은 피자욱이 엉킨 불을 따라 천천히 구울러내렸다.

《우림동무, 무슨 소릴 하는거요. 동문 살아야 해. 이제 아들을 만나 이름두 달아주구... 그 아들과 함께 저 미제원썩놈들이 보란듯이... 질겅하두룩... 종소리를 더 크게 오래오래 울려가야 할게 아니요. ...》

우림의 입귀에서 가늘게 떨리는 미소.

《우림동무!》

《소대장동무! 우리 애들이 사는게 난 다 보이우. 그 애들 학교에서 종소리 울리는거랑... 그 애들이 책가방 메구 붉은넥타이를 날리며 우리 김일성장군님 노래를 부르며 학교에 가는거랑... 그리구 또...》

한줄기 눈보라소리가 고막을 흔들었다.

그들은 웃고있었다. 여름철에는 이름모를 갖가지 풀들이 메이게 돌아나고 산새들이 우짚었을 여기 적막한 깊은 산골짜기에서 어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사나이들의 작별인사로 래일에 살 후대들의 이름을 부르며, 미래에 살 후대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병사들은 웃고있었다.

그것은 확신이였다. 내 땅, 내 집, 내 생활... 호박잎이 건들거리는 울바자며 동우리에서 골골 들려오는 닭울음소리, 빨간 고추 널어놓은 지붕, 정든 안해의 물젖은 손이 어른거리는 빨래줄, 누런 벼바다 파도치는 앞벌, 맑은 물 주절거리며 흐르는 시내가, 그너머에서 들려오는 공부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그 애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때까지 아니, 그보다 더 먼 후손들이 피로 지킨 이 땅을 물려받을 그때까지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제도에 대한 확신, 세대를 잇고 또 이어서 언제나 우리의 자손들의 심장속에 가득차있을 녀에 대한 확신이였다. 항일빨찌산들이 그러했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영웅들이 아니, 이 땅우에 자기의 빛나는 생의 자욱을 남긴 수많은 무명유명의 영웅들이 최후의 시각 자기가 목숨을 바친 혁명위업의 정당성으로 하여 무궁토록 룡성변영할 조국과 그 땅우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려갈 후대들의 모습을 그려볼줄 아는 사람들이였다.

《소대장동무!》

우림이 소대장의 두손을 더듬었다.

《…이제 장가를 가져든 아이를 많이 낳수. 이 전쟁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애들이… 태어나지 못했는가 말이요!》

절절한 그 목소리는 귀전을 치고 눈굽을 지지며 총소리마냥 따다당 가슴을 찢어발기며 울려갔다. 갔다가 다시 왔다. 메아리치며 울리어왔다.

아, 누구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던 전선고지의 아버지들! 리수복, 강호영, 조군실… 불려도 불려도 끝이 없을 수많은 민청원용사들과 함께 또한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후대들의 행복위해 목숨을 바쳤던가.

로병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이 제일 어려웠는가고. 화점도 땅크도 도하장도 아니었다. 그 누구의 남편이며 아버지인 전우를 그가 피흘린 고지우에 안장할 때였다, 방금 불붙던 뜨거운 흙이 피흐르는 손가락사이로 흘러내려 고귀한 삶들과 영결하던 때였다, 적탄에 쏘린 가슴속에서 웃는 안해와 웃는 아기의 사진이 나올 때였다.

오, 잊지 못할 아버지들…

## 7

《…그 리우림이 바로 네 친아버지였고 소대장은… 그건 바로 나였다. 치명상을 입고 전선을 넘어온 나는 곧 수술장으로 실려들어갔지. 척추에 박혀있던 파편을 뽑아내고… 봉합을 하고있을 때 간호원은 이미 내 맥박이 멎은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부터 모든것이 빨리, 빨리만 흘러가던 천막안에서 시간은 천천히 더디게 흘러갔다.

현데 기적이 일어났어. 글썽 죽은줄로만 알았던 내가 수술장에서 실려나오자 갑자기 담가채를 짊어들어잡더라지. 백포필로 꿈틀꿈틀 기여나오는 험상스러운 손아귀를 보는 순간 애어린 간호원은 그만 맥을 잃고 풀썩 주저앉고말았지. …

멀리 후방병원에서 나는 승리의 날을 맞이했다.

그때로부터 여섯해가 지난 어느날에는 기억에조차 삭막해져가던 녀군의를 뜻밖에 도병원 입원실의 어느 창문밑에서 만나게 되었구나. 그렇게도 안타까이 나를 찾아 헤맸다지. 그 상봉이 얼마나 믿어지지 않았으면 자기가 칼을 댔던 상처자리까지 보고서야 내 발밑에 꿰어앉으며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고… 글썽 어째서, 무엇이 그처럼 훌륭한 녀성으로 하여금 한마디 언약을 나눈적도 없는 불편한 몸의 사내를 찾아 귀중한 시절을 다 바치게 했단 말이나. 한생 전선군의로 살려는 그 녀인은 또한 깨끗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너희들의 더없는 어머니가 되어주었다.》

창유리로 흘러드는 따스한 해빛이 새하얀 범랑 소랑이에 떠놓은 소독수에 반사되어 무지개빛으로 아롱거리고있었다.

《…그때 병원을 나선 걸음으로 내가 제일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우림의 집이었다. 벌써 전기가 들어온다고 새로 세울 전주목들이 뉘어져있는 집집들을 물어서 찾아간즉은 아들, 며느리를 전쟁에서 다 잃은 할머니가 손자애를 데리고 산다는 작은 집이었지.

얼마 안되는 쉼단을 아낌없이 혈어 불을 때준 따끈한 아래목에서 감잡잡한 애녀석이 숨을 푹푹 쉬며 잠을 자더라구. 그걸에 우림이 맡기고간 사진을 슬그머니 꺼내놓았는데 글썽 랭수 한그릇 들고 올라오던 할머니가 그걸 보더니만 물그릇을 내 무릎에 와락 얹지르겠지. 그 서슬에 잠에서 깨어난 녀석이 으앙 울음을 터뜨렸어. 뒤돌아 웃고름을 찍는가싶던 로인이 머리를 치어들며 〈첫째야!〉 하고 부르는 순간!…

나는 그만 숨이 꺾 막히겠지. 아들이 돌아오면… 글썽 이기고 돌아오면 그땐 둘째도 태어나고 셋째도 태어나리라고… 그 소박한 희망으로 이름을 대신하며 자라는 어린것에게 과연 아버지 없는 슬픔을 안겨줄수 있단 말인가!

난 애를 부둥켜안았지. 아래목에서 제법 따끈히 달아오른 열기가 내 몸으로 흘러들자 나는 어쩔수 없는련민에 눈굽이 젖어들었지. 한데도 녀석은 그냥 앵두같은 입술을 비죽거리다가 한다는말이 〈아버진… 거짓말쟁이야!〉 하겠지. 그날… 나는 희생된 전우들의 녀원으로 그 애에게 리종초라고… 새 이름을 주었다.》

창가에는 어느덧 저녁노을이 빨갭게 비꼈다.

허나 그들은 쇠로 부어낸 사람들처럼 묵묵히 오래도록 앉아있었다. 하많은 추억에 잠겨 전우들의 자취를 더듬어보는 옛 화선병사 로병도… 흘러간 그 시절 학교현관옆 밤나무에 매단 종이 바로 자기 이름이노라 하던 아버지의 그 말뜻을 깨달은 종초도… 평범하게만 들리고 불려오던 자기 이름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가를 알고 붉어진 눈가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는 복숙이도… 말없이… 오래도록…

## 8

련광정앞을 거닐던 옛 로병이 승리거리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자기 집 해빛밝은 창가에 앉아 전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원고지우에 옮기고있을 때, 인민군렬사탑을 멀리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대한 추억에 잠겨있던 복숙이가 오빠를 찾아 전화를 하

# 아 들

## 꼭 명 철

분명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앞가슴에 금별메달을 번쩍이며  
고향집문턱을 넘어서는 영웅병사가  
하지만 어쩐지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라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엔 내내  
품에 안아 모금모금 단젖을 먹이던  
복스럽던 강보시절의 그 모습뿐인데  
학교에 늦어질라 책가방을 서둘러 메워주며  
동구길에 오래도록 바래워주던  
소년시절의 그 모습뿐인데...

꿈에도 생각 못해본  
나라의 영웅이 되어  
이렇듯 문이 비좁도록 성큼 들어서니  
낯아키운 어머니인데  
어찌 그리 쉬이 믿어질수 있겠습니까

이름은 예 그대로건만  
모습도 마음도  
그전 시절의 아들이 아닌  
의젓한 장군님병사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감격으로 자꾸만 치솟는  
뜨거운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이 좁은 트랙의

한 어머니의 슬하에만 두었더라면  
오늘 이 장한 아들을  
얼싸안아볼수 있었을것인가고

돌이켜봅니다 어머니는  
선군의 시대가 부르는 그 길에  
군복을 입혀 초소에 아들을 내세운  
궁지스럽고 누구앞에서나 몇몇한 못 잊을 그날을

장군님 맡겨주신 초소에서  
값높은 청춘을 빚내이며  
고향앞에 조국앞에  
언제나 부끄럼없이  
장하게만 삶을 꽃피우기를 바라온 어머니

군공을 세우고 돌아오길 고대한 그 아들  
꿈에도 생각 못한 나라의 영웅이라는  
이렇듯 크나큰 군공을 세우고 고향을 찾았으니  
장군님 베푸신 한량없는 그 은혜에  
그 무엇이라 할 감사의 말을 고르지 못하는  
어머니

아, 어제는 고향집 좁은 뜰안에서  
철없던 아들을 키운 어머니  
오늘은 만사람의 축복속에  
우리의 장군님 키워보내주신  
조국의 아들을 아름답게 안아봅니다

고있을 때, 수도의 보통강기슭 전승기념탑광장  
에서는 이복이가 군복입은 자기의 남편과 함께 꽃  
다발을 안은 어린 아들을 앞세우고 화강석계단을  
오르고있었다. 이복의 가슴앞에서는 박사메달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이복이는 자기의 이름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  
는가를, 반세기도 썩 이전에 우리의 영웅선렬들이  
어떤 희망과 기대, 소원을 자기의 이름에 담았는  
가를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이 땅의 후손이며 공  
민임을 증명하는 법적증서를 받아안던 날 그에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었다.

《기억하거라, 그 이름을 지은 전사의 이름은  
지원갑이었다. 해방전 두 녀동생을 잃고 홀로 남  
은 그가 못된 세상에 묻힌 그들의 복까지 다 누  
리며 살라고 지은 이름이 이복이란다. 그 복을 누

리기만 할것이 아니라 너는 못다간 그들의 길을  
이어 생을 두릅맞잡이로 일해야 한다.》

사연많은 그날의 사진뒤에는 아직도 많은 이름  
들이 남아있었다. 때로 그속에서 아기의 이름을  
골라가는 이웃들도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다 어디선가 《더 멀리... 먼 후날의 후손들이 피  
로 지킨 이 땅을 물려받을 때까지도...》하고 확신  
하던 목소리가 메아리치며 들려온다. 그렇다, 가  
장 영웅적인 전통이 흙과 물처럼 새생명들을 자래  
우고있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서른일곱번  
째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안겨주는 아버  
지, 어머니가 있을것이며 그렇게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 선렬들의 넋은 영원히 영원히 살아있으리라  
는것을 우리는 정녕 믿어의심치 않는다.

# 나는 군관의 아들

류 학 명

행군길 휴식참에 나무에 기대앉아  
땀배인 병사수첩 갈피 펼치고  
다시한번 새겨보는 아버지사진  
그 모습도 땀에 흠뻑 젖었구나

너무도 눈에 익은 아버지의 그 모습  
한생을 군복입고 초소에서 살아온  
오늘도 병사들의 앞에서 달리는  
평범한 군관의 모습

첫걸음마 아장아장 내가 댄 곳은  
중대병실 가까이에 자리잡은 군관사택마을  
그곳에서 병사들의 훈련모습도 보았고  
아침기상구령소리  
아버지의 엄한 부름으로 새기며  
내 자랐거니

정든 집 곁에 두고도  
초소에서 훈련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산 나의 아버지  
이동훈련 나갔다 돌아와  
내 손에 쥐여준것은  
따스한 장난감권총

내 어찌 잊으랴 그날의 그 모습  
학부형총회의 날 꼭 참가하겠다고  
나와 손가락 걸고 한 약속을 지켜  
땀젖은 군복차림으로 교실에 들어서시던  
그날의 아버지의 고마운 모습

내 오늘 땀배인 군복을 입고  
훈련의 휴식참에 다시금 생각한다  
군복입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어이하여 나의 아버지  
한생토록 군복을 입고 초소를 지켰는지

군복 그것은 조국이  
자기의 장한 아들들에게 주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갈  
영예론 수호자임을 말해주는 값높은 징표

그래서, 바로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요람, 나의 학교, 나의 희망을 지켜  
이 땅, 이 하늘을 지켜  
총잡고 바쳐가는 성스러운 복무의 길에서  
한순간도 물러선적 없었거니

내 오늘 아버지의 군복입은 사진을 보며  
가다듬는것, 그것은  
땀젖은 군복속에 아버지가 걸어온 그 길을  
내 한생 드림없이 걸어갈 맹세  
우리 집안의 가풍을 지켜  
내 한생 변함없을 그 맹세

내 가슴뿌듯이 자랑하노라  
행복을 누리기보다  
그 행복을 지키는 수호자의 영예를  
대를 이어 가슴에 안고사는  
나는 군관의 아들이라고!

가 사

## 고 향 의 쑥 향 기

로 옥 선

초소의 들길에서 반기여주는  
고향에서 정이 든 파아란 쑥잎  
훈련길 떠나는 병사의 가슴  
고향의 쑥향기로 적시여주네  
아 쑥향기 고향의 쑥향기여

어머니 정성담아 쑥떡을 빚던  
잊지 못할 고향의 파아란 쑥잎  
조국을 지켜가는 수호의 길에

그윽한 향기 가득 풍기여주네  
아 쑥향기 고향의 쑥향기여

선군의 총대 더욱 굳게 잡으라  
고향의 향취어린 파아란 쑥잎  
너도 안고 훈련길에 용맹하려니  
언제나 병사와 함께 있으리  
아 쑥향기 고향의 쑥향기여

# 최첨단과학기술돌파전, 우리의 래일은 창창하다

—장편소설 《래일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리근세

천리마의 새로운 나래를 펼친 과학기술총공격전으로 런던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어 지금 온 나라에 그야말로 행복이 파도치고있다.

그 이름도 정다운 련하기계에서 최첨단기계공업의 성공작을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새로운 피형전환기술과 비날론천생산체제확립, 우리 식 지열수리용기술의 개발이라는 눈부신 성과들이 련이어 펼쳐져 세상을 놀래우고있다.

최첨단의 공격주조에 확고히 올라서서 강성대국의 래일을 힘있게 앞당기는 강위력한 우리의 과학기술. 무엇이 과연 것처럼 바라오던 꿈과 리상을 이렇듯 빨리 현실로 꽃피운것인가.

...

아 아리랑 아리랑  
민족의 자존심높이  
과학기술강국을 세우자  
행복이 파도쳐온다

장편소설 《래일에 사는 사람들》(김유권 작)의 마지막장에서 울려나오는 이 노래에 그 답이 다 있으며 소설의 독후감도 이 노래가 대신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낮은 관념과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담하게 최첨단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오늘날 강성대국 승리의 열쇠는 다름아닌 최첨단과학기술이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떨어지면 기술의 노예가 되고마는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장편소설 《래일에 사는 사람들》의 형상성과는 무엇보다 이처럼 중요한 과학기술과 결부된 사회적문제를 적절하고 새롭게 그려낸데 있다.

소설에서 어린시절의 최일이 자기판에 과학을 옹호하여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자.

《아버지, 과학을 발전시키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식민지로 된대요!》

파장된것 같지만 옳은 리치이다. 과학기술에서의 예측은 필연코 경제적예측을 낳고 그런 나

라는 마땅히 발전된 나라의 경제적식민지로 되고 만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길을 갈수 없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짧은 기간에 세계 최첨단을 돌파하고 과학기술로 조국의 앞날을 열어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온 나라가 대국상을 당하고 모진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주인공 진수현이 해외에서 가슴에 사무치게 새기고 다져온 신념이였고 위대한 장군님께 드린 그 하나만이 아닌 우리 과학자들의 충정의 맹세였다. 하여 작품의 주인공 진수현을 비롯한 국가과학원 현대화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시시각각 그 맹세를 지켜 살아왔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 자기의 지식과 열정을 다 바치였다. 마침내 그들은 불과 1년안팎에 최첨단 CNC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짧은 기간에 CNC기술의 명맥을 틀어쥐는데 크게 기여한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오늘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전투에서 과학기술로 강성대국의 밝은 래일을 안아오는 우리 시대 참된 과학자들의 투쟁과 생활을 감동깊게 펼쳐보이고있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 탐구를 심화하여 의의있는 형상적주장을 밝혀내고있다.

그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의 최첨단과학기술돌파전에는 청년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소설의 전반형상을 눈여겨보면 주인공을 비롯하여 실력있고 경험이 있는 과학자들이 청년과학자들을 이끌고 떠밀어주어 그들이 최첨단목표를 점령할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돌리고있다.

그러면 어째서 작품의 주인공 진수현은 경험있고 능력있는 중진연구사들을 마다하고 애젊은 청년들을 내세우는것인가. 실장으로서 전망을 생각하는것인가?! 그런데 현대화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응당 연구소의 전망에 대해 더 관심해야 할 리윤덕은 어째서 청년들을 믿지 않고 그들의 일을 계속 방해하는가.

그들은 대학동창생으로서 둘다 연구소에서 중요하고 책임적인 역할을 하고있지만 진수현과 달리 리윤덕은 당장 리득이 있는 연구에만 신경을 쓰고 후비육성을 소홀히 하였으며 또 리남웅과 같은 젊은 인재를 무역회사로 조동시킬 생각까지 한다.

눈앞의 리익만 생각하면서 연구소의 전반활동에서 주신을 잃고있는 리윤덕의 결함을 놓고 진수현은 이렇게 준절히 타이른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혁명의 전도에 대한 신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과학자들의 경우에 그 신념은 당에 더 큰 기쁨을 드릴수 있는 미래의 과학인재들을 키워내는데서 표현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군님의 뜻은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입니다.

...젊은 인재들을 찾아내고 보호하고 내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남웅과 같은 연구사들이 〈광명성1〉 호를 쏘아올린 과학인재들처럼 장성대국건설에서 큰 몫을 할수 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 진수현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생관을 확고한 신념으로 체득하였기에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청년들을 적극 이끌고 밀어주는것이다. 사실 최일과 임창만, 리남웅, 송춘도를 비롯한 청년과학자들은 혁신과제수행을 위한 연구조가 무어지기 전까지만 하여도 변변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말썽거리로 취급되고있었다.

새로 현대화연구소의 조종장치연구실 실장으로 된 진수현에게 실을 인계하면서 리윤덕은 실의 기둥은 김승길이며 박석훈과 같은 중진들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진수현은 공동연구지에서부터 생각해온 최첨단 CNC장치개발을 대담하게 혁신과제로 제기하고 그 수행의 담당자들로 청년들을 내세운다. 하여 리윤덕과 일부 일군들의 우려속에 청년들로 연구조가 무어지고 그들은 용감하게 연구과제수행에 뛰여든다.

진수현과 청년조의 계획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히 모험적이였지만 그들은 최첨단 CNC장치 《조종7》 호를 기어이 만들어내고야말며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게 된다. 청년들의 목표는 매우 아름답지만 그들은 끝내 승리하였고 그들이 거둔 승리의 의의는 대단히 의미심장하였다.

선군조선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는 최첨단과학기술돌파전에 누구보다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우리 청년들이 떨쳐나섰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로 되어있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엄연한 현실이며 이 작품이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 사상이다.

소설의 마지막장면에서 우리의 주인공들중 가장 젊은 지학준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이 이룩한 성과를 보고드리는 장면을 상기해보자.

CNC기술의 높은 단계인 유연생산체계의 가동현장에서 그 개발에 참가한 너무도 젊은 청년과학자를 보시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더없이 희망찬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신다!...

우리의 강성국가건설투쟁은 이렇게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청년중시사상을 밀접히 결합시킬 때 훌륭한 실천을 낳을수 있다.

사실 지난 시기의 일부 작품들에서는 청년과학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이 오랜 과학자들의 방조를 받아가며 연구사업을 하는것으로 형상하였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최첨단이라는 가장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짧은 기간에 점령할수 있게 새 세대 청년과학자들을 적극 도와주는 전 세대 과학자들의 생활과 투쟁을 기본으로 형상하였다.

장편소설 《래일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생관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진정으로 래일에 사는 참된 과학자들의 성격과 생활을 탐구하면서 이와 같이 의의있는 형상을 창조하였다. 보다 희망차고 반드시 창창해야 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숄선 밀거름이 되는 참다운 애국자—과학자들의 형상이 얼마나 미덥고 숭고하게 안겨오는가.

우리 래일의 과학발전은 전적으로 청년들에게 달려있다. 하기에 젊은 과학자들을 적극 믿고 이끌어주는 여기에 조국의 번영과 우리의 래일에 대한 담보가 있다. 우리모두가 화폭의 주인공들처럼 진정 그렇게 살 때 것처럼 바라오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나며 우리는 파도쳐오는 행복속에서 벌써 래일에 살게 될것이다.

×

과학탐구의 길에서 인생의 참된 보람을 찾는 우리의 미더운 주인공들.

힘겹지만 영예롭고 보람찬 그 길에서 높은 정신세계와 고상한 튼리의 화폭을 가꾸어가는 과학자들의 새로운 모습이 이 소설에서 빛을 뿌리고 있다.

화폭에 등장하는 과학자들의 성격에서 새로운 면모는 크게 두 측면을 가진다.

그 하나는 오늘의 최첨단돌파투쟁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자의 높은 지성과 인격을 갖추어나가는 성격이며 다른 측면은 누구보다 생활을 사랑하고 정서가 풍부하며 랑만도 있는 성격이다.

작품의 주인공 진수현은 지식경제시대의 인격을 체현한 과학자이다. 그는 일찍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인생관을 신념으로 새겨안고 청년들을 적극 키워왔다. 그가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짧은 기간에 최첨단수준의 CNC장치를 개발하기까지에는 높은 실력과 함께 우리 과학의 패일을 열어 나가야 할 청년과학자들을 위해 바치는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었다. 자기자신에게 신심을 못 가지고 육체로동을 하려던 임창만에게서 과학을 할 수 있는 소질을 찾아내고 키워주어 학위논문도 쓰게 하고 최첨단 CNC장치개발을 위한 연구조의 조장으로까지 그를 이끈 진수현의 노력은 참으로 크다.

《...이렇게 이끌어준 청년들이 나뿐이 아니지.

과학자후비 한사람을 키운다는게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상의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일거야. 더구나 인간의 정신적성장 과정은 산에 나무가 자라는것처럼 눈에 잘 띄우지도 않고 거기에 기울인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도 힘든 일이지. 이런 일엔 숨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해. ...》

이것은 결코 진수현에 대한 임창만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패일을 생각하고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하는 참다운 인간에 대한 추정토로이다.

진수현에게서는 또 소질과 능력에 맞게 사람들을 이끄는 조직자적수완도 눈에 뜨이게 안겨오고있다.

현대과학기술의 높은령마루를 점령하는오늘의 투쟁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집단적인 탐구와 노력으로써만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수 있다. 소설에서 형상한것처럼 한개 연구집단을 능숙하게 이끌어 최첨단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둔 주인공의 조직자적수완은 오늘의 과학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높은 인격과 품모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비록 안정때문에 그 길로 못 갔지만 소질이 있는 축구선수였고 가정과 생활을 사랑하는 정서가 있는 인간이다. 맏딸인 정임이의 전망문제를 놓고 그가 실지 하고싶어하고 소질도 있는 교양원공부를 시키는 진수현의 성격은 매우 주목할만 하다. 그는 융통성이 있고 실리에 맞게 사고하는 인간이며 더우기는 정임이가 아이들을 몹시 사랑하기때문에 그가 교양원이 되는것을 막지 않는다. 한마디로 진수현은 우리 당이 바라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자의 전형으로 형상되였다. 현시기 우리 과학자들의 성격에 이처럼 세계를 굽어보는 사고방식과 인간적품모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서있는 면모를 부여한것은 작품이 인물형상에서 거둔 훌륭한 성과이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진수현뿐아니라 다른 청년과학자들도 높은 지성과 인격을 갖춘 성격으로 형상

하였다.

흔치 않은 음악적재능을 가졌지만 14살 나이에 벌써 조국의 미래와 과학발전을 생각하는 기특한 소년이였던 최일은 적극적인 과학정신으로 하여 최첨단 CNC장치개발에도 주동적으로 나서며 진수현의 모범을 본받아 진정한 과학자—패일의 창조자로 된다.

성미가 안존하고 착실한 편인 리남웅은 겉으로는 몹시도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같았지만 마음속에 21세기 자동조종리론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보겠다는 거창한 꿈을 간직하고있는 새 세대 청년과학자이다. 그의 꿈이 얼마나 크고 리상이 높은가 하는것은 예쁘고 총명한 애인과 함께 유족하게 살수 있었지만 단호히 그 길을 떠나 과학탐구의 보람찬 길을 걸어가는 성품을 통해 잘 알수 있다.

《여기가 여러모로 좋습니다.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하지만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이 있을 곳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듣는 진수현의 가슴에서 불시에 뜨거운것이 끓어오를 때 소설을 보는 독자들 그의 고상한 과학정신에 깊은 감명을 느낀다.

소설은 과학연구사업에 대해 아직은 직업상의 의무로만 간직하고있던 지학준과 그에게 과학자의 승고한 세계를 안겨주는 지형원교수의 성격도 의의있게 형상하였다. 이제 23살인 지학준의 할아버지이며 주인공의 옛 스승인 지형원교수는 지나칠 정도로 학준에게 일만 하라고 요구하는듯 하였고 과학자는 잠도 휴식도 잊어야 한다고 강요하는것 같았다. 하지만 실지 그가 요구한것은 생활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고 영원한, 오로지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는 과학자의 진정한 노력과 그 결실이었다.

일찌기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수 있는 기회도 마다하고 수십, 수백명의 제자들을 키우는 길에 후회없이 들어섰던 지형원교수의 모습은 오늘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새겨지는가.

그렇다. 참된 과학자라면 웅당 자기들의 과학연구에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보람찬 과학의 길, 애국의 길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높은 세계에서 과학을 탐구하고 조국과 후대들에게 헌신하면서 누구보다 랑만적이며 생활도 여러 방면에서 창조해간다.

바이올린협주곡 《용광로가 보이는 바다가에서》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재능과 한개 집단의 예술공연도 지도할수 있는 능력, 낯시질에도 조예가 있고 체육과 유희에서도 뒤지고싶어하지 않는 승벽과 소질, 사랑에서도 적극적이고 강렬한 지향등이 우리 주인공들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있는

독특한 인상이며 그들이 지니고있는 훌륭한 문화적소양의 여러 측면들이다. 우리 과학자들을 과학탐구에만 몰두하는 인물이 아니라 정서생활도 하고 사랑도 하는 인간으로 또 때로는 고민도 하지만 량만에 넘쳐있는 다면적인 인물들로 그린것은 이 소설의 중요한 성과이다.

소설의 형상성과는 약동하는 기백과 피끓는 정열을 다 하여 탐구의 길을 걷는 과학자들의 특성에 맞게 구성을 조직하고 속도감있고 간결하게 언어를 살려쓴 측면에서도 더 논의할수 있다.

그러나 소설에는 부분적으로 결함도 있다. 일부 장면들에서 묘사를 소홀히 하고 설명과 대사에 치중한것 등은 소설형상의 품위를 떨어뜨리고있다.

그렇지만 장편소설 《래일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현실이 요구하는 과학자들의 형상에서 한걸음 크게 전진하였고 CNC열풍이 몰아치는 시대의

모습을 깊이있고 적절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과학탐구의 길은 물론 순탄치 않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길은 어렵고 힘겨워도 반드시 가야만 하고 빠른 시간에 세계 최고수준을 돌파하는 최첨단과학기술로 기어이 이 땅위에 강성대국의 밝은 앞날을 열어와야 할 영예로운 길이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숭고한 인생관을 지닌 수많은 과학자들이 신심과 희열에 넘쳐 성스럽고 보람찬 애국의 길, 승리의 길인 과학탐구의 길에서 청춘을 빛내이고 자기들의 삶을 값높은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얼마나 보람찬 과학탐구의 길인가. 얼마나 높은 인격과 고상한 아름다움을 지닌 우리의 과학자들인가.

아, 우리의 래일은 정녕 밝고 창창하다!

## 일 화

# 석판인쇄법의 발명과 제네헬더

석판인쇄법은 체스꼬태생인 제네헬더(1771-1834)에 의하여 1798년 도이칠란드에서 발명되었다.

당시 그는 자그마한 인쇄소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평범한 청년로동자였다.

이러한 그가 새로운 출판인쇄법인 석판인쇄법(평판인쇄법)을 발명하게 된것은 우연한 계기에 발견한 물리적현상을 높은 과학적탐구심과 열정을 가지고 완강하게 파고들어 완성한데 있다.

당시 제네헬더가 일하던 인쇄소에서는 인쇄잉크를 개는 판으로 돌을 쓰고있었다.

어느 쉬는날, 늘 일감이 많아 바빠 지내던 제네헬더는 그동안 밀린 빨래감들을 모두 빨아 입을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빨래판이 없어 두루 궁리하던 그는 인쇄잉크를 개던 돌판을 깨끗이 씻어 빨래판으로 리용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물통에 담그었던 젖은 옷들을 돌판위에 올려놓았는데 돌판이 물에 적셔지면서 알지 못할 점들이 나타나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상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러가지 형태의 무늬들과 수자들이 새겨져 돌판위에 나타나있는것이 희미하게 알려졌다.

그 수자들은 찍어야 할 인쇄물의 부수를 잊지 않기 위해 엇그제 써두었던 수자들이였다.

그런데 그 수자들을 다 지워버린 돌판을 물에 적시니 왜 수자들이 다시 나타나는것일까?

여기에 생각이 미친 제네헬더는 빨래고 뭐고 다 건어치우고 돌판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것을 인

쇄에 리용할수 없겠는가 하는 착상을 하게 되었다. 즉시에 인쇄잉크를 돌판에 묻혀보니 수자들이 나타났던 자리에는 인쇄잉크가 묻고 물에 젖은 부분에는 인쇄잉크가 묻지 않았다. 여기에 종이를 대고 찍어보니 수자들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는 환성을 올렸다. 능숙한 기능공이었던 그는 이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출판인쇄법이라는것을 알았던것이다.

제네헬더는 곧 실험에 착수하여 석판인쇄실험에 요구되는 실험수치를 얻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탐구의 나날을 보냈다. 이 과정에 그는 물과 기름의 반대되는 물리화학적성질을 잘 리용하면 얼마든지 인쇄가 가능하다는것을 확신하였으며 석판인쇄에 적합한 돌도 찾아내게 되었다. 여기에 근거하여 몇개의 인쇄물을 찍어보았는데 그 질이 대단히 높았다.

석판인쇄법은 발명되자 순식간에 유명해져 도이칠란드의 많은 인쇄소들에서는 저마다 제네헬더의 석판인쇄법을 받아들였다.

석판인쇄법의 발명은 판화발전과 출판인쇄의 전지에서 볼 때 하나의 혁명으로서 공정이 비교적 쉽고 섬세하면서도 복잡한 조형적형상도 얼마든지 표현해낼수 있는것으로 하여 인쇄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하여 평범한 인쇄로동자였던 제네헬더는 새로운 인쇄법을 발명한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윤 성 호

# 우리 시대 과학자에 대한 생각

공 광 철

지금까지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적지 않은 취재를 해온 나였지만 얼마전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 대한 취재를 할 때처럼 그토록 깊은 인상을 받은적은 별로 없었다고 본다.

한여름의 폭염이 질어가는 어느날, 나는 문수봉 기슭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생물공학분원에 찾아갔다. 키높이 자란 은행나무, 정향나무, 향나무들이 울타리를 따라가며 병풍처럼 서있는 속에 품위있게 자리잡은 분원건물이 햇빛을 받아 유난히도 정갈하게 안겨왔다. 생물공학에 뜻을 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뜻 달려와 한번 마음껏 탐구의 나래를 퍼덕이고싶도록 대변에 정이 흠뻑 드는 건물이었다.

정문에 섰노라니 절로 아득히 흘러간 중학시절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구름처럼 부풀던 희망을 안고 배움에 즐겁던 그 시절, 학교에서 배워주는 수학, 물리, 화학, 음악 등 모든 과목들이 흥미진진하였지만 어쩐지 그중에서 나의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키는것은 생물과목이었다.

투명한 포르말린원통병에 잠긴 갖가지 동식물 표본들과 독수리, 꿩, 노루를 비롯한 박제품들이 주련이 진렬된 생물소조실, 그곳에서 현미경으로 개구리의 세포조직을 신기하게 관찰하기도 하고 데해산사슬고리와 염색체의 비밀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다. 학생소년궁전도서관에서 생물모방기술에 관한 자료도 뒤적거리고 줄 베른의 환상소설 《바다밑 20만리》도 밤새워 읽으며 앞으로 훌륭한 생물과학자가 될 꿈도 품었었고...

비록 후날 생물과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향학열에 불타는 그 시절 생물과학자가 돼보려던 꿈으로 모대기던 그때가 눈앞에 얼른거려 지금도 신문이나 텔레비존에 생물과학분야의 자료가 나오면 아무리 바빠도 눈여겨보곤 하는 나이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생물공학분원 과학자들이 높은 과학적성공을 달성하고 위대한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린것이 나의 꿈이 실현된것만큼이나 기쁘고 또 느끼는 충격도 남달리 컸다. 하여 이들에 대한 좋은 글을 꼭 써야겠다는 충동을 안고 여기로 온것이 솔직한 나의 심정이기도 했다.

나는 한 연구사를 만났다. 숫눈같이 하얀 위생복을 입은 그는 오랜 연구사경력을 가지고있는 실력있는 과학자였는데 영민한 두눈에서는 높은 지성과 뜨거운 정열을 엿볼수 있었다.

《우리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요? 신문과 방송을 통해 다 알고있겠는데요.》

그의 겸손한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이번 취재가 아주 순조롭게 잘될것이라고 흥그럽게 생각했다. 세상에 큰소리칠만 한 커다란 과학기술적성공을 이룩했는데 왜 더 하고싶은 말이 없으랴. 그러나 뜻밖의 그의 다음말이 나의 생각을 뒤바꾸어놓을 줄이야.

《작가선생, 사실 지금까지 나간 글과 소개편집물만 해도 우린 막 송구하고 오히려 죄스럽기만 합니다.》

나는 약간 어리둥절했다. 이젠 또 무슨 말인가. 사실 이들로 말하면 최근 우리 나라의 생물공학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생물공학의 최첨단기술인 피형전환기술 등에서 놀라운 전진을 이룩하고 위대한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린 이들이다. 그런 큰일을 하고도 송구하고 죄스럽다니? 허나 그의 표정이 하도 진지한걸 보아선 일종의 겸손성으로만 서둘러 볼수 없었다.

연구사가 생각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비해볼 때 우린 아직 선군시대의 과학자로서의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이미 이룩한 성과를 놓고 만족해하는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쉬임없이 돌진해가는 이들, 오직 당의 크나큰 믿음에 더 큰 실적으로 보답할 의지로 피끓이는 우리의 과학자들.

그래서였구나. 시대의 과학자! 결코 무심히 들을수 없는 말이였다.

불현듯 얼마전 평양양말공장에서 만났던 한 녀성연구사의 모습이 상기되였다. 연한 주근깨가 코등에 다문히 박힌 동실한 얼굴에 체소한 몸매를 가진 30대의 녀성연구사.

나는 연약해보이는 그가 어떻게 현대적인 양말포장기계를 불과 6개월만에, 그것도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에서 만든것 못지 않게 만들어낼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왔다. 허나 그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인채 나직이 말했다.

《저 뭐랄가, 전 그저 선군혁명명령도의 바쁘신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신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겨안고 시대의 과학자로서 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오늘날 과학은 상상할수없이 빠른 속도

로 발전하고있다. 기술쟁신주기가 얼마나 빠른지 오늘의 기적이 래일엔 벌써 낡은것으로 되고 순간의 자만과 해이로 해서 멀리 뒤편어지는 치렬한 과학기술경쟁의 시대이다. 이 경쟁에서 뒤지면 기술의 노예로 굴러떨어지고만다는것이 시대의 진리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계를 굽어보는 최첨단과학기술로 빛내일 굳은 결심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산울림을 소리높이 울리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는 과학기술모방국이 아니라 과학기술창조국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는 첨단이 아니라 최첨단을 들고나가야 한대시며 온 나라에 비약의 큰 날개를 달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따라 몇해 어간에만도 우리 과학자들은 얼마나 경이적인 과학적발전을 이룩했던가.

우주기술, 핵기술분야는 더 말할것도 없고 CNC공작기계기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생산기술, 지열에너르기리용기술, 희귀한 철갑상어의 바다양어기술, 공업적인 사과나무모재배기술...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들이며 나라의 부강번영에 절실히 필요한 인재들인 우리 과학자들은 이 땅 그 어디에나 무수히 많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배우며 자란 우리 과학자들의 정신력과 실력은 비상히 높고 마음 또한 티없이 맑고 순결하다.

나는 연구사의 모습을 다시금 새삼스러운 눈길로 보지 않을수 없었다. 해놓은 일을 자랑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들의 자그마한 성과를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더 큰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데 대하여 송구함과 죄스러움을 느끼며 그 성과에 자만할가봐 자신을 다잡고 채찍질하며 앞으로 내닫는 저 과학자.

어인 일인지 그 순간 내 눈앞에는 그가 그 하나만이 아닌 우리 시대 모든 과학자들의 참모습으로

우렁이 확대되어 안겨왔다. 위대한 선군시대를 최첨단을 돌파한 과학기술적성파로 더욱 빛내일 원대한 뜻을 안고 오늘도 탐구의 분과 초를 쫓아가는 시대의 과학자들.

그렇다, 시대를 안고사는 우리 과학자들은 성공의 결과를 놓고 절대로 말로 서두르지 않는다. 선군시대 과학자라면 누구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발명가, 과학자영웅이 되고 조국땅 어디서나 찾는 최첨단돌파전의 홍길동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이 땅에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과학기술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불타는 열의에 살면서 사소한 만족을 모르고 즐기치게 계속혁신, 계속전진해가는 천리마를 탄 나라의 보배들이다.

나는 취재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야기가 끝나자마자 곧장 컴퓨터앞에서 기술문건을 깊이 파고드는 그를 더욱히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정문에서 뒤돌아보니 분원건물벽에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부각된 구호가 안겨왔다. 그 순간 학창시절 생물소조실이 또다시 언뜻 떠올랐다.

미래의 과학자가 되어 나도 한번 최첨단을 돌파해보려던 꿈. 그 꿈은 결코 직업과 학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잊어서는 안될 소중한것이다. 그 어떤 자만도 허용치 않고 부단히 전진하는 이런 시대의 과학자들처럼 자기가 맡은 모든 일터마다에서 세계를 딛고 올라설 꿈을 안고 일할 때 우리 조국은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우뚝 솟아오를것이다.

나도 이들처럼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시대의 명작을 꼭 창작해내리라.

나는 이런 새로운 결의를 안고 비약하며 내달리는 내 조국땅 어디에나 있는 우리 시대의 참된 과학자들을 찾아 취재의 발걸음을 이어갔다.

가 사

## 청 춘 을 노 래 하 라

리 계 주

사랑의 품에 안겨 꽃피는 청춘  
열정이 없다면 청춘을 말하라  
장군님부름에 산악과 같이  
노도쳐일어나 용맹 떨치네  
아 조국이어 청춘을 노래하라

시대가 안기여준 값높은 청춘  
기념비마다에 새기여가네  
장군님 받들어 삶을 빛내며

최첨단 돌파해 변을 부르네  
아 조국이어 청춘을 노래하라

더 좋은 래일 위해 청춘을 바칠 때  
그 이름 금별로 길이 빛나리  
장군님 위하여 땅을 위하여  
청춘의 심장을 불태워가리  
아 조국이어 청춘을 노래하라



# 잠들지 않는 피도

김 삼 열

비가 내리고있었다. 바다가 개펄의 물이 서서히 찌기 시작했다. 이때 마주보이는 제방우에 섰던 두 아이가 물에 뛰어들었다. 아이들은 해염을 치며 이쪽으로 오고있었다.

농장원처녀들이 놀란 눈길로 바라본다. 썰물은 점차 빠르게 흘러간다. 아이들도 떠내려간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팔을 놀린다.

드디어 기슭에 닿았다. 두 아이는 제방돌짬에 끼워놓았던 옷을 입고 제방을 걸었다. 길이 몹시도 질적거린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농장원처녀들이 물었다.

《아유, 너희들이 저기 해염쳐갔됐니?》

《예!》

그들을 대견스레 바라보던 분조장처녀가 말했다.

《너희들 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분조에 오렴.》

아이들은 그의 말이 구질구질한 서해 한끝구석에 주저앉으라는 소리로 들리는지 얼굴을 찌프렸다.

《우린 이 질적거리리는 개펄에는 안 와요.》

머리총이 센 아이가 숨소리마저 거칠게 내뿜는 말이였다.

《분조장동지, 애들은 장수가 되구 영웅이 되려는 모양이에요.》

《어야나, 쯔데.》

《호호호.》

처녀들은 무엇이 우스운지 깔깔거린다. 한결같이 아름다운 그들의 눈에는 기특해하는 빛이 어린다.

1

《어쨌든 만나보십시오. 아마 놀라실겁니다.》

홍병주를 만나려고 내려온 종환을 바래주며 군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이 하는 말이였다.

종환은 그가 가리켜준 길을 따라 걸기 시작했다. 가없이 푸르른 가을하늘에서는 따스한 해빛이 들을 어루쓸고있었다. 기분이 상쾌했다. 40여년만에 다시 밟아보는 고향길이였다.

한참 걸던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을 가리켜줄 때는 인차 찾을것 같았으나 너무도 변모되어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잠시 서있던 종환은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걷는 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서천수산사업소 가공반이 어데 있습니까?》

《예, 나도 그리로 가니 함께 가시우다. ...》

이렇게 대답하며 종환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묻지도 않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홍병주지배인이라면 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정말 좋은 일군이래요.》

《예?!》

종환은 할머니의 예측이 신통하게 생각되였다.

《이제 직접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가 가공반을 차려놓고 읍내 주민들에게 봉사해주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조개젓, 호드기젓, 공치젓 같은 것은 물론이구 랑동설비까지 갖추어져 사철 신선한 생선두 먹을수 있수다. 국수기계랑 체분기, 미분기까지 다 마련해놓고 간단한 가공품들도 생산하니 사람들이 좋아 안할터 있겠수. 전에는 이런 식품을 먹자면 남포나 강선, 멀리 동해에까지 가서 날라다 먹었수다.》

《!》

종환은 마음이 흥그러워졌다. 자기가 료해하려고 내려온 사람이 기업소종업원도 아닌 지나가는 낯모를 할머니한테서까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종환은 도인민위원회의 과장이었다. 국가적인 기념일을 맞으며 표창수훈사업을 종합하느라 여념이 없던 그는 문득 어느 한 문건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이름 홍병주, 생년월일 1953년 6월 3일… 표창내용: 이 동무는 서천수산사업소 지배인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마다 기업소앞에 맡겨진 수산물생산계획을 125%이상 넘쳐수행하면서 군내살림살이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홍병주? 옳다, 그 병주였다. 생일도 종환이보다 5일 먼저라고 형님이라 부르라던 그 고집쟁이였다. 그런데? 석연치 않았다. 어쩌서 그가 바다가 간석지로 갔을가.

운수기능공학교로 갔던 그가 운전사가 되었다는 것은 알고있었다. 간석지건설장에 탄원해갔던 그가 30대 초엽에 벌써 수송대대 대대장이 되어 수많은 수송운수수단들을 지휘한다는 소식도 알고있었다. 그후 아들을 따라와 종환이와 함께 살게 된 어머니가 무슨 말 뒤끝에 《소문에 병주 그 사람이 간석지건설이 끝나면 큰 표창을 받을것 같더라, 평양에두 소환되구. 운수부문에선 젊은 사람치고 그 사람만 한 실력자두 쉽지 않대.》하고 그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때 종환은 멀리서 그의 앞길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었다. 그런데?…

종환이가 홍병주의 공로자료를 직접 료해할 결심을 하게 된데는 홍병주와 인연이 있는데다 그의 공로내용과 제기된 표창급수, 경력을 따져보니 간단히 처리할 문제로 보이지 않았기때문이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의 인생행로에 대한 의문이었다.

종환은 이런 사정으로 해서 낯모를 할머니의 좋은 이야기에 마음이 흥그러워졌고 이번의 걸음이 량만적이라는 느낌까지 들었다.

《여기외다.》

함께 걷던 할머니가 가리킨 곳을 보니 얼마 크지 않은 아담한 건물에서 듣기에도 경쾌한 각이한 기계들의 동음이 악단의 조화로운 선율처럼 울려나오고있었다.

종환은 건물의 첫칸에 있는 제품계량실로 다가갔다.

2

《안녕하십니까?》

《!》

종환의 물음에 흰 위생복을 입고 마스크를 낀

녀인이 제품을 계량포장하는 바쁜 일손을 멈추지 않고 눈길로만 대답을 했다.

《당비서동무를 만날수 있습니까?》

《?》

녀인은 이번에도 고개만 가로저었다. 하긴 일터에서 바빠 돌아가는 이 녀인이 알수 없으리라.

다른 방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어떤 방은 생산물을 받아가는 손님들로 짝 들어차있었다.

제일 마지막방인 제분실에 이르니 두대의 기대중 한대가 가동을 멈추고 수리하는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가루먼지를 가득 뒤집어쓴 수리공이 전동기축을 조립하고있었다.

《수리공동무, 말 좀 물읍시다. 당비서동무를 찾을수 없을가요?》

수리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체격이 장사같은 사람이었다.

잠시후 그가 사라진 곳에서 나이지숙한 사람이 나타났다. 호리호리했다.

종환은 다가오는 그에게 물었다.

《비서동무입니까?》

《예, 제가 사업소당위원회 초급당비서입니다.》

《도인민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전화를 받았습시다. 들어갑시다.》

초급당비서는 서글서글했다.

종환은 그의 안내를 받으며 어느 한 방으로 들어갔다. 휴계실같았다.

《우리 지배인동무 말이지요? 한마디루 일밖에 모릅시다.》

《예? 그거야 물론…》

《기술로 일합니다. 기능이 높지요. 배기관, 항해, 고기잡이는 물론이구 이 가공반의 기계들과 용접, 제판, 선반 게다가 자동차, 승용차까지 모르는것이 없습니다.》

《그럼 지배인동무가 세운 사업성과들은 다 기술로써 이룩했다는 말씀입니까?》

종환이 되물자 비서는 두손을 황황 저었다.

《그것만두 아닙니다. (웁웁거리며 들려오는 기계들의 동음을 가리키며) 이 가공기지를 꾸릴 때만 보아도 매일 밤을 패며 제 손으로 직접 설비들을 조립했습니다. 아마 그의 특징이 뭔가 한다면 일단 일감이 생기면 잠을 잊어버리는것이랍니다.》

손세까지 써가며 하는 병주에 대한 자랑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현지에 내려와서 직접 보니 그의 말에 공감이가 있다. 여기 가공반실태를 통해 추측해봐도 다른 곳에서 본 같은 종류의 설비들보다 대단히 현대적이였다.

《신문, 방송에랑 더러 소개되었겠지요?》

오는 길에 할머니의 칭찬도 있으리라 비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웬걸요, 별루 소개된적이 없습니다.》  
《그건 어째서요?》  
사업소비서는 멋적은듯 빙긋이 웃었다.  
《본인이 반대하니까요. 원, 무슨 성미가 그런  
지...》

종환은 빨리 병주를 만나고 싶어졌다.  
《지배인동무를 언제 만나볼수 있을까요?》  
《이제 곧 찾아오지요.》  
사업소비서는 병주를 찾으러 갔다.  
종환은 벽에 걸린 거울에 자신을 비쳐보았다.  
머리가 한 절반 벗어진 중년이 자기를 바라보고있  
었다. 원래 생김새에 개성이 없는데다 몸까지 나  
니 어릴 때의 모습이 없어보였다. 그럼 다행이다.  
한참만에 비서가 지배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가  
루먼지를 가득 뒤집어쓰고 일하던 장사같은 체격  
의 그 수리공이었다.

《그럼...》 하더니 비서는 그들을 남겨놓고 방을  
나갔다.

종환은 병주가 자기를 알아보면 어쩔가 했는데  
그런 눈치가 아니었다. 병주의 모색역시 머리총이  
세고 감때사나와보이던 모습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틀거지가 진중스럽고 과묵해보였다.

종환은 반가운 감정을 깊이 묻어두고 말했다.

《도인민위원회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병주가 덩덤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지배인동무가 일을 잘한다기에.》

이 말에 병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저에 대해서 말입니까. 뭘 한게 있다구... 정  
말 딱한데...》

《!》

종환은 눈웃음을 지었다. 공로자들은 대개가 다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겸손겸양한것이다.

《무엇을 했는가는 사실이 말해줍니다. 지배  
인동무는 수산사업소지배인사업을 하는 10년동안  
해마다 기업소앞에 맡겨진 수산물생산계획을  
125%이상 넘쳐수행하면서도 많은 자금을 마련하  
여 군살립살이에 보탬을 주었지요!...》

이때 밖에서 부르릉- 하는 자동차소리가 들려  
왔다. 그러자 병주가 《가만...》 하며 종환의 말을  
막는것이였다.

《나는 그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난 사실 파  
오가 큰 사람입니다.》

병주의 음성은 갈린듯 했고 그의 얼굴엔 피로움  
이 어려보였다.

《?》

종환은 아연해졌다. 갈피를 잡을수 없어 잠시  
덤덤해있는데 밖에서 《빨리 차에 오르시오.》 하  
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한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휴  
계실로 들어갔다.

《지배인동지, 출발시간이 됐습니다.》  
병주는 손목시계를 보더니 급히 일어섰다.  
《이거 안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밀물시간이 되  
기때문에 우린 바다에 나가야 합니다.》

《그럼 래일 만납시다.》

종환은 이렇게 헤어졌다. 그는 려관으로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생각해보니 《...난 사실 파오  
가 큰 사람입니다.》 하고 괴롭게 말하던 병주의  
말이 진실을 담고있는것처럼 들렸다. 현지에 내려  
온것이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밤  
하늘의 별들도 그 사연을 전하려는듯 총총히 빛  
을 뿌리고있었다.

### 3

종환은 아침일찍 가공반으로 향했다. 병주는 보  
이지 않고 사업소비서가 맞아주었다.

《어제 밤 우리가 선창에 배를 대고있는데 7호선  
장의 어머니가 로환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  
다. 그래 지배인동문 병원으로 급히 떠났습니다.》

《어제 밤으로요?!》

종환은 감동에 젖은 비서의 말을 들으며 깊은  
밤길을 달려갔을 병주의 수고가 헤아려졌다. 한편  
일을 빨리 끝내려던 계획이 빗나가는것이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어떻게 할지 잠시 망설이는데 비서  
가 물었다.

《오늘 사업일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동문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젠 할수없이 비서의 말을 들어야 했다.

《어떻게 한다? 우린 오늘도 바다가에 갔다 와  
야 합니다.》

바다가의 개펄에는 본기업소가 있었다. 종환  
은 수산사업소의 기본생산거점을 보는것이 꼭 필  
요하리라 생각했다.

《함께 가도 일없을까요?》

《좋습니다.》

비서는 패히 응했다.

그들을 태운 자동차는 곧 수산사업소를 향해 떠  
났다. 읍거리를 벗어나면서 무연하게 펼쳐진 벌에  
서는 누런 벼이삭들이 설레이고있었다.

운전사가 록음기기를 틀었다. 녀가수의 서정이 질  
은 노래가락이 울려나왔다.

그대가 지나간 밤 아픔에 잠 못들 때  
내 편히 그 품에 잠든적 없던가  
꿈에도 있다면 꿈에도 있다면  
조국이며 말해다오  
내 어이 그대의 내 어이 그대의  
아들이라 부르라  
...

가요 《조국이여 말해다오》였다. 그런데 노래는 3절까지 다 흐른 뒤에도 다시 반복되어 울리고있었다.

사색에 잠긴 비서가 말했다.

《우리 지배인동무가 사랑하는 노래지요.》

《그래요?!》

종환은 병주가 이 노래를 사랑한다니 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졌다. 그도 이 노래를 좋아했던 까닭이었다.

(!)

한참이나 노래를 감상하며 앞시창너머를 바라보던 종환은 눈이 동그래졌다. 밀셀물이 나드는 개펄이 멀리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던것이였다. 40여년만에 다시 보는 바다가의 개펄이었다.

그는 아이적에 이 개펄에 즐겨나갔다. 큰 강이나 호수가 없는 서천에서 여기는 더없는 물놀이장이었다. 여름방학이면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여기서 살았다. 해가 내려쬐어도 나가고 비가 내려도 나갔다. 어머니들이 점심먹으러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청구를 해도 욕먹는 그때뿐이였다. 망둥어낚시질, 물이 찌면 갈게잡이, 그것들을 회쳐먹고 구워먹는 재미, 더우면 물에 뛰어들어 단 몸을 식히기도 하였다.

비가 내리던 어느날이였다. 잡은 망둥어들을 회쳐놓고 여럿이 먹고있는데 병주가 불쑥 일어서며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애들아, 우리 저 맞은켄 똑까지 헤엄칠 내기를 하지 않을래?》

《저거, 너 정신있니?》

한 아이가 기겁을 하며 반대했다. 종환이도 아득해서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100메터는 실히 넘는다. 밀물도 사정없이 밀려들어오고있었다.

병주가 그 애의 말을 단마디로 찌르며 고집하는 것이였다.

《난 겁쟁이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종환아, 너 자신있니? 창호랑 효성이랑 다 말이야. 지면 게를 스무마리씩 잡아바칠 내기야.》

(겁쟁이?)

종환은 자존심이 꿈틀거렸다.

《좋아, 내기하자.》

다른 애들도 중구난방으로 떠들며 따라나섰다.

《자, 시—작!》

병주의 구령에 따라 아이들은 저마다 물에 뛰어 들었다. 드디어 개펄을 건널 내기가 벌어졌다.

종환은 기운차게 헤엄을 쳐나갔다. 처음엔 자유영을, 다음엔 배영을 번갈아뎠다. 뒤돌아볼새도 없었다. 뒤따르는 애들의 찰방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동안 앞장서나가던 종환은 갑자기 조용해져서 뒤를 돌아보았다.

《엉?》

종환은 저도 모르게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이 돌아가고있었던것이다. 어떤 애들은 벌써 독에 올라 몸에 묻은 물을 털고있었다. 병주만이 완강하게 따라오고있었다. 종환은 떠난 거리를 나름으로 재어보았다. 개펄의 중간쯤되였다. 돌아가고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런데 돌아가재도 아득했다. 시꺼먼 하늘에서는 몇을줄 모르는 비가 계속 내리고있었다. 하늘과 색을 같이하는 바다, 하늘이 시꺼머니 바다도 컴컴했다. 갑자기 겁이 밀려왔다. 물속에서 괴물이 나타나 아래로 잡아당길 것만 같았다. 종환은 겁먹은 눈길로 병주를 바라보았다. 그도 마주보았다.

병주가 숨을 크게 내쉬며 물었다.

《너도 돌아가겠니?》

돌아가고싶다. 하지만 병주는 돌아서지 않을것이다. 만약 그냥 돌아가면 저 애들처럼 겁쟁이... 종환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끝까지 갈테다.》

종환은 두팔을 엇바꾸어 쪽쪽 앞으로 내밀며 힘차게 반원을 그어나갔다. 앞의 독이 다가왔다.

《다 왔다!》

독에 오른 종환은 기쁨에 넘쳐 웨쳤다. 뒤따라오른 병주도 두손을 높이 들며 소리쳤다.

《용감성 만세!》

돌아갈 때는 썰물이 시작되였다. 썰물은 종환이네를 퍼그나 바다쪽으로 밀어버렸다. 하지만 건너왔던 길을 되돌아간다는 생각에 자신만만했다.

독에 오른 종환과 병주는 긴장했던 근육을 풀며 동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길이 질적거려 걷기가 여간 말쑥지 않았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며 걸음을 옮기고있는데 처녀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아유, 너희들이 저기 헤엄쳐갔됐니?》

(?)

소리나는 곳을 돌아보니 독우에 달구지를 세워놓고 베어놓은 풀더미를 가리던 농장처녀들이였다. (김매기가 끝난 이맘때면 개펄에 나와 쪽쪽 갈베기를 하는 그들이였다.)

《너희들 장수갈구나.》

처녀들이 한껏 떠드는 바람에 종환은 으쓱해졌다. 그는 아득히 보이는 섬을 가리키며 빼졌다.

《고까짓거, 우린 저 섬에두 갔다올수 있어요.》

《어야나, 정말 장수구나!》

또 칭찬이다.

이때 빨간 비옷을 입은 처녀가 종환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너희들 졸업하면 우리 분조에 오렴.》

《그건 왜요?》

다른 처녀가 대신 대답했다.



《저 섬주변에는 갈이 많다더구나. 우리 분조장 동진 그 갈마저 다 베여오고싶어한단다.》

《에-에?》

종환은 기분이 잡혔다. 언젠 장수라더니?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이때 뒤에 섰던 병주가 툭 내쏘는것이였다.

《여기서 한생 소꼴이나 베랴요?》

분조장처녀가 그 말이 이상한지 되물었다.

《풀베기가 왜 나쁘다는거니?》

《어쨌든 이 질적지리는 개꺽에는 안 와요.》

병주는 또 거침없이 이렇게 내쏘았다. 맞갖지 않은지 씹씹거리며 흙탕물까지 바다쪽으로 차버렸다.

《그럼 너희들 뭘 하겠니?》

분조장처녀의 물음에 다른 처녀가 대신 말했다.

《분조장동지두 참, 이 애들이 이런데 있을게 뭐예요? 장수가 되구 영웅이 되려는 모양이에요.》

종환이 어째야 할지 몰라하는데 병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웁아요, 우린 영웅이 될테야요.》

말이 적은 그였으나 이때만은 거침없는 병주였다.

후에도 그들은 매일과 같이 개꺽으로 나왔다. 그리고 또 건넜다. 다음엔 그것도 성차지 않아 바다를 거슬러 멀리까지 갔다오곤 했다. 종환은 웬 일인지 더는 병주를 앞설수가 없었다. 푸-푸-숨을 크게 내쉬며 앞장에서 헤엄치는 병주를 보며 종환은 그가 큰 결심을 다진것처럼 생각되였다.

추억깊은 바다가의 개꺽이 종환의 눈에 정답게 안겨왔다. 개꺽으로 잊지 못할 어린시절의 사연을 안은 밀물이 세차게 밀려들고있었다. …

바다가 개꺽이 끝나는 곳에 수산사업소가 자리 잡고있었다. 기슭에 서있는 고기배들은 눈짐작으로도 수십여척은 실히 뒹직했다.

자동차는 사업소의 정문앞에서 멈춰섰다. 차에서 내려 건물안팎을 둘러보니 깨끗하고 정갈한 기업소의 환경이 단번에 눈길을 끌었다. 종환은 구내에 들어서서 돌아보기 시작했다. 설비들이 그 쫘했다. 플라즈마절단기며 직류용접기, 발동발전기와 정류기들이 이채로왔다. 공작기계들에서는 선반공들이 쇠밥을 말아올리며 배부속을 깎고있었다. 하나의 큰 선단을 방불케 하는 고기배들과 그쫘한 수리기지들, 읍거리의 가공반설비들은 능률적이고 현대적인것들이였다.

《당겨라!》 하는 웨침소리에 종환은 선창으로 나왔다. 바다쪽에서 큰 배가 어제밤 상가시켜 밤새 정비를 끝낸 배들을 끌어내린다. 치차처럼 움직이는 어로공들의 땀배인 얼굴이며 희열에 넘치는 모습은 설레이는 바다처럼 더없이 믿음직해보였다.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는군요.》

종환은 어로공들과 어울리다 곁에 온 비서에게

말했다.

《래일 출항해야 합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젓갈품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에-에, 돌아보니까 기업소의 능력이 이만 저만해보이지 않군요. 이런 설비들은 언제 다 마련했습니까?》

《병주동무가 인제받은 다음부터 갖추었습니다.》

《그 10년이란 기간에 말입니까?》

《지배인동문 더 많은 일을 하자면 현대적인 설비들로 갖추어야 한다면 대담하게 일판을 벌렸지요.》

사업소비서의 이야기를 들으니 병주가 일한 공로자료에 공감아 갔다.

배를 상가대에서 끌어내리는 작업을 불이 번쩍나게 끝낸 그들은 곧 귀로에 올랐다.

#### 4

가공반에 돌아오니 이번에도 병주가 없었다.

종환은 아무래도 병주를 만나려던 계획을 바꾸어야 할것 같았다.

휴게실에 마주앉은 그는 비서에게 직방 물었다.

《지배인동무의 파오라는게 뭡니까?》

《우리 지배인이 말합디까? 허참…》

비서는 멍적어했다.

《…하긴 그의 파오를 몰라서야 지배인동무를 다 알았다고 할수 없지요. … 젊은시절에 간석지건설장에 탄원한 그는 운전사로부터 서른안팎에 벌써 운수대대 대대장으로 되였답니다. 물론 지칠줄 모르는 투신력과 전개력을 빼놓고 생각할수 없는 것이였습니다.》

《!》

이건 종환도 이미 아는 일이였다.

《지배인동문 그때 파오를 범했습니다.》

《무슨 파오입니까?》

《자동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적재함에 실었던 소금과 된장, 간장들이 쏟아져 흙탕물에 씻겨내려가고 그 자동차는 종내 폐기되고말았습니다.》

《?》

《사고를 친 그날… 돌격대에는 후방물자를 실을 일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방물자를 실러갔던 그 자동차가 물자를 싣고오다가 길가에서 뒤집어지고말았습니다. 사실 그때의 길이란 비만 내리면 미끄러운 진창길이 되는데 그날은 비가 몹시 내리고있었습니다.》

그때의 이 고장을 종환이도 잘 안다. 간석지방인 이곳은 비만 오면 말이 아니였다.

《그런데 차사고야 운전사의 잘못이 아닙니까?》

종환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물었다.

《운전사의 탓이지만 병주동문 수리중인 차의 운전사에게 지시켰던거랍니다. 수송거리도 가까운 읍이어서 한탕쯤은 벌일 없을줄 알았으니까요.》

《에- 그런 실수를 했군요.》

종환은 그의 파오가 확정적이어서 실망이 왔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달가, 누구보다 규정에도 밝고 실무에 능한 사람이 간석지건설마감을 눈앞에 놓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일만 없었다면 지배인동문 평양에 소환됐을겁니다. 크게 표창도 받고 말입니다.》

《평양에요?》

종환은 어머니의 말이 생각나 놀라움을 금치 못 했다.

《예, 병주동무가 해임되어 우리 사업소에 내려왔을 때 그의 소환문제로 해당 일군이 왔었으니까요. 그가 하는 말이 실무에 능하고 전개력이 있는데다 나이까지 젊은 사람이 쉽지 않다고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모릅니다.》

《평양으로 소환될수 있었다?》

《지배인동문 지금도 그때의 일이 가슴에 걸려 피로와합니다. 젊은 시절 한때의 실수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리상이 그것으로 날개를 접는다고 생각했을테니까요.》

생각하면 그의 일생에 더없이 아쉬운 일이었다.

《웬걸요, 기회는 한번 더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요?》

종환은 놀라움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비서는 기억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현장에 내려와 일하는걸 보니 지배인동문 여간한 재간둥이가 아니었습니다. 기관속내에 귀신같이 밝은데다 여러가지루 기능두 높았습니다. 정열까지 넘쳐나서 밤을 패며 일을 했지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하늘의 별이나 알겠는지 누구도 몰랐단니까요. 게다가 전개력까지 비상히 높아 고기배들이 출항할 때는 따라나가 수시로 제기되는 소수리도 도맡아했습니다. 우리 사업소사람들은 복덩이가 왔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병주동무가 사업소에 들어온 그 첫해에 우린 바다에서 만가동출어일수를 보장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모든 배들에서 관철했으니까요.》

당위원회에서는 병주동무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의 근면한 성실성과 전개력을 보면 그는 보다 책임적인 직무도 능히 감당할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큰 사업을 감당할수 있는 사람을 끼고있는것은 사실 본위주의가 아닙니까.

우린 병주동무의 사업능력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보증하는 추천서를 상급당조직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는 떠나갔습니다. 모두가 섭섭한 마음으로

바래졌지요. 그간 너무 정들었던거지요. 그런데 다음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말입니다.》

《어째서 말입니까?》

종환은 부르짖듯 물었다. 《어쨌든 이 질쩍거리는 개꺽에는 안 와요.》 하고 내뱉던 병주가 왜 이땅에 다시 또 오게 됐는지 야릇하기만 했다.

《그가 돌아온것은...》 하고 말머리를 떼던 비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허공 어딘가를 더듬는듯 했다. 그러더니 《참, 지배인동무의 아주머니를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하는것이였다.

《아주머니도 여기서 일합니까?》

《여기 가공반 반장입니다. 만나보면 아마 리해가 충분할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환은 선뜻 응했다.

## 5

종환은 병주의 처 표순옥과 마주앉았다. 미모의 녀인과 마주하고보니 무뚝뚝해보이는 병주가 이녀성과 어떻게 인연을 맺었을가 하는 호기심이 앞섰다. 그래서 슬쩍 이렇게 물었다.

《반장동문 지배인동무와 같은 인격자를 어떻게 홀려냈습니까?》

살짝 올려뜯은 녀인의 아름다운 눈이 동그래졌다.

《홀리다니요? 제가 말입니까? 호호호, 사실은 그 반대랍니다.》

《그럼?》

종환은 호기심이 어린 표정을 지어보였다.

웃음을 피워올렸던 순옥은 진중해졌다.

《과장동지는 그걸... 그렇다면 들어주세요. 우린 간석지건설장에서 서로 알게 되었답니다. 저는 러단지휘부 종합에서, 세대주는 운수대대에서 대대장을 하면서 사업상연계를 가지게 됐던것이예요.》

하루는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아서 건설실적을 종합하고있는데 주인이 찾아와 직방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순옥동무, 나의 길동무가 되어줄수 없겠소?〉 하고 말입니다. 정말 뜻밖이였습니다.

저는 랭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대장동지, 우린 건설자들일뿐이에요. 지금은 근무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쌀쌀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번호판만 눌렀습니다. 각 대대들에서 제기되는 일보를 받는척 하면서 말입니다. 아마 러단에 하나밖에 없는 총각대대장이라 밀도 끌도 없이 들이대도 따를줄 알았던지. 하지만 그땐 저도 처녀의 자존심이 넘치는 시절이였습니다. 주인은 방을 나갔습니다. 목덜미가 뻗개져 돌아가는 그이를 보니 얼마나 우스웠던지 몰라요, 호호.》

종환은 순옥이 그랬으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아직도 반짝이는 정기어린 그의 눈동자가 처녀 시절의 모습을 상상하기에 충분했다.

《뚝쟁이같은 지배인동무가 혼쭐났군요.》

《뚝쟁이라니요? 원, 그인 락천가였고 꽤활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제 사무실창가에는 매일 꽃송이가 하나씩 놓여져있었습니다. 그이가 가져다놓은 꽃송이였습니다. 자기가 못 오면 운전사들까지 대신 왔어요. 그것도 6개월이나...》

《그래 꽃송이에 걸려들었습니까?》

순옥은 고개를 젓더니 사색어린 어조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사실 창가의 꽃송이는 운수대대가 알고려단이 다 아는 화제거리가 되었지만 저의 생각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출가한 만언니와 둘째 언니가 평양으로 저를 부르고있었습니다. 대상자의 사진과 소개신까지 보내면서 말이에요. 처녀시절에 평양은 얼마나 저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는지 모릅니다.》

《!》

종환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어느날 정치부장동지가 저를 부르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병주동무는 좋은 동무다, 그런 동무를 외면하면 일생을 후회하게 될것이다 하는 것이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주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매혹이 갑니다. 동무들과의 관계는 더없이 진실하고 젊었을 땐 인물도 미끈했어요, 호호. 재간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대직관물은 대대장인 그자신이 말다싶이 했는데 속보의 글자들이 살아움직이는것 같았고 운수대대 주변의 꽃밭을 가꾸어놓은걸 보면 저나려단내 처녀들도 막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녁이면 운수대대쪽에서 들리는 그이의 손풍금소리에 처녀들이 노래를 따라불렀답니다. 하지만 보다 저를 매혹시킨것은 건설장에 바치는 헌신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일보나 방송에 얼마나 많이 소개되군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린 결합되지 못했을겁니다.》

《듣고보니 반장동무의 요구성이 아주 높구만요.》

이 말에 수집음이 어린 순옥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이참, 내가 무슨 말을 했을가. 이러루한 것들이야 누구에게나 다 있는것이 아닙니까.》

깨끗한 마음이 헤아려지는 녀인의 수집어하는 모양을 보며 종환이 물었다.

《그렇게 만났으니 가정생활은 무척 행복했군요.》

밝은 웃음이 비껴있던 순옥의 눈빛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행복했다구요?》

《?...》

종환은 긴장해졌다. 묻지 말아야 할것을 물은것 같은 심정이였다.

창밖을 바라보는 순옥의 모습은 추연했다.

이윽하여 그는 고개를 돌렸다.

《갓 결혼한 저는 기쁨에 넘쳐있었습니다. 그이를 중앙에서 소환하려고 일군들이 내려왔던것이랍니다. 간석지건설의 위훈자인 그는 곧 건설의 완공과 함께 높은 표창도 받을것이였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것이였겠어요. 처녀시절의 꿈과 그이에 대한 믿음이 다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과오를 범했거던요. 글쎄 그렇게도 규정에 밝고 원칙적이던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는지...》

순옥은 더 말을 못했다.

종환은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 막 차올랐다.

《지배인동문 그후에 일을 잘해서 사업소당위원회와 종업원들의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다음에 있었습니다. 그인 사업소당위원회추천을 받아 더 높은 명마루에 올라설수 있는 선택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실지 군당의 책임일군과 그런 담화가 있었다나봐요.》

《당의 신임이 컸구만요.》

《그런데 그인 사업소로 다시 자진해갔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겁니까?》

종환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억이 막혀 말이 다 나가지 않았합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사업소일에 얼마나 재미들어했는지 아세요? 항상 바다에 나가 살았답니다. 어찌다 집에 들어와서도 <먹을거 좀 없소?> 아니면 <이 작업복을 빨리 손질해주오.>, 그리고는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종환은 또 물었다.

《반장동문 언제부터 여기서 일을 합니까?》

《아마 그때가...》

추억을 더듬는 녀인의 얼굴엔 진중한 빛이 어렸다.

《...주인이 수산사업소로 온지 꼭 10년이 되던 해 같아요. 아이들의 가을철운동회준비로 온 집안이 들쭉거리는데 주인이 불쑥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작업복과 생활도구들을 바꿔갖추고는 그길로 돌아서는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야속했습니다. 푸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당신은 어찌다 집에 오셨는데...》

문을 나서려던 주인이 주춤했어요. 잠시 섰던 그가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아무래도 말해야 할 것 같구만.》

저는 이상해지는 감정을 누르며 물었어요.

〈미안하다니요? 또 무슨 말을 한다는거예요?〉  
 〈내가 나라에 끼친 손해 말이요. 그간 모든 고기배들에 만가동출어일수를 보장하느라 하고 또 두척의 안강당선을 개조해서 바다에 띄웠는데 그렇게 힘껏 일하느라고 해도 마음속의 죄만은 씻겨지지 않는구만. 그러니 날 리해해주오. 난 또 일터에 나가야 하오.〉

〈?!〉  
 저는 사랑을 속삭이던 처녀시절처럼 심장이 방망이질하는것을 느꼈어요. 걱정을 누를수가 없었습니다. 전 애들이 보는것도 잊고 무작정 그이의 목을 와락 그러안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러니 여직껏 그때문에?... 어쩌면...〉

저는 남편의 터갈라지고 기름배인 두손을 어루쓸며 오열을 터쳤어요. 그이에 대한 다시 찾은 믿음과 함께 〈저한테 말하면 안되었나요?〉 하고 푸념도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을 도와야겠다고 말이에요. 막상 사업소에 달려오니 모든것이 부족했던 그때 고기배들의 만가동출어일수보장에 바쳤을 남편의 수고가 헤아려져 그이를 리해하지 못했던 지난날이 뼈저리게 가책됐습니다.〉

말을 마친 순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아름다운 두눈에는 맑은것이 고였다. 녀인은 피로왔던 그때가 아직도 맏히는지 이미 희여지기 시작한 귀밑머리를 쓸어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야기가 돌변하는 바람에 어리둥절해졌던 종환은 병주의 심정이 헤아려져 마음이 후터워났다. 처음에도 서둘러 말하지 않은것은 자신의 결심이 빈말로 되기를 원치 않아서이리라. 사업소당비서가 왜 부인을 만나보라고 했는지도 리해가 되었다. 인간의 마음을 경솔하게 진단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한편 병주가 꼭 개굴으로 다시 가야만 자신의 결심을 실현하는가 하는 의문도 슬며시 생겼다. 질책거리는 개굴으로는 안 간다던 그가 아니던가.

휴계실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섰다.

《반장동무, 제품들을 접수하러 왔소.》

《참, 이 정신 봐라. 그럼!》

순옥은 벽시계를 보더니 가볍게 눈인사를 하며 방에서 나갔다. 벽시계는 11시 30분이었다.

《이 시간이면 급양봉사기관들과 상점들에서 랭동수산물과 젓갈, 국수를 받아갑니다. 만나보니어떻습니까?》

비서가 웃으며 물었다.

《지배인동무의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배인동문 정말 일을 많이 했지요. 애두 많이 썼구요. 어떤 뎨 풍랑을 만나 생사를 판가리하는 갈림길에 놓이기도 했지요. 그래도 끄떡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욱 세차게

일판을 벌리지요. 이젠 고기잡이만이 아니라 대합조개양식, 왕새우와 해파리양어, 바다나물양식 두 하는 종합적인 수산물생산기지로 전변되는데 맞게 앞으로 가공품의 가지수도 더 늘이고 그 질을 높일 결심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배인동무의 애국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답니다.》

(애국의 마음에 한계가 없다!)

새로운 의미앞에 종환은 마음이 경건해졌다.

그들은 가공반을 나와 거리로 들어섰다. 이젠 작별할 때가 된것이다.

작별인사를 하려는데 비서가 물었다.

《우리 지배인동무에 대해서 다 료해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본인을 만나보지 못하고 가시는군요.》

종환은 그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아쉬움이 깔려있기때문이였다. 하긴 그건 종환이 역시 다들바 없었다. 그렇지만 병주가 혹시 외면하려 했다면?

《만날 사람이라면야 벌써 만났을겁니다.》

비서가 찡찡 웃으며 손을 저었다.

《허허, 마음쓰지 마십시오. 지배인동문 내가 잘 압니다. 그는 우리의 사회주의체도와 인민정권을 끝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파장동문 지금 병주동무앞에서 우리의 인민정권을 대표하고있구요.》

종환은 승엄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런데 만나지 못하겠군요. 매일 출항을 한다지요?》

《김장철이 다가오기때문에 하루빨리 젓갈품을 마련해야 주민들에게 공급할게 아닙니까.》

《그럼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사업소당비서와 작별한 종환은 오후에 인민위원회에 들러 나머지사업들을 마무리했다. 일을 끝낸 종환은 읍거리를 거닐기 시작했다. 도시에 못지않게 탁 트이고 깨끗이 포장된 거리였다.

새로 완공된 살림집지구가 안겨들었다. 멀리 바라보이는 개건된 농민휴양소며 군문화회관, 체신소며 도서관, 경기장에도 병주네 기업소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군내 주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생선이며 젓갈품들, 미역이며 김 등 맛좋은 식료가공품들은 더 말할것도 없다. 앞날의 계획은 오늘보다 더 방대하다.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끝없이 바쳐가고있을가.

종환은 지금까지 표창수훈사업을 하면서 내 조국의 명예와 영예속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을 수많은 알고있다. 소중함에 대한 지향, 깨끗한 량심이나 숭고한 감정

에 대한 지향, 찬란한 미래에 대한 지향... 미처 꼽을수도 없다. 병주는?

그의 생의 진가를 모른다면 그가 이룩한 성과들의 의미가 작아질것만 같았다.

6

서천수산사업소 가공반에 이른 종환은 바다작업을 떠나려고 봄비는 사람들속에서 병주와 당비서의 놀란 눈길을 보았다.

종환은 그들을 향해 마주갔다.

《나도 바다에 나가렵니다.》

《과장동무가요?》

놀란 병주의 미간이 좁아졌다.

비서도 난감을 표시했다.

《인차 돌아오지 못할겁니다.》

종환은 빙그레 웃었다.

《운반선이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없겠지요?》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들은 두대의 자동차로 떠났다. 뒤차에는 비서가 타고 앞차엔 병주와 종환이 나란히 앉았다.

자동차는 바다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운전칸은 조용했다. 운전사가 정적을 메꾸려는지 록음을 틀었다. 노래선물이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다.

...

그대가 비내리는 곳은 길 헤칠 때

내 발길 마른 땅 고른적 없던가

순간도 있다면 순간도 있다면

조국이며 말해다오

내 어이 그대의 내 어이 그대의

아들이라 부르라

종환은 이 노래를 병주가 사랑한다던 당비서의 말이 생각나 차창에 비낀 병주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표정을 알수 없던 그의 얼굴에 은근한 빛이 어려왔다.

이 사람은 어째서 자신의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할까.

생각에 잠겼던 종환은 반복되어 울리는 노래에 심취되고말았다. 자동차가 들추는 바람에 감상에 서 깨어나니 어느덧 개궤길에 들어서고있었다.

《벌써 개궤이 나지는군.》

잠자코 차를 몰던 운전사가 물었다.

《동진 이번 길에 개궤를 처음 봅니까?》

《아니요. 난 어릴 때 여기서 즐겨 놀았소.》

《바로 여기서 말입니까?》

운전사는 놀라와하는데 차창에 비껴진 병주의 모습에선 아무런 표정변화도 없었다.

종환은 그때의 추억을 돌이켜보이기 시작했다.

《우린 어릴 때 여름방학이면 저 개궤에 나가 살다싶이 했소. 미역도 감고 망둥어낚시질도 하고 갈게를 잡아 구워먹기도 하면서 말이요. ... 나중엔 저 개궤를 헤엄쳐건널 내기까지 했소. ...》

《물이 나드는데 말입니까? 원, 겁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운전사가 한껏 호기심을 표시했다.

《아니요, 그때 넘나들던 아이는 두명이었소. 나와 또 한 동무, 개궤를 넘나드는 우리에게 농장원처녀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오? 장수라는 것이었소. 그러면서 졸업하면 자기네 분조에 오라더군.》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운전사는 계속 흥미가 동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기분이 잡쳐졌소. 그 나이면 들끓는 건설장이나 일터에서 한몫 단단히 할 생각들을 하며 자랄 때니까. ...》

하지만 뜻밖의 권고라 할말을 못 찾고있는데...

이때 병주의 응글은 목소리가 침착하게 울렸다.

《결에 서있던 난 질척거리는 이 개궤으로 오지 않겠다고 했소.》

《?!》

《!》

종환과 병주의 눈길이 공간에서 부딪쳤다.

《그럼 우리 지배인동지와?!》

운전사는 너무 신기해서 환성에 가까운 소리로 부르짖었다.

《병주동문 나를 알아보았됐구만.》

《막 포옹하고싶었소. 그런데 안되더구만.》

《...》

운전칸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자동차는 어느덧 수산사업소마당에 들어섰다. 눈치 빠른 운전사가 두사람을 남겨두고 조용히 내렸다. 이미 먼저 나와 기다리고있던 기업소일꾼들과 뒤차에서 내린 당비서가 앞차에 왔다가 말없이 앉아있는 그들을 보고는 물러갔다. 그리고 일정대로 출항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종환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동문 왜 이곳에 다시 왔소? 사업소에서는 동무를 보증하는 추천을 해서 보내지 않았소?》

병주의 얼굴에 쓸쓸한 웃음이 비졌다.

《내 이제 뭘 숨기겠소. 옳소, 난 동지들의 추천을 받고 여기를 떠나게 됐소. 떠나던 날 당비서동무가 이렇게 말했소.》

《앞으로 책임적인 직무에서 힘껏 일해보오, 우리 로동계급의 기대를 잊지 말고.》

나는 눈물을 흘렸소. 인생의 새로운 선택을 다시 하게 해준 고마움의 눈물이었소. 동문 이 개궤를 헤엄쳐건널 때처럼 곧바로만 달려갔을테지만 나는 과오를 범했던 사람이 아니요. ...

하지만 다음날 돌아서 고맙았소. ...》  
병주는 더 말이 없었다. 그가 택한 선택의 진가는 그뒤에 있으리라.

《그건 무엇때문이였소?》

《조국에 끼친 손실때문이였소.》

《?》

《사업소를 떠나던 날 보슬비가 내렸소. 그때 사업소에서는 저녁에 자동차가 오니 타고가라고 했지만 흥분했던 나는 그냥 걷기 시작했소. 보슬비마저 축하해주는것 같았고 내가 밟는 땅도 감미롭게 느껴졌소. 그때 멀리서 달구지 한대가 오더니 길가에 서더구만. 그러더니 싱고온 석비레를 부리워 길가에 끌고루 퍼는것이였소. 그제서야 나는 이 길이 비만 오면 질척거리는 감탕길이 아니라 길옆에 아카시아나무와 코스모스까지 자라는 좋은 길이라는것을 알아보았소. 무심결에 물었소. 언제부터 이 길이 다져졌는가를 말ियो. 그런데 농장원이 하는 말이 자기네 작업반장이 처녀분조장시절부터 시작했다는것이였소. 여기 물놀이왔던 어떤 아이가 질척거리는 길이 싫다고 한 말을 듣고 가슴아파서 말ियो. 나는 여기 간석지벌에서 농사가 잘된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이 길에도 사연이 있을줄 몰랐소.

나는 모닥불을 뒤집어쓴것 같아 돌아보지도 못하고 내치 걸었소. 그런데 운명의 희롱이랄가. 나는 언젠가 자동차가 전복되었던 곳에서 그만 미끄러져 넘어질뻔 하지 않았겠소. 자그만 비에도 진창길이 돼버리는 길이 아니요. 문득 그날이 떠오르더구만.

역수로 퍼붓던 비, 제동을 쓰지 못해 넘어진 자동차, 흙탕물에 섞이어 씻겨내리는 소금더미와 기초식품...

무엇이 쿡 가슴을 쳤소. 그건 내가 조국에 끼친 손실이였소. 발길을 떼지 못하고 서있는데 방송에서 노래소리가 울려왔소. 지금 이 노래였소. ...

그대가 기나긴 밤 아픔에 잠 못들 때 내 편히 그 품에 잠든적 없던가, 그대가 비내리는 곳은 길 헤칠 때 내 편히 마른 땅 고른적 없던가. 나는 온 밤 잠들수 없었소. 이때까지 발편잠을 잔 내가 역스러웠소. 나때문에 자동차가 폐기되고 식품들이 날아났는데도 말ियो.》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그속에선 몸부림이 느껴졌다.

《동문 왜 자신을 그렇게 타매하오. 간석지건설장에서 발휘한 위훈, 파오를 씻기 위해 분투한 나날들이 영웅적위훈이 아니었던 말ियो?》

별안간 병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요, 거기엔 진심이 없었소. 어머니가 파괴된 자동차와 녹아 흘러내린 식품들을 놓고 가슴 아파하는데 나는 용서를 바라며 일을 했던것이요.

어머니는 잘못을 뉘우친 자식을 용서한다는 철없는 생각을 하면서 말ियो.

영웅적위훈? 아니요. 영웅이란 나처럼 들떠서 위훈을 떠들며 명예와 영예속에 잠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날의 처녀분조장처럼 어머니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말없이 진정을 바쳐가는 사람들이었던 말ियो. 영웅이란 바로 조국을 받드는 깨끗한 마음속에 있었소. 난 죄스러움에 견딜수가 없었소. 나는 조국에 끼친 손실을 꼭 내 손으로 씻고싶었소. 그래서 이곳으로 다시 들어오고말았소.》

종환은 감동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결국 동무를 위훈으로 떠밀었구만! 그런 각오로 살았기에 오늘 더없이 떳떳해진것이 아니겠소.》

《뭘요? 떳떳해졌다구?》

별안간 병주는 쏘아보듯 종환을 바라보았다.

《?...》

격해졌던 병주의 목소리가 다시 조용히 울렸다.

《아니요, 량심의 책임앞에서는 시효가 없었소. 때없이 떠오를 때면...》

더 진정할수 없는지 말을 맺지 못한채 운전실을 나가버렸다. 병주는 나갔으나 종환의 귀전에는 여전히 그의 음성이 웅— 하며 울렸다.

《아니요, 량심의 책임앞에서는 시효가 없었소. 때없이 떠오를 때면...》

《!》

종환의 온몸은 서서히 달아오르더니 갑자기 활활 타번지는 불길처럼 뜨거워났다.

아름다운 삶을 보는것 같았다.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는 자식이 있을까? 하지만 그 잘못을 영원한 마음속의 티로 새겨넣고 바치고 바치고 또 바쳐가는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돌아갔더라면 한 인간의 마음속에 태동하고있는 그의 진정을 스칠뻔 하였다.

록음기에서는 아직도 노래소리가 울리고있었다.

...

고요한 밤이면 스스로 묻고물네

내 잠시 그 은혜 잊은적 없던가

있다면 말해다오 있다면 말해다오

조국이어 말해다오

내 어이 그대의 내 어이 그대의

아들이라 부르라

선단은 출항준비를 끝냈다. 이미 밀물이 만조가 되어 떠나기 적합한 시간이였다.

배에 오르려는 종환에게 병주가 물었다.

《꼭 배를 타겠소?》

《음, 고기잡이전투를 보고싶소.》

《그럼 뛰어오르오.》

# 평화가 깃들지 않은 땅에서

## 민 향 속

이제라도 그 이름들을 부르면  
한달음에 달려올듯  
군모의 별처럼  
열정넘친 눈빛의  
20대 애젊은 전사들

서리찬 정적속에  
보이지 않는 불이 흐르는 최전선  
불질하며 달려드는 원수들을 짓조기며  
호랑이처럼 내닫던 전사들

영웅들의 분묘앞에  
말없이 꽃뭉음을 놓으며  
총가목을 더 굳게 틀어잡는 저 병사들  
그대들과 한초소, 한전호에서  
복무의 나날을 보내던 전우들인가

손에손에 꽃뭉음 들고  
다가서는 저 소년들은  
그대들이 초소로 오고가던 그 들길에서  
다정히 안아주고 배려주던  
그 귀염둥이어린이들은 아닌지

아직은 두려야 할

소중한 그 모든것을 뒤에 두고  
애젊은 청춘을 바친 전사들  
날마다 꽃피는 우리의 행복속에  
더더욱 눈시울 뜨거이 찾아오는  
불사신의 그 모습들

이 땅에 꽃피는 행복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전사들  
그대들의 가슴에 높뛰던 그 숨결  
세대를 이어 맥맥히 흐르나니

영웅들의 뜨거운 그 선혈  
수천수만의 가슴과 가슴들에  
점점이 복수의 불길로 타번지는 땅  
침략의 무리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무자비한 징벌의 활화산으로 터져오르리라

오, 영웅들의 분묘를 찾는 저 모습들  
무거운 침묵속에  
타끓는 분노와 증오를  
원수의 머리위에 불벼락 내릴  
징벌의 화약으로 재우고있어라

배에 오르려는데 파도가 출렁거려 발을 짚을수가 없었다.

《아니, 왜 그러오? 이전에 훌쩍훌쩍 뛰어들던 바다가 아니요.》

병주가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종환은 부끄러워났다. 정녕 아이적처럼 감히 뛰어 들수 없는 바다였다.

대화기에서 병주의 음성이 들렸다.

《선단 출항준비!》

모든 배들에서 일제히 시동소리가 울렸다.

통통통통—

《지휘선부터 1호, 2호, 3호순서로 출항!》

고기배들이 바다를 향해 출항하기 시작했다.

종환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끝없는 수평선이 마주오고있었다. 돌아보니 떠나온 기슭이 아득한 지평선이 되어 사라지고있었다. 지휘선의 뒤를 따라 물갈기를 일으키며 따라오는 고기배들을 보느라니 마치 해상전투에 참가하러 떠나는 전투함선들처럼 위용있어보였다.

병주의 지시가 울리기 시작했다.

《선단 주의! 조기폐 발견. 1호, 2호, 3호는 위로, 96호, 97호, 98호는 좌로 선회하라. 기타는 물결을 맞받아 진을 칠것!》

조기폐를 포위해서 잡자는 의도같았다. 지시를 받은 선단의 모든 배들이 재빨리 기동하기 시작했다.

종환은 끝없는 망망대해에서 고기잡이전투를 지휘하고있는 병주를 보며 생각했다, 키워주고 내세워주고 아껴주는 어머니조국에 끝없이 바치고싶어 하는 그의 한계가 없는 애국의 마음은 영원할 것이라고!

세찬 파도가 밀려왔다.

파도는 지휘선의 선수를 바다 한가운데 우뚝 올려세웠다. 그 배우에 서있는 병주의 모습이 종환의 눈가에 비껴들었다. 종환에게는 옷자락을 날리며 서있는 그 모습이 적함을 맞받아 돌진해가는 영웅의 군상처럼 숭엄하게 안겨왔다.

그 모습은 어떤 격량도 헤치며 끝끝내 도달하고야말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승리를 확신해주고있었다.

시 초

## 청 춘 시 절 일 기 중 에 서

김 재 원

### 첫 통 성

돌격대 첫날밤 우등불두리에 모여  
처음 만난 청춘들 노래부터 불렀네

노래로 가슴 끓는 시절이어서  
첫 도착성명이 아름다운 노래이던가

조국땅 방방곡곡 탄원해온 곳 달라

아직은 이름조차 모르는 사이

그렇건만 그 노래 그 감정 하나같았네  
저마다 고향에서 간직한 심장의 노래

아, 꿈결에도 그리운 장군님노래 함께 부르니  
통성없어도 우린 통했네 순간에 다 통했네

### 노 래 의 메 아 리

번쩍!  
번개치며 우리우는 구름우의 산정에도  
랑만에 넘친 청춘들의 노래

쨍쨍...  
강추위에 얼음장 터갈리는 물속에도  
열정에 넘친 청춘들의 노래

청춘이 노래이나 노래가 청춘이나  
노래소리 높은 곳에 청춘이 있더라  
청춘이 있는 곳에 노래소리 높더라

오오  
노래의 메아리는 청춘의 메아리  
청춘의 메아리는 시대의 메아리여라!

### 청 춘 시 절 의 사 진

꿈많은 청춘시절은  
사진찍기 즐겨하는 인생의 봄시절  
하건만 우리에게겐 한장도 없다네  
사진판에 찾아가 멋부리며 찍은 사진

있다네 애젊은 신입병사 그 시절  
사격에서 백발백중 우를 맞았다고  
영예의 꽃목걸이 걸어주며  
사단장동지 찍어준 그 사진

있다네 피끓는 돌격대 그 시절  
바줄라고 칼벼랑에 착암기 대일 때  
나도 모르게 천연색화보에 새겨진  
조국이 기억하는 랑만에 찬 그 모습

자랑과 위훈을 배경으로 해서만  
청춘은 웃으며 사진을 찍는다네  
그 사진만이 그 모습만이  
한생을 두고 보고싶어하는 모습이어서

### 꽃 과 청 춘

청춘은 꽃을 좋아하는 시절  
청춘은 꽃을 사랑하는 시절

꽃이 향기로와 좋아하던가  
꽃이 아름다워 사랑하던가

청춘 제가 창조의 꽃으로 피고싶어  
청춘 제가 혁신의 향기로 날리고싶어

그렇더라 청춘은 아름다운 시대의 꽃  
청춘은 조국이 사랑하는 향기더라

### 청 춘 과 전 승 기 념 략

방금 총포성 들릴듯 한 전승기념탑  
비발치는 탄우속에 의무에 충직했던  
저 영웅전사들의 군상속에서

청춘들아 부디  
리수복 강호영 리대훈만을 찾지 말라



찾으라 그 영웅군상들속에서  
 그대 자기자신의 모습을  
 찾기 전엔 오오, 제모습 찾아  
 영웅들곁에 뿔뿔이 세우기 전엔  
 그앞에서 가벼이 발걸음 떼지 말라

분명 있어야 하리 그 군상속에  
 그대 모습 나의 모습 우리모두의 모습이  
 그러라고 탑은 솟은것 아닌가  
 력사의 탑으로만 추억할수 없는  
 우리 삶의 표대로 솟은 전승기념탑이여!

## 영웅의 나이와 내 나이

나는 이따금 비교해보네  
 영웅들 나이와 내 나이를

있다고 다 영웅이 되던가  
 바쳐야 그것이 참된 영웅

그럴 때면 가슴에 피가 설레네  
 내 나이 영웅들과 동갑이어서

명령으로가 아니라 자기스스로  
 적화점도 막는 아름다운 그 삶

청춘에겐 모든 가능성 다 있지 않는가  
 힘과 지혜 용감성까지도

그 삶을 바쳐 나도 영웅이 되리라  
 이 시절... 인민의 추억속에 길이 남는

## 최 후 그 한 순간에

나를 세워보노라  
 최후  
 그 한순간에

총폭탄이란 무엇이라  
 날아가면 터지는것  
 폭발하는것  
 실체가 남는 불발탄이 되라  
 순간을 아끼면 일생 치욕이 되고  
 순간을 바치면 한생 영예로 빛나리

도화선은 다 탔어도  
 장약한 폭약이 아니 터질 때  
 주춤 망설이는 순간이면  
 다른 동지가 뛰어들 그 순간에  
 제 한몸 아껴 한자욱 드리면  
 그것이 곧 량심앞에 변절  
 그것이 곧 유혹앞에 투항

오오, 영예로 빛나자  
 붉은기앞에 선서한  
 청춘이여 나의 청춘이여!

고전시

## 의 기 가

김택영(1850-1927)

김정희 역

1

치마자락 펴쳤는듯 강물은 설레이고  
 의기의 뉘 어렸는듯 꽃들은 피어있네  
 원하거니 그대 유해 물속에서 얻는다면  
 천년세월 곁에 두고 보살피며 제 지내리

2

외로운 바위는 봄바람에 부서지고  
 거치른 사당에는 푸른 이끼 덧쌓여도

지금도 강우에는 그 녀인 서있거니  
 반달같이 고운 눈썹 물결에 비껴오네

3

선녀같이 춤을 추던 사랑스런 녀인이여  
 금수비단 단장했던 아름다운 녀인이여  
 그 꽃다운 아쉬워서 내 찾아와 불러보건만  
 강물은 소리없이 흘러만 가누나

※ 이 시는 진주기생 론개를 노래한 시임.

# 력사소설에서 시가의 합리적인 리용

김 선 일

생활이 있는 곳에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 곳에 생활이 있기마련이다.

노래가 없는 인간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리는 문학예술작품에서 노래가 울리는것은 응당하다. 현대인들의 생활을 그리는 지나간 력사적시대의 인간생활을 그리는 노래는 반드시 있기마련이다.

력사소설에서 시가형식을 리용하게 되는것은 이러한 생활과 음악의 유기적결합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오랜 옛날부터 남달리 시와 노래를 사랑해온 재능있고 문명한 우리 민족은 력사발전의 매 단계마다 자기의 고유한 시가유산을 창조하면서 풍부한 정서생활을 누려왔다.

우리 민족의 시가유산에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재능이 반영되어있으며 슬기롭고 애국적이며 근면한 조선인민의 사상정서세계가 구현되어있다. 따라서 지난 력사적시대의 조선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하는 력사소설에서 시가를 적절히 리용하는것은 력사를 보다 진실하고 정서깊게 그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시대, 모든 문학에 그대로 맞는 형태와 종류란 있을수 없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형태와 종류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문학예술의 매 형태에는 자기의 묘사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

현실생활자체가 다양하게 존재하는것만큼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는 매 문학형태에는 서로 다른 묘사방식이 침투할수 있으며 이것은 일정한 범위에서 생활을 보다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그리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서정적묘사방식에 서사적, 극적방식이 침투하게 되고 극적묘사방식에 서사적, 서정적방식이 침투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서사적묘사방식에 서정적, 극적방식이 침투하면서 문학형태들은 자기의 기본묘사방식을 보다 발전시켜나가게 된다.

이것은 소설문학에 시가 있을수 있으며 묘사와 조화롭게 결합된 시가 소설적묘사의 위력을 더욱

살리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의 력사소설들에서는 현대소설문학이 개척한 묘사방식들의 호상침투형식을 적절하게 리용하여 적지 않은 예술적효과를 달성하고있다.

력사소설에서 시가형식은 무엇보다도 해당 력사적시대의 생활환경과 분위기를 살리는데 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와 노래는 해당 력사적시대의 지향과 분위기, 인간의 정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력사소설에서 당대에 널리 불리워진 시와 노래를 적절하게 리용하는것은 인물들의 생활환경을 정서적으로 살리는데서 의의가 크다.

장편소설 《성벽에 비낀 불길》(박태민 작)에는 이른새벽 배를 타고 대동강을 오르면서 조찬보가 부르는 흥겨운 민요가락이 울리고있다.

대동강 푸른 물에  
배가 떴네 달이 솟네  
열씨구나 두등실  
절씨구나 두등실  
달맛이 가세나  
님맛이 가세나

강바람에 실려 젖빛안개속에 잦아드는듯 하면서 온 대동강반에 구성지게 울려퍼지는 노래소리, 어디라 없이 구슬픈듯 하면서도 맑고 랑랑하게 울려퍼지는 이 민요는 유구한 평양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과 더불어 자기들의 삶을 누려오는 우리 인민의 밝고 낙천적인 생활정서를 한껏 살리고있다.

원래 민요는 오랜 력사적기간 우리 인민들속에서 즐겨 불려오던 민족시가의 대표적형태의 하나로서 그 종류와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생활정황을 정서적으로 묘사하는데서 민요의 역할은 매우 크다.

또한 장편소설 《울릉도》(리성덕 작) 등에서도 여러가지 민요를 생활정황에 맞게 적절히 리용함으로써 형상적화폭을 보다 정서적으로 기름지게 창조한 좋은 창작경험을 보여주고있다.

해당 력사적시대의 시대적분위기와 생활정황을 정서적으로 펼쳐보이는데서 시조형식을 리용하는것도 효과적이다.

중세기에 발생발전한 시조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문화정서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시조를 적절히 리용하면 해당 인물의 심리정서적 체험세계를 개방하면서 당대의 시대적분위기와 정서를 살리는데서 효과를 볼수 있다.

장편소설 《불우한 련사》(림종상 작)는 20세기 초 망국으로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을 두고 가슴치며 통탄하면서 타향으로 떠나가던 우리 인민의 울분의 정서를 반영한 시조를 적절히 리용하고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내가 가면 아조 가며  
아조 간들 영 잊을소나

제물포에서 이민으로 떠나면 미국으로 가는 주인공 장인환의 서글픈 심리를 도산 안창호가 지었다는 《심주가》(마음의 배)로 표현하고있다.

멀어져가는 고국산천을 바라보면서 주인공이 부르는 이 노래속에는 당대의 시대적분위기와 정서가 있다. 이러한 서글픈 정서는 하와이에서 이민생활을 끝내고 샌프랜시스코로 공부하기 위해 떠나는 대목에서 더욱 깊어진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었노라 까불대는 이 시운이  
나의 등을 떠밀어서 너를 떠나가게 하니  
이로부터 여러해를 너를 보지 못할지라  
그동안에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일하리니  
간다고 슬퍼말아 나의 사랑 한반도야

20세기초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던 《거국행신도》(나라를 떠나 새 섬으로 가노라)이다.

작품은 이러한 시조를 리용하여 고향에 홀로 남은 누이와 삼촌의 만류를 뿌리치고 오로지 문명개화로 국권회복을 이루어볼 꿈을 안고 떠나던 미국으로 떠나는 주인공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서글픔과 울분을 참으로 눈물겹게 밝히고있다. 그러면서 망국의 비운이 짙게 드리운 당시의 시대적환경과 정서를 적극 살려내고있다.

력사소설에서 시가형식은 다음으로 인물들의 내적체험세계, 심리세계를 정서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리용되고있다.

문학에서 산 인간의 성격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자면 그의 사상과 의지뿐아니라 감정과 정서

까지도 섬세하게 그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자면 인간의 외형적묘사보다 내부적체험세계에 깊이 파고들어 그의 심리적움직임, 정서적파동을 예리하게 밝혀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여기에서 시와 노래를 리용하는것은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로 된다.

현실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체험의 산물인 시가 인물의 심리정서를 생동하게 밝혀내는데 이바지하리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장편소설 《개화의 려명을 불려》(박태민 작)에는 주인공 김옥균이 결사의 각오를 품고 정변거사를 단행할 결심을 다지는 장면이 있다.

오래동안 모색하고 준비해온 과정에 확고히 굳어진 자기의 결심을 동료들에게 피력한 김옥균은 두눈을 지그시 감고 시를 읊는다.

백두산석은 마도진이요  
두만강수는 음마무라  
남아이십 미평국이면  
후세수칭 대장부리오  
(※백두산돌은 칼을 갈아 다하고  
두만강물은 말을 먹여 말리리  
사나이 스물에 나라 평정 못하면  
후날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작품에서는 20대의 남이장군의 시를 리용하여 불타는 애국충정을 품고 고루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문명강국을 세우려는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청년들의 높은 뜻과 굳센 의지를 정서적으로 표현하고있다.

력사소설에서는 지나간 과거의 시대와 인간생활을 반영하는것만큼 여러 민족시가형식을 리용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망탕 시가를 인입하게 되면 도리어 형상에서 손해를 볼수 있다.

시가를 리용할수 있는 계기가 적절하면서도 인물의 체험과 그가 처한 생활적환경과 조건, 지적수준에 알맞게 리용할 때 형상의 진실성을 보장하면서도 정서적색채를 돋굴수 있다.

장편소설 《개화의 려명을 불려》에서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여 옥화가 부른 《목계가》, 장편소설 《불우한 련사》에서 주인공 장인환이 즐겨 읊은 한 시조 《가노라 삼각산아》 등은 해당 인물의 성격적특질을 보다 생동하게 살려내면서 형상의 정서성을 보장하는데서 시가의 리용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력사소설은 대체로 실재한 력사적인물을 그리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역사적인물이 생존시에 직접 창작한 시가를 역사적사실과 결부하여 리용하는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장편소설 《작품》(림종상 작)에서 사육신이 최후의 시각에 지은 시가의 리용이 그렇다.

작품은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이 역적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을 때 남긴 시조를 그대로 살려쓰으로써 형상의 진실성을 보다 강화하고 작품의 예술적정서를 보장하고있다.

력사소설에서 시가형식은 또한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맺어주고 사건발전에 대한 예상과 기대를 암시하면서 극적흥미를 정서적으로 안받침하기 위해 리용되고있다.

문학작품에서 인물들의 호상관계는 사상정신적인 관계로 맺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시가를 통해 보여주는것은 효과적이다.

장편소설 《울릉도》에서 주인공 안룡복과 박어순이의 사랑관계를 노래한 민요를 보자.

저 건너라 미나리강에  
미나리 캐는 저 처녀야  
너는 종종 미나리 캐고  
나는 종종 풀만 벤다  
눈을 주니 니 모르고  
손을 치니 남이 알고  
던진다고 던진 돌이  
발등에라 툇 떨어져서  
홀쩍홀쩍 우는 소리에  
대장부 간장이 다 녹는다

자신들의 창조적로동으로 삶을 누려가는 청춘남녀의 순결한 사랑세계를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는 이 민요는 주인공들의 사랑관계를 참으로 정서깊게 표현하고있다.

인물들의 사랑관계를 시나 노래로 표현하고있는 실례는 이여의 력사소설들에서도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력사소설에서는 다양한 시가형식이 리용된다.

그중에서 시대적사변을 예언하고 민심을 반영한 참요의 리용은 독특한 형상적효과를 달성할수 있게 한다.

풍자해학적인 성격을 띠는 민요의 한 형태로서의 참요는 봉건시대 통치세력의 반인민적죄행과 정치의 부패성을 풍자폭로하고있다. 이러한 참요는 정치적예언, 선동성을 띠고있다. 따라서 력사소설에서 해당 력사적시기에 인민들속에서 불리

워진 참요를 리용하는것은 해당 사건의 발전전망에 대한 예측과 기대를 조성하면서 극적흥미를 정서적으로 돋구어주는데 이바지한다.

장편소설 《개화의 러명을 불러》에는 김옥균이 일본과의 국채교섭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후 동대문밖숲속을 거닐 때 목동의 흥타령을 듣는 장면이 있다.

일가간 싸움엔  
량반이 일등  
머느리 잘 두면  
포도청 가지  
예루와 얼시구  
멋들어간다

암탉이 올면  
집안이 되나  
날날이 집짓기  
대들보 썩네  
예루와 얼시구  
멋들어간다'

단순히 웃어버릴 흥타령이 아니다.

노래속에 가시가 돋힌 별스러운 노래이다. 노래는 은유적수법으로 민비와 봉건적전제정치에 대해 가차없이 비웃고있다.

그 누가 지은것인지는 몰라도 향간에 퍼져 목동의 입에까지 오른 이 노래는 당대 인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흐르고있는지 알수 있게 할뿐아니라 장차 개화파의 일은 민비의 간특한 책동으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는것을 예언하고있다. 이 노래는 그토록 간고하게 기록하여놓은 정변거사를 뒤집어엎을 흥계를 품은 민비의 작간에 의해 거사가 파탄의 위기에 몰린 시각 김옥균의 뇌리에 다시 떠오른다.

민비를 한껏 야유한 노래가락의 예언은 바로 맞았던것이다. 소설은 이처럼 참요의 효과적리용으로 력사적사변의 앞날을 정서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이러한 실례는 다부작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3부 박태원, 권영희 작)에서 《록두새》를 리용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력사소설에서 시가는 이밖에도 다양한 형상적효과를 달성할 목적으로 리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예술적형상창조의 여러가지 수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구리용하여 주체소설문학의 화원을 더욱 훌륭히 꽃피어나가야 할것이다.



# 집은 무성한 길

유리 나기빈

오대성 역

애정을 자아내는 그 이상한 소년을 만났던 것이 꿈일까 생시일까? 그러나 길쭉구와 우영, 도꼬마리, 싱아, 사슴국화파워 풀들이 무성한 자갈도로가 실지로 있었듯이 나는 정말 그 소년을 만났었다. 만약 꿈에서 보았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에는 척 보기에 아무런 특징도 없는 그 소년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아주 생동한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충격적인 일은 항상 우리곁에 있다. 손을 내밀어 보라. 그러면 너의 손에 잡힐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의심치 말자!

그날의 일도 자그마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별장울타리 북쪽편의 누기찬 오리나무숲에는 놀랄만치 버섯이 많았다. 잎사귀가 날카로운 새초속에 돌아난 버섯들은 그저 군데군데 무성하게 돋은 것이 아니라 아예 누르무레한 갈색으로 땅을 짙혔다. 바람에 뒤집힌 우산모양의 버섯줄기에는 애기버섯들이 다닥다닥 돋았는데 하얀 모달리천을 댄듯 한 둥글둥글한 갓마다에는 이슬방울이 맺혀 있었다. 벗어든 적삼에 버섯이 한가득 차자 나는 별장으로 뛰어가 쏟아놓고 숲으로 되돌아왔다.

오리나무숲에는 버섯말고도 개구리들이 득실득실했다. 버섯을 따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손가락 짚으로 빠져져나가는 개구리의 징그럽고 차거운 몸통아리에 깜짝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아마 버섯과 개구리사이에 서로 생존조건을 보충해주는 그 어떤 알지 못할 관계가 있는가보다.

버섯을 따는 즐거운 시간이면 늘 그런 것처럼 나는 번덕을 부렸다. 크지만 쇠여버린 버섯은 돌아보지 않았다. 작아도 생신하고 질긴 버섯을 따는 그중에서 먹음직하고 깨끗한 멧쟁이버섯들을 고르기 시작했다. 이런 괴벽스러운 놀음을 하느라고 나는 숲속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버섯은 차츰 적어지더니 이젠 눈에 띄우지도 않았다. 그러나 술한 버섯을 험사리 찢던지라 그것이 아쉽지 않았다.

나는 별장에서 멀어질수록 새라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낯설은 수림속을 헤매었다. 습지대는 구릉지대로 변하여 발밑의 땅은 굳어졌으며 습지대의 식물은 고사리와 속새풀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었다. 그다음에는 습기와 썩은 내가 떠도는 오리나무숲이 시작되었다가 훌쩍 끝나버렸다. 대신 밝은 우유빛갈의 하얀 봇나무와 진주같이 창백한 사시나무가 나타났고 그밑에는 키낮은 잔디가 촘촘히 자란 명주같이 보드라운 풀판이 펼쳐졌다. 나무가지사이로 엇비스듬히 떨어지는 햇빛은 안개를 실실 피워올렸다.

나는 상쾌한 버섯냄새가 질게 풍기는데다 흙이며 검부레기가 묻은 적삼을 걸치고 그냥 앞으로 나갔다. 마음속엔 호기심과 함께 불안이 갈파들었다. 이제는 내가 퍼그나 멀리 왔으며 늘쌍 다니던 낯익은 이 오솔길을 따라 더 가면 집에서 상당히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리나무숲속의 어지간히 넓은 공지에 밝고 정

같은 봇나무와 사시나무들이 자라고있는것이 이상 야릇한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봇나무와 사시나무 주변엔 오리나무가 빼곡이 둘러서있었다. 나는 이곳의 지형을 잘 안다. 드미뜨롭스끼대통로쪽이라든가 우리 별장쪽에서 그리고 수평선너머로 나지막한 언덕들이 솟아있는 진펄쪽에서 보면 숲 변두리는 오리나무로 짝 차있다.

앞으로 나갈수록 나무들은 더욱 뻥뻥이 몰려있고 나무들사이의 좁은 공간엔 삭정이들이 짝 차있었다. 풀은 허리를 치고 은초대마냥 흰칠하게 자란 장미빛꽃들은 키를 넘었다. 앞으로 뚫고나가기가 힘들었고 나무가 너무도 우거져서 푸른 하늘은 한쪼박도 보이지 않고 어둡시군했다. 바로 거기서 나는 그 소년을 만났고 그 하루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도 벌어졌다.

소년의 키는 그닥 크지 않고 몸은 호리호리했는데 좁은 얼굴에는 테가 검고 굵은 둥근 안경이 걸려있었다. 그 애는 마치도 남새밭 김을 매듯 언제인가 닦아놓았던, 그러나 이제는 잡초투성이가 된 자갈도로의 풀을 뽑고있었다. 벌써 어지간히 넓은 구간의 풀을 뽑았는데 그곳에는 푸른빛과 연분홍빛이 도는 희끄무레한 둥근 자갈들이 촘촘히 배겨있었다. 소년은 풀만 뽑는것이 아니라 제손으로 만든 다짐봉으로 우묵진 곳에 자갈을 채워 다지며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것이였다.

《안녕하세요?》

소년은 내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인사했다. 투명하고 평평한 둥근 안경알속의 커다란 갈색눈에는 반가운 빛이 어려있었다.

《수고하누나.》 하고 나는 답례를 하고 물었다.

《넌 왜 안경을 끼었니? 그 안경은 무도수같은데...》

《먼지때문예요. 바람이 불면 길은 온통 먼지에 휩싸이는데 나는 결막염을 앓거든요.》

소년은 약간 빼기듯이 말했다.

《헌데 이진 어디로 가는 길이나? 난 이 길을 처음 보는데...》

《나도 몰라요. ... 저를 좀 도와주지 않겠어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나서 허리를 굽혀 웃초리가 진득진득한 김북은 가시풀들을 잡아뽑았다. 그 다음엔 씨가 가득 들어차 마치도 탐스러운 목화송이같은 검은색의 마른 꼬투리들이 달려있는 어떤 기다란 풀을 쥐어당겼다. 땅속으로 열기설기 뻗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뿌리때문에 잘 뽑히지 않았다. 나는 손바닥을 굽히면서도 끝내 그놈을 뽑아버렸다. 제길할, 헐치 않군! 안경을 낀 이 소년의 손이 온통 굽히여 피가 진것이 까닭이 있었구

나. 나의 혈기는 단번에 쑥 기여들어가고말았다.

《애, 그런데 넌 왜 이 일을 하니?》

나는 영문을 알수 없어 소년에게 물었다.

《길바닥에 풀이 덮인것이 보이지 않나요?》

그 애는 무릎을 꿇고앉아 나무꼬챙이로 땅바닥에서 풀뿌리를 뜯어내며 말했다.

《길을 깨끗이 정리해야 하잖나요.》

《어째서?》 하고 나는 끈질기게 물었다.

《어째서라니요?!》

소년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차근차근 말했다.

《잡판목과 풀뿌리때문에 도로가 못쓰게 되거든요. 이전에는 자갈들이 차곡차곡 깔려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설괴어졌나 좀 보세요. ...》

《내가 묻는것은 그 뜻이 아니다. 왜 도로가 못쓰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말이다?》

소년은 안경다리를 쥐고 핵 안경을 잡아챘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싶은데 먼지가 뿌옇게 오른 안경알이 거치장스러운 모양이다.

그 애의 눈가에는 눈시울을 따라 가느다란 붓으로 그려놓은것 같은 빨간 금이 알릴락말락 나있었다. 아마 소년은 이것때문에 결막염이라고 말한 모양이였다.

《만약 길이 못쓰게 되면 차츰차츰 없어져서 사람들은 이 길이 있었했다는것도 모르게 될거예요.》

《넌장, 제기랄것!》

나는 흥분되어 말했다.

《이파워 길로는 그 어디로도 못 가!》

《어떤 길이든 다 그 어디론가 뻗어있어요.》

확신에 차서 짙막하게 말한 소년은 다시 안경을 끼더니 일을 시작했다.

《생각 좀 해보세요. 만일 이 길이 그 어디로도 뻗어있지 않다면 어째서 닦아놓았겠나요?》

《그러나 이진 필요없어서 내버린 길이 아니냐? 그러니...》

소년은 훌쭉한 얼굴을 찡그리고 풀뽑기를 멈추고 생각에 잠겨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갈색눈에는 이처럼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을 남에게는 납득시키기가 몹시 어렵다는 속대사가 어려있었다.

《이 길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지금은 버린것이라고 해도 언제인가는 필요해서 닦은것일게고 또 어느때인가는 다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나요?》

이 길이 비록 크지는 않아도 우리 땅우에 우리 사람들이 어디로인가 가기 위해 닦은것이거던요》

소년은 손가락끝으로 안경을 추슬러올리더니 말

을 이었다.

《그리구 저쪽 이 길 끝에서 누군가가 이 길을 정리하고있을수도 있지 않나요? 난 그렇게 믿어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마주오고있고... 우린 반드시 만나게 돼요.

이 길이 풀에 뒤덮이게 놔두면 안돼요. 나는 꼭 이 길을 정리하고야말겠어요.》 하고 소년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에겐 힘이 부칠게다.》

《내 혼자 힘으로야 안되지요. 그러나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해 마주오고있어요. 아마 벌써 거의 절반이나 축냈는지도 모르지요.》

《너 이 길이 꽤나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구나!》

《길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길이 없으면 아무도 만날수 없을테니까요.》

나에게는 알쏭달쏭한 생각이 들었다.

《너희 집에서 누가 멀리 떠나갔느냐?》

소년은 그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내 줌 도와주마!》

나는 저도 모르게 큰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소년은 조용하나 진심어린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매일 아침 여기로 오면 돼요. 오늘은 늦었어요. 집으로 갈 때가 됐거든요.》

《너희 집은 어디냐?》

《저기예요. ...》

소년은 수림쪽을 손질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풀단에 손바닥을 씻고 안경을 건사하더니 다시한번 애정이 어린 갈색눈으로 나를 바라보고나서 집으로 향했다. 온통 먼지투성이의 지치고 허약한, 그러나 강의한 도로관리원은 곧 인동덩굴너머로 사라졌다.

다음날 아직 노을도 피어오르지 않은 꼭두새벽에 나는 숲을 향해 걸어갔다. 기다란 풀들이 뒤엉켜 헤쳐나가기가 힘든 오리나무숲은 살가죽에 닿으면 물방울로 변하는 질은 안개속에 휩싸여있었는데 장글이라든가 썰물진 바다기슭을 연상시켰다.

간밤에 내린 비는 자연계의 모든 생명에 커다란 활력을 부여주었다. 한뼘이나 더 자란 엉겅퀴는 더욱더 푸르러졌고 어제는 최면술에라도 걸렸겠는지 보지 못했던 버섯송이들이 다닥다닥 돋았다. 풀잎에 맺힌 진주같은 물방울들에는 생신하고 쩡한 기운이 돌았다. 마술에라도 걸린듯 밤새 훔썩 커진 개구리들은 불손하게도 길을 가로막고 앉아 있었다.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젖었지만 가슴짜릿한

조급성에 사로잡히어 잡초무성한 자갈도로에서 소년과의 감격적인 상봉을 머리속에서 미리 그려보며 오리나무숲을 꿰질러 걸었다. 소년의 마음이 이제는 나에게 리해가 된 모양이었다.

얼마 품을 들이지 않고도 그 길을 찾을것 같았다. 그건 식은죽먹기나 같은것이다. 그저 오리나무숲을 곧추 꿰질러 봇나무와 사시나무들이 서있는 공지를 지나 바람에 떨어진 삭정이들로 짝 들어찬 다른 또 하나의 자그마한 봇나무숲을 지나면 무성하던 잡초들이 뿔히우고 자갈들이 드러난 정리된 구간이 나질것이다.

그러나 나는 잡초에 뒤덮인 그 길을 찾지 못했다. 나무와 풀, 바람에 넘어진 나무그루, 무성하게 자란 켜기풀들, 키넘게 자란 초대 비슷한 장미빛의 꽃들, 그 모든것이 어제 그 장소의것과 비슷했지만 도로도 갈색눈의 소년도 없었다.

나는 풀대와 마른 나무가지에 온통 활썩 발로 끼니마져 번지면서 저녁노을이 질 때까지 지치도록 헤맸으나 보람이 없었다. ...

그후 나는 한번도 그 소년을 만난적이 없다. 하지만 길은 어디에나 있었고 그 길을 매일같이 걸었다.

해가 바뀔수록 나에게는 소년이 했던 말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안겨왔다. 나의 마음속에는 각이한 사람들에게로 향한 수많은 길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한 길,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사람들과 거의 기억에서 삭막해지는 사람들에게로 향한 길...

바로 이러한 길들에는 반드시 내 손이 가야 했고 그리하여 나는 스스로 이 일에 나섰다.

나는 품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가시풀과 켜기풀, 그밖의 모든 불필요한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곤 하였으며 잡초가 무성해져 도로가 파괴되고 못쓰게 되지 않게끔 하였다. 하지만 이 일에서 내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매번 다른 한쪽끝에서 사람들이 마중왔기때문이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들도 언제 어디선가 그 소년을 만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 소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을까. 아마 남모르는 곳에서 길에 덮인 잡초를 뽑으며 땀을 흘리고있을것이다. ...

나는 이 일을 할 때면 늘 그 소년이 눈앞에 떠오르곤 한다.

애국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런 어리고 자그마한 싹이 자라서 장차 애국이라는 무성한 가지를 펼치게 되는것이 아닐까?

## 쿠바의 혁명적시인 니콜라스 길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다른 나라의 문학에서 이룩된 진보적인것 가운데서 우리의 문학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것은 주체적인 립장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쿠바시인 니콜라스 길렌(1902—1989)은 까마구에이주의 신문기자의 아들로 태어나 소년시절부터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조국과 인민이 당하는 수난과 고통을 함께 체험하였다. 후에 그는 아바나종합대학에 다니다가 중퇴하였다.

진보적기자였던 아버지가 친미독재자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하자 작가는 계급적분노를 안고 반미반독재투쟁에 나섰으며 1919년부터 근로인민의 립장에서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창작을 시작하여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반동정권을 반대하는 수많은 시들을 썼다.

이때 네그리스모운동(1930—1950년대사이에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사회정치 및 문화운동)에 참가하였다. 시집 《손의 모찌브》(1930), 《손고로 꼬손고》(1931) 등에 실린 시들은 바로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이다.

이 시집들에서 작가는 쿠바의 근로인민, 특히 흑인들의 고된 노예살이와 노동, 슬픔과 기쁨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또한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호소를 담은 시집 《서인디아주식회사》(1934)에서는 쿠바의 사회경제적문제를 더 심오히 파고들었다.

길렌은 1937년에 공산당에 입당하고 반파쑈투사로서 에스빠냐에서 진행된 제2차 국제작가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이 기간에 서사시 《에스빠냐, 네가지 슬픔과 한가지 희망에 대한 서사시》(1937)를 썼다. 그는 또한 제2차 세계대전시기 반파쑈평화운동의 앞장에 섰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쿠바평화운동의 저명한 활동가로서, 반제반독재투사로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다가 바티스따독재정권에 여러번 체포되었으며 1954년부터 1959년 쿠바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창작활동을 계속 벌려나갔다.

이 시기에 창작된 시들은 시집 《날아가는 인민의 비둘기》(1958)에 들어있다.

혁명승리후 조국에 돌아온 길렌은 1961년부터 쿠바작가예술인동맹 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쿠

바문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시문학을 계속 창작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서는 시 《1월의 광장에서》, 《단결》, 《영원한 붉은 피》 등과 사회주의쿠바의 새 생활을 노래한 시집 《모든것은 나의 것》(1964), 《대동물원》(1967)이다.

길렌의 시들은 투철한 반제반미평화옹호정신과 자주성옹호의 정신으로 일관되고 흑인구전가요 형식에 의거하면서도 시대정신과 주제적요구에 맞게 개작하여 현대쿠바시문학의 독특한 민족적성격을 살리었으며 소박하고 통속적인 언어표현으로 하여 서정이 진실하고 인민적인것이 특징이다.

길렌 시문학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쿠바인민의 혁명적투쟁정신을 열렬히 노래하면서 미제의 침략과 봉쇄를 끝까지 이겨내고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려는 신념과 의지를 토로한것이다.

시 《1월의 광장에서》는 해방을 맞이한 쿠바인민들의 기쁨과 투쟁열의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혁명승리를 기념하는 1월1일혁명광장으로 뻗은 거리거리로 밀려오며 물결치는, 손에 손마다 기발을 들고 격동과 기쁨에 넘쳐 달려오는 남녀로소, 각계층 군중의 환희에 찬 모습, 푸른 하늘엔 흰 비둘기 떠도는 정경을 보여주면서 노예살이에서 벗어난 환희와 피로써 얻은 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려는 결의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특히 시 《영원한 붉은 피》에서는 자기 수령과 조국에 무한히 충실하였던 혁명전사들의 영생을 소리높이 구가하면서 그들의 뜻을 끝까지 지켜갈 결의를 노래하였다. 작품에서는 《피델, 조국을 위하여 이 몸을 바칩니다》라는 전투적구호와 혁명에 바친 전사의 붉은 피는 마를줄 모르며 영원하다는 뜻깊은 형상을 통하여 쿠바혁명은 승승장구할것이며 그들의 생명도 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영원하리라는 감동깊은 사상을 노래하고있다.

하여 이와 같은 작품들은 제국주의원흉인 미국의 코앞에서 사회주의붉은기를 높이 든 쿠바인민이 내외원썹들의 온갖 반사회주의적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길렌 시문학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미제국주의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고 반제



반미전선에서의 국제적련대성을 호소하면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혁명적단결의 사상을 노래한 것이다.

특히 그는 반제투쟁정신을 담은 시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시 《양키 물러가라》에서는 꾸바의 땅인 판따나 모를 강점하고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있는 미제의 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신성한 꾸바의 땅을 더럽히고있는 이 현실을 묵과하지 말고 반제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시 《흑인 뉴욕에서 노래부르다》에서는 승리한 꾸바혁명을 축하하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망명중의 혁명가들의 결의를 노래하고있다.

시 《벗들이여, 우리 함께 가자!》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혁명의 승리를 쟁취한 꾸바의 모범을 따라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에서 미제의 숨통을 조이며 대륙적인 판도어로 사회주의혁명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반제공동투쟁에 합류해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길렌은 특히 조선인민의 투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련대성의 감정을 토로한 좋은 시들을 창작하였다.

시 《박물판의 진렬대엔》(1969)에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 제국주의를 물리친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진렬대에 전시된 무기와 탄약을 두고 시화하였다.

시에서는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혁명정신이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된것임을 밝히면서 《일제놈들을 쳐부신 무기》와 《양키들을 물리친 탄알》에 대한 시적형상을 펼쳐고있다. 그러면서 작가는 《박물판의 진렬대엔/오늘도 자지 않고 성이 나서/원썬들을 노리고있는/무기와 탄알들이 있네》라는 구절을 통하여 미제의 침략에 대처하여 경각성을 계속 높여나가면서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굳세게 고수해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노래하였다.

이러한 혁명적련대성의 목소리는 시 《조선에 드리노라》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 힘있게 울려나고있다.

이와 같이 니콜라스 길렌은 제국주의침략과 계급적해방을 위한 꾸바혁명과 꾸바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열렬한 국제주의적련대성의 감정을 가지고 조선혁명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반제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준 혁명적인 시인이였다.

리 룡 국

## 조선문학 주체100(2011)년 제8호 (루계 제766호)

###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인	쇄	주	체	100(2011)년	8월	1일		
발	행	주	체	100(2011)년	8월	5일		

7-16343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1  
D P R Korea  
ISSN 1727-9437